

## 제4장 전통의 생활양식, 민속

제1절 나서 죽을 때까지의 의례

제2절 사계절에 나타난 삶의 지혜

제3절 민속놀이

제4절 장승과 산신제

제5절 모두가 한마음 되는 해동화놀이

제6절 충의의 전통을 기리는 선현 추모 제향

제7절 설화와 민요

## 제4장 전통의 생활양식, 민속

### 제1절 나서 죽을 때까지의 의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정한 영역에서 또 다른 영역을 통과할 때 겪게 되는 경계지점에서 행하는 의례를 통과의례(일생의례, 평생의례)라고 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인간이 겪게 되는 통과의례로는 출생, 성년, 혼례, 상·장례 등이 있다.

#### 1. 일생동안 겪는 통과의례

##### 1) 출산의례

##### (1) 출산 전

##### ① 기자의례

기자의례는 혼인 후 정상적으로 임신을 할 때는 해당 없는 의례이나 일정 기간이 지나도 아기가 들어서지 않을 때는 절실히 요구되는 의례이다. 광주시에서는 기자의례의 자료가 흔하지 않은 편이며, 절에서 기



도척면 유정2리 미륵당

도를 드리는 사례가 주로 나타났다. 절에는 본인도 가지만 주로 시어머니가 가서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 도척면 유정2리에서는 마을의 미륵당에 모신 미륵님께 빈 후에 태몽을 꿴다는 사례가 있다.

## ② 태몽과 성별 구분

태몽은 임신 여부와 태아의 성별을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확인시켜주는 사회문화적 상징행위의 일종이다. 한 자식에 대해서 꿈을 한 번만 꿀 수도 있지만 여러 번 꿀 수도 있고, 임신하지 않은 자식에 대해서 꿀 수도 있으며, 태어나지 않을 자식에 대한 꿈까지 포함하는 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 ③ 임신 중 금기

임신 중 금기는 태교의 일종이다. 일단 임신이 되면 임신부는 태아를 보호하고 건강하면서도 바람직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심신을 조심한다. 여기에는 음식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반듯하지 않으면 김치 조각도 먹지마라”, “비뚤어진 데 앉지마라” 등이다.

## (2) 출산민속

과거에는 친정에 가서 출산을 하기도 했지만 주로 시댁에서 행했고, 최근에는 대부분 병원에서 아기를 낳는다. 친정에서 출산을 할 때는 출산 후 삼칠일(21일)부터 한 달 정도 몸을 푼 후에 돌아오지만 농사일 때문에 빨리 집에 와야 했다.

출산은 주로 시집와서 처음 들어가는 방, 즉 산모가 거주하는 방에서 낳았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주로 건넌방에서 낳는 경우가 많았으며, 아이의 숫자가 많아져서 방이 비좁으면 시어머니가 안방을 내어주기도 했다. 집안에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식구들도 일주일동안 집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 한다.

시집에서 출산할 때는 시어머니가 산파역할을 했다. 탯줄을 자를 때는 남녀 구별 없이 가위로 잘랐다. 이것을 시어머니 혼자서 하거나 산모가 함께 하기도 했다. 태는 출산 후 3일 만에 출산 때 깔았던 짚과 함께 마당에서 태우고 그 재는 냇물이나 개울물에 띄웠다. 이러한 전 과정은 시아버지가 지켜보는 곳에서 행해졌는데, 간혹 약에 쓸려고 태를 훔쳐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었다. 또 태와 피 묻은 짚을 당일에 집 마당에 피운 왕겨불에 태우고, 그 재는 아기 아버지가 산에 가져가서 뿌렸다는 경우도 있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씻겨서 이불 위로 옮겨두고 새 옷을 입혀서 눕혀둔다. 그렇지 않으면 ‘미끌미끌해서 못쓴다’고 한다.

### (3) 출산 후

#### ① 산후조리

출산 후 산모가 조리하는 기간은 한 달 정도가 일반적이었지만 이 기간은 집안 사정에 따라서 달랐다. 즉, 집에 사람이 없어서 밥 해먹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3일 만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형편이 넉넉한 집에서는 삼칠일에서부터 한 달 정도로 조리를 하였다.

몸조리를 할 때는 찬물에 손도 담그지 않고 해 주는 밥과 미역국을 먹는다. 1940년대에는 물자가 매우 귀했기 때문에 집안 형편에 따라서 미역국을 끓여 먹는 방법이 달랐다. 넉넉한 집에서는 홍합과 고기를 넉넉하게 넣어 끓인 미역국을 식구들과 함께 먹을 수 있었지만 넉넉지 못한 경우는 미역국을 맹물같이 끓여서 산모만 먹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산후조리 후 집이나 친정, 또는 산후조리원 등에서 2주일 정도를 더 조리한다.

#### ② 기저귀감 마련

기저귀감은 함을 메던 끈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당시는 전반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졌고 뭐든 항상 부족한 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넉넉한 집에서는 기저귀감을 따로 준비해서 사용했다. 특히 해방을 전후해서는 물자 공급에 큰 차이가 있어서 해방 후에 태어난 아기들은 이전에 태어난 아기들보다도 넉넉하게 자랐다고 한다. 최근에는 대부분 일회용 기저귀를 구입해서 쓰고 있다.

#### ③ 금줄치기

금줄은 내부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와의 경계지점에 설치하는 상징적 경계선이다. 예전에는 아기를 출산하면 즉시 금줄을 쳤다. 금줄은 왼새끼로 끈 것이며, 주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미리 준비 했다. 금줄에 꽂는 물건은 “그것보고 딸 낳았다 아들 낳았다고 한다”는 말과 같이 사회성원들에게 새로운 성원의 성별을 알리는 기능을 했다. 이것은 마을이나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광주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들을 낳으면 숯과 고추를, 딸을 낳으면 솔가지와 숯을 꽂아두었다. 숯은 부정풍이를 위한 예방의 의미이다. 고추는 남자의 성기를 닮았기 때문이며 솔가지는 바늘 모양으로 생겨서 또는 솔잎같이 굳은 절개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한다.

아들이 귀한 집에서는 아들을 낳았어도 솔가지를 꺾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눈을 속여야 명이 길어진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부면에서 딸은 숯과 솔잎, 아들은 거기에 고추를 더 꺾었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들을 낳았을 때 솔잎을 꺾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도척면 유정리에서는 다른 사례도 발견된다. 아들이 귀한 집에서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가 식전에 산에 가서 제일 탐스런 솔가지를 꺾어 와서 숯·고추와 함께 달아 두었다. 딸을 낳았을 때는 가랑잎을 꺾어 두었다는 경우도 있고, 아들이면 숯과 마늘과 고추를 달았다는 사례도 있다. 불알을 상징하는 마늘과 성기를 상징하는 고추는 아들을 표시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퇴촌면 도수리에서는 아들은 하얀 종이를 끼운 금줄에 빨간 고추와 숯을 매달았으며, 딸은 그냥 하얀 종이를 끼운 금줄만 쳐두었다고도 한다.

금줄은 대문간에 치는데, 이때 금줄만 치는 수도 많지만 황토를 한 무더기씩 대문 양쪽에 퍼두는 경우도 있었다.

#### ④ 삼신상 차리기

삼신상은 아기의 출생과 수명장수를 관장하는 삼신에게 기원하기 위해서 차리는 상이다. 삼신상은 애 낳고 삼일 만에 첫 국밥을 사발에 담고 상에 차려서 아기의 머리맡에 떠다 놓는다. 상에는 미역국 한 그릇과 밥 한 그릇을 차리는데 이때 숟가락과 반찬은 차리지 않는다. 곤지암읍 하열미리 능성구씨 종가에서는 밥그릇과 국그릇으로 호리병 바가지를 사용



곤지암읍 하열미리 정종자 종부가 '산바가지'로 쓰던 바가지

하여 각각 3개씩 차리는데, 이것을 '산바가지'라고 한다. 산바가지는 자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대대로 물려준다. 산바가지 3개를 차리는 것은 삼신을 3개의 신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려둔 삼신상은 조금 있다가 산모가 먹어야 한다. 산바가지의 경우는 산모가 바가지채로 들고 먹는다. 이 밥과 국은 그 날 안에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쉬었다가 먹는다.

## 2) 양육의례

### (1) 이름 짓기

아기의 이름은 출산 전에 미리 지어 놓기도 하고 출산 하자마자 짓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대개 한 달 이상 지나서 지었다. 이름을 지을 때까지 아기를 부르는 명칭은 '아가 아가' 라고 했을 뿐 '개똥이니 소똥이니' 하는 애명은 없었다고 한다. 집안에 한문공부를 한 할아버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름을 빨리 짓기도 했다.

이름을 짓는 데도 남녀를 구별하는 경우가 있다. 딸 이름은 아버지가 짓고, 아들 이름은 돌림자를 고려해서 집안 어른이나 '지관선님' 을 하는 집안 어른에게 부탁해 지었다는 것이다.

### (2) 칠일의례

아기가 태어난 지 칠일이 되는 날에는 팔을 넣은 찰떡을 한 시루해서 방에 갖다 두었다. 그러나 비교적 집안이 넉넉했던 능성구씨 종가에서도 칠일을 별도로 챙기지 않은 것을 보면 광주시에서는 칠일의례가 보편적이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 (3) 백일잔치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에 행하는 의례이다. 이때는 밥과 미역국, 백설기, 수수팔떡경단을 준비하고 '백 명이 먹어야 한다' 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송편을 만들어 먹는 경우도 있다. 백설기는 아기의 명이 길어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수록 좋다고 한다. 수수팔떡은 팔의 빨간색이 잡귀를 쫓는다는 의미가 있어서 경단에 수수팔을 입힌다고 한다. 백일 떡을 받은 이웃집에서는 특별히 답례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1970년대 초·중반에는 100원 가량의 돈을 주었다는 사례도 있다.

### (4) 돌잔치

돌잔치는 아기가 태어난 후 첫 생일을 맞이하는 날 행한다. 이때는 백설기와 수수팔떡을 찌서 준비하고 과일·국·미역국을 함께 차리는데, 송편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상에 실타래와 연필·공책·돈·활 등을 차려서 '돌잡이' 를 한다. 실타래는 수명이 길어지라는 의미

가, 연필과 공책은 공부 잘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돌잡이상을 차린 후 아이에게 집으라고 하는데, 이때 연필을 집으면 공부를 잘할 것이고 돈을 집으면 부자가 될 것이며 활을 집으면 무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요즘은 활을 놓는 예는 거의 없지만 뷔페식당 같은 연회장에서 돌잔치를 하면서 돌잡이도 하고 있다.



초월읍 신월리 박정신 씨 만아들 돌잔치(1970)

돌떡 중 수수팔떡은 아기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열 살 때 까지 해주라”는 말이 있다. 팔과 마찬가지로 수수도 잡귀를 쫓는다고 인식한다.

### 3) 혼인의례

최근의 혼례는 서양식을 기본으로 하고 폐백 등 전통 요소를 다소 가미하여 예식장에서 치르거나 교회, 성당, 사찰 등에서 종교 전례에 따라 치러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성균관 등에서 전통혼례 방식으로 치르는 경우도 간혹 있다.

#### (1) 혼례식 전

##### ① 중매

1940~1950년대에는 보통 17~20세 정도에 혼인을 했으며, 이른 경우에는 12세의 신랑도 있었지만 20세가 넘는 경우에는 노총각이라고 했다고 한다. 여자의 경우도 평균 혼인 연령은 17~18세로 20세 정도의 여성은 노처녀라고 불렸다. 신랑신부의 나이는 동갑내기거나 신랑이 한두 살 많았으며, 1950년대에는 혼인 직후 신랑이 군대를 가거나 군 복무 중에 혼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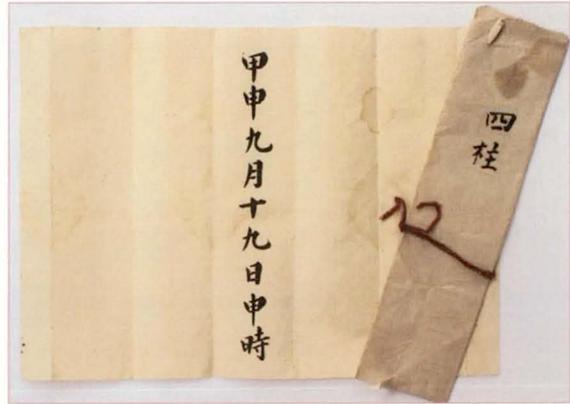
혼인 형태는 중매혼이었다. 중매자는 ‘매파’ 또는 ‘중매쟁이’ 라고 했으며, 보통 친인척들이었다. 중매는 신랑감과 신붓감이 있는 양쪽 집안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게 된다. 당시에는 “양반 상놈은 왜놈 시절에도 가렸다”는 말과 같이 신분계급의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매파는 양쪽 집안의 문벌을 주로 따져서 중매했으며, 재산은 크게 따지지 않았다고 한다.

## ② 사주보내기와 택일

양쪽 집안에서 자녀의 혼인을 승낙하게 되면 그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된다. 중매쟁이가 양가 어른들과 상의해서 진행한다. 그래서 “함이 언제 간지도 모르고 장가만 들었다”는 말처럼 당사자는 그 과정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편지와 함께 사주를 보낸다. 아직 사돈을 맺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돈지라고 할 수 없고 그냥 편지를 보낸다. 이때 사주를 전달하는 사람은 마을에서 아들을 낳고 팔자도 좋은 사람을 골라서 보낸다.

신부 집에서는 사주를 받고 혼인하기로 결정하면 날짜를 받아서(택일) ‘아무 날 혼인합시다’ 하는 편지와 함께 택일을 알린다. 택일은 ‘지가사(지관)’에게 의뢰한다. 이때 보내는 편지는 안사돈이 직접 쓰기도 하고 대서하기도 한다.



실존음 하열미리 능성구씨 사주단지

## ③ 함 보내기

전통시대에는 함을 혼례식 사나흘 전에 보내기도 하고, 혼례일 아침에 ‘후행손님(후안손님, 후행)’이 인솔해서 신랑과 가마꾼, 하인이 신부 집으로 갈 때 가지고 가기도 했다. 현대에는 주로 신랑의 친구들이 일주일 전이나 하루 전에 가지고 간다. 이때 함을 지고 가는 사람을 ‘함진에비(함진아비)’라고 하며, 아들을 낳은 친구가 하는데, 없을 경우 결혼한 친구 중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함 보내기(초월음 신월리 박정신 제공, 1950년대 중반)

함에는 청실과 홍실타래, 혼서지, 신부가 입을 옷(또는 옷감), 폐물 등을 넣는다. 예전에는 신부의 옷을 준비해가는 경우에 그 옷을 입고 혼례를 올렸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주로 옷감을

가져갔다. 부유한 집에서는 치마저고리 두 벌, 두루마기 한 벌, 은반지와 은비너, 청실홍실, 혼서지 등을 함에 넣었다고 한다. 혼서지는 일정한 너비로 접어서 청실홍실로 매듭이 안 되도록 양쪽에 귀가 나게 묶는다. 이것을 풀 때에 어느 쪽 귀를 당기더라도 한 번 만에 풀릴 수 있도록 묶는 것이다. 또한 함은 빨강과 파랑색의 겹보자기로 싸고 그 겹을 또 보자기로 싸서 멜빵을 감아 댔다. 멜빵으로 사용하는 천은 자르면 안 좋다고 해서 한 필 그대로 사용했으며, 나중에 기저귀로 사용 했다고 한다.

함진애비가 신부 집으로 들어갈 때는 대문간에 미리 준비해둔 바가지를 깬다. 그리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 멜빵을 벗지 않고 짚어진 채로 걸터앉으면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벗긴다. 그러면 옆에 있던 신부 어머니가 함을 끌어안아서 쌀과 청수, 또는 '붕치' 라고 하는 떡을 올려놓은 상 위에 함을 올려놓고 절을 한 후에 풀어서 본다. 함을 개봉할 때는 신부 아버지가 눈을 감은 채로 끄집어낸다. 이때 빨간 것이 나오면 좋다고 한다.

## (2) 전통 혼례식

### ① 신랑 입장과 재꾸래미

혼례시간이 되면 신랑은 말이나 가마를 타고 신부 집으로 향한다. 부잣집에서는 말을 타지만 보통은 가마를 타고 간다. 이때 가마는 지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지붕을 뜯어낸 경우도 있다.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을 청년들이 길 가에 기다리고 있다가 재를 뿌리는데, 이것을 '재꾸래미 한다' 또는 '재꾸래미를 뿌린다'고 한다. 이것은 잡귀를 물리쳐서 신랑에게 아무 탈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미를 지닌 행위이기도 하고, 신부가 시집가는 것에 심술이 난 동네 총각들이 장난치는 것이기도 하다. 재는 화장실에 쌓아둔 것을 사용했다. 당시에는 신문지도 없었기 때문에 시멘트 포대나 사료 포대 같은 것에 재를 싸서 가마를 향해서 던졌으며, 삼태기로 퍼서 들이붓기도 했다. 이러한 풍속은 예식장 혼례가 일반화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 ② 혼례식

혼례식은 대개 오전 11~12시에 맞추어 진행했으며, 신랑이 입는 관복은 동네마다 준비해 놓고 혼례를 할 때 빌려 쓰는 것이 보통이었다. 신랑이 신부 집으로 들어갈 때 바가지를 깨고 들어가는 경우가 도척면 유정리에서 있었다.

초례상에 차리는 것은 술가지 꽃은 병과 삼색과실·사과·용떡·팔과 쌀을 담은 그릇 등이며, 신랑과 신부 옆에는 장담과 암탉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선다. 술가지는 사철 푸름을 잃지 않는 정절을 의미하며, 팔과 쌀은 신부가 시집갈 때 가지고 가는데 붉은 팔은 잡귀를 물

리친다고 한다. 닭은 혼례를 마치면서 날려 보내는데 이때 ‘기러기 날라간다’고 소리친다.

용떡은 늦주밭에 가래떡 만드는 하얀 떡을 담아서 몸통과 머리 부분을 손으로 뭉쳐서 눈사람 모양으로 만든다. 신랑 용떡은 팔으로 눈을 박아 두고 목에는 테두리를 둘러서 감아서 싸둔다. 신부 용떡은 신랑 용떡과 모양이 같지만 배 부분에 5~6개의 작은 새알을 만들어 붙이는데, 자식 몇 명 낳으라는 주술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혼례(초월읍 신월리 박정신 제공, 1950년대 중반)

신랑이 초례를 치르기 위해서 식장으로 들어갈 때 함진애비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붙여서 만든 보자기에 싼 목기러기를 신랑에게서 받아서 신부 어머니에게 드린다. 이때 ‘기러기 날라간다’고 소리치면 신부 어머니가 그것을 얼른 받아서 방 안으로 들어간다. 전안례이다. 그리고 하늘에 고한다는 뜻으로 천제를 지낸다. 초례는 천제의 의미이지만, 그 내용은 교배례이다. 즉, 신랑이 먼저 신부 쪽을 향해서 두 번 절하고, 이어 신부가 세 번 절한다. 다음에 술잔을 초례상에 걸쳐져 있는 청실과 홍실 밑으로 세 번 왔다 갔다 한다. 오른쪽으로, 가운데로, 왼쪽으로 비껴서 석 잔을 건넨다. 이때 신부는 술잔을 입에만 갖다 대지만 신랑은 마신다. 이것이 합근례이다. 초례의 과정은 전안례와 교배례, 합근례로 이루어진다.

초례가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안방으로 들어가 겸상으로 식사를 한다. 신랑을 부엌으로 데리고 가서 오래 살라는 의미에서 주걱으로 바가지 국수를 먹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후에 신랑 집으로 출발할 준비를 한다. 신부 집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신랑 집으로 떠난 후 동네사람과 잔치를 시작한다. 지금은 혼례나 상례 같은 큰일에 부조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예전에는 막걸리라도 한 초롱 가져가면 되었지만 지금은 현금으로 부조한다.

### ③ 식장에서 신랑골리기

혼례를 행하는 중에 신부 측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랑을 골렸는데, 이것은 신랑의 재치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초례청에서 깔아둔 자리 밑에 수수깥이나 콩을 깔아 놓아서 신랑이 입장할 때 돛자리를 잡아 당겨서 곤두박질치게 한다거나 미끄러지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신랑의 구두코에 밥송이를 넣어두기도 하고, 합근례 때 신랑에게 안주를 준다면

서 장작 두 개를 젓가락으로 사용해 긴 콩나물을 집어주어서 먹기 어렵게 하는 등이 있다. 신랑골리기는 예식장에서의 혼례가 일반화하면서 사라졌다.

#### 4) 장수의례

##### (1) 환갑

환갑還甲은 태어나서 60년이 지난 날, 즉 61세가 되는 생일로 예전에는 장수의 대명사였다. 회갑回甲, 화갑華甲, 주갑周甲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평균수명이 대폭 늘면서 장수의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장수의례로서의 환갑의 의미는 상실되었고, 평상시보다는 조금 특별한 생일로 자리매김 되었다.



회갑연(초월읍 신월리 박정신 제공, 1975년)

그리고 집에서 치르던 환갑의례의 장소는 예식장이나 식당으로 바뀌었다. 의례 음식의 준비도 식당에 모두 일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다만 환갑의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떡은 집에서 준비해 식당으로 가져가서 차린다.

환갑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 가치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80대는 “나이 육십이면 환갑인데 인생을 다 살았다”고 한다. ‘육십 지나서 먹는 나이는 남의 나이 먹는 것’이라고 하며, 덧붙여서 먹는 나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80대 제보자들에게서는 환갑의 중요성이 여전히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70대 중반만 해도 지금은 “환갑은 너무 젊어. 애들 같은데 어떻게 환갑을 해”라는 말처럼 환갑은 하지 않고 칠순잔치를 많이 한다고 한다. 대신 환갑 때는 여행을 가는 편이라고 한다.

##### (2) 칠순과 팔순잔치

하열미리 능성구씨 종부의 경우, 칠순잔치를 광주시의 뷔페식당에서 행하였다. 버스를 대절해 동네 사람들을 모두 초청하고, 아들 직장 동료들도 초청해서 손님이 무척 많았다고 한

다. 그러나 자식들이나 다른 가족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당사자 부부가 친구들을 초청해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간단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환갑잔치를 크게 하지 않으면서 칠순잔치가 더욱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또 팔순 생일은 칠순에 비해서 비교적 소박하게 치르는 경향이 있다. 특히 환갑잔치를 크게 했던 경우에는 칠순과 팔순을 소박하게 하며, 친구들과 점심을 함께 나누는 정도로 그 의미만 새기면서 지나간다고 한다. 그러나 환갑잔치를 행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칠순이나 팔순 기념일에 잔치를 하는 편이다.

### (3) 회혼례와 기타 의례

회혼례는 부부가 혼인한지 환갑(60년)을 맞이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의례이다. 그래서 회혼례는 부부와 자식들이 모두 생존하고 있어야 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의례이다. 회혼례에서는 혼인할 때와 똑같이 신랑은 사모관대를, 신부는 족두리와 원삼을 입고 의례를 행한다.

그밖에 환갑 이듬해 생일에 치르는 진갑과 77세를 의미하는 희수(喜壽), 88세를 의미하는 미수(耄壽) 등의 장수의례가 있으나 흔히 행해지지는 않는다.

## 2. 일생의 마지막 관문, 상례

상례(喪禮)는 인간의 일생에 있어 마지막으로 거치는 관문인 죽음과 관련된 의례이다. 상례는 고인의 시신을 처리하는 일과 고인의 영혼을 조상신으로 승화시키고 상주(喪主)들이 상중의 기간에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상례의 문화적 전통은 대부분 유교식이다. 유교식 상례는 19개의 대절차와 수많은 소절차로 구성된다.



능성구씨 집안의 상례(곤지암읍 하열미리 구충회 제공, 1970)

## 유교식 상례절차

순서	대절차	시기	소절차
1	초종의	1일째	임종, 속광, 초혼, 시사전, 설치철족 등
2	습	1일째	목욕, 습, 반함, 영좌 설치, 입명정 등
3	소렴	2일째	소렴전 차리기, 머리 다시 묶기, 시신 베로 싸기
4	대렴	3일째	입관, 빈
5	성복	4일째	성복(상복 입기), 조석전과 상식 올리기
6	조		문상 받기
7	문상		
8	치장		무덤 자리 잡기, 묘지석과 신주 만들기
9	천구	발인 전날	인사와 발인 준비
10	발인		영구를 상여로 운반
11	급묘		하관, 매장, 제주
12	반곡		
13	우제		우제, 재우제, 삼우제
14	졸곡	우제 후 3개월째	현주 사용, 축관 동향, 독축
15	부제		새 신주를 사당에 모심
16	소상	만 1년째	상복 가볍게
17	대상	만 2년째	영좌 철거, 탈상
18	담제	초상으로부터 27개월째	
19	길제		신주 대 바꾸는 의례

광주지역에서 행해졌던 상례문화의 전통은 다양하다. 그러나 이 지역의 향토문화를 조사 연구하고 있는 박광운 향토문화연구소장과 청주한씨 한낙교 씨가 들려주는 내용이 다른 사례에 비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중심으로 광주지역 상례의 문화적 전통을 살펴 보았다.

## 초종의

일반적으로 운명이 가까워지면 가족들이 모두 모여 그 자리를 지키는데, 이를 '종신終身한대'고 한다. 그래서 "종신자식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종신하지 못한 자식은 가장 큰 불효자라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곡기를 끊는다고 한다), 숨이 가빠지는 등 상황이 나빠지면 마을의 경험이 많은 어른들을 모셔 와서 물어보아 그 기간을 헤아린다. 이때쯤이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기다리는데, 주위를 조용하게 하여 임종臨終을 한다. 운명하였다고 보이면 풀숨을

코 밑에 올려놓아 움직임을 보고 절명을 판단한 후 흠이불을 덮어 운명하였음을 받아들인다. 또한 손발과 가슴의 온도 등을 통해 절명을 판단하기도 한다.

운명이 확인되면 초혼招魂을 한다. 초혼은 저승으로 떠나가는 고인의 영혼을 불러 회생을 바라는 의미와 향후 조상신으로 모시기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초혼을 한 영혼을 잘 모셔서 혼백을 만들고 매장을 한 후에는 신주神主로 전이시켜 조상신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초혼을 하는 방법은 고인의 윗옷을 들고 앞지붕으로 올라가 서북쪽을 향하여 북을 한다. 초혼을 하는 이유는 “하늘에 알린다”는 의미라고 한다. 초혼을 하면 사жат밥을 얹어 놓거나 치운다. 사жат밥은 극락에서 오는 저승사자에게 고인을 잘 모시고 가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차리는 것이다. 저승사자는 3명이기 때문에 짚신 3결레, 밥 3그릇, 동전 3냥을 키에 차리는데, 키를 사용하는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고인이 운명을 하면 상주들은 두루마기를 입을 때 한 쪽 팔을 빼고 입는다. 부친상일 때는 왼쪽 팔을, 모친상일 때는 오른쪽 팔을 빼고 한다. 이는 단袒이라는 것으로 반함을 할 때 상주가 왼쪽 소매를 빼고 반함을 하는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기실 부친상이나 모친상에 따라 팔의 위치를 달리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러한 관습이 많이 나타난다.

초혼을 하고 나면 바로 혼백을 만든다. 혼백이란 신주를 만들기 전에 임시로 명주나 모시를 접어서 만든 신위로, 사통불통으로 접고 가운데에 띠를 묶어 위쪽에 상소를 표시한다. 원래 혼백은 속백束帛·동심결同心結·속제俗制 등이 있는데, 광주지역의 혼백은 속제에 해당한다. 혼백을 만들면 혼백함을 만들어 그 안에 모신다. 전을 올리거나 제사를 지낼 때는 혼백함의 뚜껑을 연다.

운명하면 바로 수시收屍를 하는데, 이를 ‘수시견는다’고 한다. 시신이 굳어 버리면 염斂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발을 가지런히 하고 곧게 한다.

## 습

시간이 되면 목욕을 시키는데, 향탕으로 얼굴부터 씻기고 아래쪽으로 차례로 닦는 정도이다. 남자는 남자가, 여자는 여자가 한다. 이때 좌우 손톱을 조냥 2개, 좌우 발톱을 조냥 2개, 그리고 머리카락을 두발량 1개에 넣는다. 이 주머니를 조발량이라고 하는데, 모두 5개이다.

## 소렴

수의縫衣는 베로 만드는데, 두 가지 이유가 전해진다. 하나는 제일 깨끗한 천이고 근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천이 베밖에 없었기 때문에 삼베로 수의를 만들었다는 해석이다. 수의는 속옷·겂옷·포·흠이불·이불 모두를 말한다.

수의를 입히고 나서 이불로 싼 후 7매의 맺배로 묶는다. 7매의 양쪽 끝을 3가닥으로 자르기 때문에 21매듭이 된다. 이때 세로매 역시 끝을 3가닥으로 자르는데, 세로매는 계산하지 않는다. 이것이 전통적인 소렴小斂 방법이라고 한다.

## 대렴

칠성판을 관 안에 깔고 입관을 하는데, 이를 대렴大斂이라고 한다. 칠성판이란 사람크기의 널빤지에 북두칠성처럼 구멍 7개를 낸 판이다. 이는 북두칠성이라는 신성한 별을 숭상하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한다. 입관을 하는 시기는 천기대요天氣大要를 봐서 황도시黃道時에 입관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는 택일을 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즉, 일진이 맞지 않거나 약간 나쁜 일이 있더라도 황도시에 하면 이 모든 것이 제살除殺된다고 한다. 관의 빈 곳은 짚을 한지에 싸서 채우는데, 이를 '복옷'이라고 한다. 입관할 때의 금기는 “눈물이 떨어지면 안 된다”, “관에 쇠붙이를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관에 못질을 하면 안 된다”는 것 등이다. 입관을 마치면 곡을 한다.

## 성복

옛날에는 4일째가 되면 성복成服을 하였으나 요즘은 대렴을 마치면 바로 성복을 한다. 상복은 삼베로 만드는데, 이는 상제(상주)가 죄인이기 때문에 가장 천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슬기를 꺾매지 않는 것 역시 격식이 없음을 나타내고 또한 추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성복을 할 때는 마당 한 가운데 정화수를 떠 놓고 상주들이 곡을 하면서 상복을 입는다. 상복을 모두 입으면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재배를 한다. 이어서 남자 상주는 동쪽, 여자 상주는 서쪽에 서서 서로 마주보고 조상하면서, 서로 죄인이 된 것을 위로한다고 한다.



성복을 한 모습(탄별동 박용재 제공, 1989)

## 문상

성복을 마치고 나면 문상객間喪客을 받는다. 문상을 할 때는 빈소에 들어가서 분향焚香하고

곡을 하고 재배한 후 상주와 인사를 교환한다. 곡을 할 때는 “어이어이”라고 한다. 상주는 곡을 할 때 “애고애고”라고 하는데, 이는 슬플 애애히에 어조사가 붙은 것이라고 한다. 상주와 인사를 할 때 문상객이 통상 “천봉지통에 얼마나 애통하십니까?”라고 말하면 상주는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망극합니다”라고 답한다. 단 “얼마나 애통하십니까”라는 말은 부모에게만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 발인

발인을 위해 영구를 옮길 때는 뗏돌에 바가지를 얹어놓고 이를 밟아서 깨고 나오는데, 액운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발인하는 날 아침에는 상식만 올리고 조전朝奠을 올리지는 않는다. 한편, 마당 혹은 집 앞의 넓은 터에서 상여를 꾸미고, 영구를 상여에 모신다. 그리고 상여 앞에서 견전遣奠을 지낸다. 광주에서는 견전을 발인제發柩祭 혹은 영결식永訣式이라고 한다.

상여가 출발할 때는 집을 향해 2번 반 절을 하고 돌아서서 떠난다. 상여가 움직일 때는 선소리를 하면서 간다. 선소리를 하는 사람을 ‘수번’ 혹은 ‘요령잡이’라고도 한다. 상여가 집을 떠나 마을 어귀에 도착하면 여자들은 배웅을 하고 장지까지 따라가지는 않는다. 이때 고인의 물품을 태우고 집안을 정리하며 신주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행상을 하는 동안 친한 친구나 친척, 고인의 생사와 관련이 깊었던 곳에서는 노제路祭를 지낸다.



만장을 앞세우고 상여나가는 모습(남종면 귀여리 한낙교 제공, 2005)

## 급묘

상여가 장지에 도착하여 상여를 내리면 영정과 신위를 상여 앞에 모시고 상주가 지킨다. 이때 문상객이 있으면 문상을 받고 수시곡을 한다. 정해진 하관 시간이 되면 하관을 한다. 광주지역에서도 매장을 할 때는 풍수에 구애되는 일이 많다. 그래서 지관地官을 모셔와 터를 잡고 좌향坐向을 본다. 하관할 때면 지관은 묘의 입수入首 부분에 패철을 놓고 좌향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활을 이용하여 좌향을 정확히 맞추고 흙으로 메워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킨다. 그리고 흥대를 덮는다.



묘를 단단하게 다지는 달고(남종면 귀여리 한낙교 제공, 2005)

흥대를 덮을 때 3번째 흥대는 열어둔다. 이는 현훈玄纁을 드리기 위한 것이다. 이를 “예단禮緘을 드린다”, “폐백을 드린다”고 한다. 폐백을 드리는 방법은 상주가 현훈을 하늘 높이 받든 후 밖으로 내밀었다가 다시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을 두 번 취한 다음 일하는 사람에게 주면 이를 시신 위에 놓는다. 시신 위에 놓을 때는 좌청우홍左靑右紅으로 놓는다고 한다. 이는 위쪽의 동쪽에 청색의 폐백을, 아래쪽의 서쪽에 홍색의 폐백을 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횡대를 덮으면 상주가 삼으로 3회 헌토獻土를 한다. 헌토를 마치면 흙을 채우고 달고를 한다.

## 산신제와 평토제

봉분이 완성되면 평토제平土祭를 지낸다. 이에 앞서 묘의 동쪽에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고 산신제를 지낸다. 산신제는 친척이나 마을 주민 중에서 지내는데, 해당 산에 부모님의 산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잘 돌봐 달라는 의미와 산소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어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산신제를 마치면 산소 앞에서 평토제를 지낸다. 평토제를 지내는 방법은 상주가 주인이 되어 삼헌을 올려 제사와 같은 방법으로 지낸다. 이는 자손들 모두가 잔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평토제를 지내는 것은 부모의 시신을 이곳에 묻고 그 영혼만을 모시고 돌아간다는 의미이다.

## 반곡

평토제를 마치면 반곡反哭을 한다. 이곳에서는 이를 ‘반혼返魂’ 혹은 ‘반환’이라고 한다.

상주들이 산소를 한 바퀴 돌고 나서 반드시 상여가 갔던 길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된다고 한다. 뒤를 돌아보면 혼백함의 혼이 빠져나가고, 다른 길로 오면 혼이 집으로 찾아오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우제

반곡을 하여 집에 도착하면 집에서 기다리던 여자 상주들이 곡을 하면서 영혼을 맞이한다. 미리 준비해 둔 상청에 신주와 영정을 모신다. 그리고는 곧바로 초우제를 지내는데, 저녁상식과 석전을 겸한다. 초우제부터 비로소 상주가 주인이 되어 제사를 올린다. 그래서 상주는 목욕재계를 하고 제사에 임하며, 삼헌을 하고 독축讀祝을 하는 등 제사의 형식에 따라 지낸다. 단지 독축을 할 때 축관祝官이 주인의 오른쪽에서 서향西向하여 읽는 것이 다르다. 이는 고인에서 조상신으로 전이轉移되어 가는 전이의 과정을 상징한다.

고인은 우제부터 조상신의 자격으로 제사를 받게 된다. 우제는 3회에 걸쳐 지내는데, 통상 2일째에 재우제를 지내고 3일째가 되면 삼우제를 지낸다. 삼우제날에는 아침 일찍 제사를 지내고 산소에 가서 성묘省墓를 한다. 이날 저녁에는 상식만 올리고 전은 올리지 않는다.

## 3. 조상에게 복을 비는 제사의례

### 1) 제사의 유래와 종류

제사祭祀는 신명을 받들어 복을 비는 의례이다. 제사의 발생에 대해서, 인간은 죽어도 영혼은 불멸한다는 영육이중구조靈肉二重構造의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설과 조상에 대한 애정과 공포에서 유래되었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 『가례家禮』에서는 제사에 대해 조상은 자신의 근본이므로 선조의 은혜에 보답하는[報本反始] 마음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제사는 국가에서 지내는 국가제사와 일반 가정에서 지내는 집안제사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제사는 국가의 대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종묘대제를 비롯한 대사大祀, 선농제先農祭 등의 중사中祀, 명산대천제名山大川祭 등의 소사小祀로 구성된다. 집안제사는 주로 개인의 일생의례와 관련이 있는데, 조상신에 대한 의례를 제사로 간주하고 있다.

집안 제사의 종류는 상중喪中에 지내는 우제虞祭·소상小祥·대상大祥·담제禫祭·길제吉祭 등의 흥제凶祭와 평상시에 지내는 사시제四時祭·네제禰祭·기제忌祭·묘제墓祭·속절차례俗

節茶禮 등이 있다. 현재는 상중의 제사 일부와 기제사·차례·시제 등만 남아 있고, 성묘로 묘사를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2) 광주지역 제례

기제사의 봉사대수는 원래 4대봉사였으나 요즘은 2대봉사를 하는 집도 많이 늘어났다. 종가의 경우는 대부분이 4대봉사를 하지만 일부에서는 3대봉사인 증조까지만 기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요즘 제사는 기제사와 묘사, 차례만 있지만 옛날에는 추석과 한식, 동지에도 차례와 함께 묘사를 지냈다. 광주안씨의 경우 여전히 4대봉사를 하고 있고, 두 분의 불천위제를 모시고 있다고 한다. 설과 추석의 차례를 합하면 연 16회의 제사를 지내는 셈이다.

제사를 지낼 때는 삼헌을 하는데, 이를 초헌·아헌·종헌이라고 한다. 파평윤씨 집안에서는 초헌 때는 육적을, 아헌 때는 어적을, 종헌 때는 소적을 올린다고 한다. 광주안씨 종가에서는 잔을 올릴 때마다 생선 한 마리씩을 올린다고 한다. 능성구씨 집안에서는 초헌 때만 진적進帛을 한다. 그리고 제사의 진설 방법에서 설소과設蔬果와 진찬進饌을 구분하지 않고 제수를 모두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지방을 모시고 제사를 지낼 때는 강신을 하면서 일동이 재배를 하는데, 이는 참배의 의미가 있다. 합문闔門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자리를 잠시 피하거나 뒤돌아서 꿇어 앉아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제상 앞에 꿇어앉아 있으면 된다는 주장이 섞여 있다.

헌작을 할 때 젓가락을 시접에 세 번 구르는 것을 정저整箸라고 한다. 그러나 제사를 지낼 때 시접에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세 번 굴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 헌작할 때마다 젓가락을 적에 올리거나 편에 올리는 등 옮기는 집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지나친 형식이라고 비판적이다.

제수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승어'라고 한다. 승어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에서 서식하지만 여름에는 강으로 겨울에는 바다로 나가서 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잡을 수 없는 생선이기 때문에 중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승어는 생선 중에서도 사람의 시신 썩은 것은 먹지 않기 때문에 제사에서 중요시한다고 한다.

실과實果는 삼색과실로 대추·밤·감이 기본이 되며 삼실과라고도 한다. 대추는 꽃이 피어 수정되기 전에 꽃 그자체가 떨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제상에 오르고, 밤은 씨가 씹이 터서 나무가 자라 천년이 되어도 원래의 씨앗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감은 아무리 좋은 감 씨를 심어도 고염이 되기 때문에 근본, 즉 자신의 혈통을 변형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제상에 오른다고 한다.

그러나 제수 중에는 제상에 올리지 못하는 것도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복숭아인데, 귀신을 쫓는 나무이기 때문에 제사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씨가 없는 과일 역시 제상에 올리는 것은 금기시 되는데, 바나나와 감귤, 파인애플 같은 것이라고 한다. 또 오징어는 무골 無骨이기 때문에 제상에 오르지 못하나 말려서 장식용으로는 사용한다. 무골이라는 것은 집안의 뼈대가 없어지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뼈 없는 생선을 제상에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포脯로 사용할 북어나 대구가 없을 경우 그 대신 오징어를 포로 사용한다고 한다. 메를 지을 때는 잡곡을 섞어서는 안 되며, 제사 음식을 지을 때 오신채五辛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공통된 전통이다.

제일 최소 3일전부터는 외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부정한 것을 볼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상가 출입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에 근거하여 삼일재계三日齋戒라는 것이 등장하였다고 한다. 제사는 자시子時, 즉 밤 11~12시에 지냈다. 이는 신神이 활동하는 시간이 자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기다리기도 지루하고 아침에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시경이면 지낸다고 한다. 능성구씨 집안의 경우 10년 전부터 가정의례 준칙에 따라 조상이 돌아가신 날 일몰 후 7~8시에 지낸다고 한다. 이는 퇴근 후 참사, 참사 후 출근 등을 고려한 처사였다고 한다.

한편 집안에 자식 등의 혼례 날짜를 잡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자식이 혼인을 하면 사당에 고하는데, 이때는 사당차례를 지낸다고 한다. 만약 사당이 없을 경우 산소에 성묘를 하면서 고유를 하기도 한다.

## 제2절 사계절에 나타난 삶의 지혜

세시풍속歲時風俗의 세歲는 일 년을 뜻하고 시時は 봄·여름·가을·겨울의 사계절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세시풍속은 일 년 사계절의 풍속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세시풍속은 그 고장 사람들의 자연경관과 인문환경, 문화의 기반 위에서 존재하는 삶의 지혜이자 양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지혜의 양식은 매년 같은 시기에 주기적으로 반복됨으로써 현장의 세시풍속으로 정착되게 된다.

이 글은 경기도 광주시의 세시풍속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정리하였다. 시사편찬의 일환으로 착수된 이번 조사에서는 현장성의 반영에 비중을 두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세시풍속의

보편적 기술을 지양하고, 토착민들의 문화를 생동감 있게 옮기려 하였다.

조사 대상 마을은 장지동, 남중면 분원리, 초월읍 서하리, 퇴촌면 정지리·우산리, 중부면 광지원리 등이다. 조사는 2008년 10월과 2009년 1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현지 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개별 세시풍속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한 해의 풍속자료는 1월부터 12월로 나누어 각월을 단위로 기술하였다. 태음력을 기초로 한 분류를 근간으로 하되 태양력이 해당 풍속의 기준이 될 때에는 이를 별도로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 1. 정월

### 1) 설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날을 설이라 한다. 설은 원조元朝·원단元旦·신일愨日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가정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설날 이른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한다. 세배는 부모에게 맨 먼저 하는 경우와 그 집안의 어른부터 올리는 경우가 혼재한다. 같은 항렬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맞절을 한다. 장지동의 제보자 송종옥(1933, 남) 씨는 설날 세배를 차례 지내기 전에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한다.

세배에는 덕담이 따른다. 덕담은 절을 받은 어른이 자식이나 아래 항렬의 사람에게 해주는 충고·지혜·희망 등을 담은 말이다. 차례를 지낸 뒤에는 떡국을 먹는다. '떡국을 먹어야 비로소 한 살을 먹는다'는 속설이 있다.

### 2) 안택고사와 삼재풀이

#### (1) 안택고사

안택고사安宅告祀는 정월 초사흘로부터 보름 사이의 길한 날을 받아 이루어진다. 새해에 집안의 평안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하며, 만신이나 법사를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가정의 주부가 중심이 되어 시행한다.

중부면 광지원리 백남오(1918, 여) 씨는 안택고사를 위해 시루떡을 찌 제일 먼저 안방의 삼

신 전에 놓고 치성을 하였다. 그리고 마루와 장독대의 터주 전에 차례로 시루를 놓은 뒤 비손을 하였다. 이어 시루의 떡을 떼어 대문 앞으로부터 울타리 내부 사방의 여러 곳에 가져다 놓았다.

퇴촌면 우산리 정복동(1937, 여) 씨는 이와 유사하지만 맨 먼저 조상 전에 시루를 놓고 비손하였다. 이는 두 제보자가 신앙하는 가신家神이 서로 다른 데에 기인한다. 백 씨가 자신의 주신으로 삼신을 모신 반면 정 씨는 조상신을 주신으로 삼은 것이다.

## (2) 삼재풀이와 제웅치기

### ① 삼재풀이

삼재三災란 사람이 출생한 해를 십이지+二支로 따져 불운이 드는 해를 말한다. 삼재의 불운에 대해 불가에서는 사람에게 닥치는 세 가지 재해로 도병刀兵·기근饑饉·질역疫癘을 꼽는다. 다른 관점에서는 화재火災·수재水災·풍재風災를 꼽기도 한다.

삼재풀이는 무속인을 찾아가거나 인근의 절을 찾아가 해결한다. 삼재풀이 방식은 무속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고정된 정형을 논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무속인들로부터 삼재풀이의 방식을 전해 받는 개개의 사람들은 누구의 방식을 따르느냐에 따라 각자의 삼재풀이 방식이 다를 수 있다.

### ② 홍수맥이

삼재풀이와 같은 액막이의 일종으로 광주시 일원에 널리 퍼져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홍수맥이이다. 홍수맥이의 홍수는 '횡재수'의 횡수에서 나온 말로 보인다.

홍수맥이나 액막이나 마찬가지로. 왜 그러냐면, 절을 가든지 만신 집을 가든지 보름에 가면 홍수맥이 하나, 가서 이제 뭐 과일 사가지고 가든지 쌀을 가지고 가든지, 이래서 우리 1년에 홍수를 봐야 하잖아. 그러니까 홍수맥이야. (조사자 : 홍수가 뭐예요?) 홍수가 1년 동안에 우리가 살면서 괜찮을까? 사는 동안에, 1년 동안에 나쁜 일이나 없을까? 이게 홍수맥이야. <정복동(1937, 퇴촌면 우산리, 여)>

1년 동안의 운세 가운데 불운이 들면, 이 불운을 거두어내기 위한 어떤 특별한 행위가 홍수맥이란 내용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특별한 행위를 승려나 만신에게 의뢰한다는 대답이다.

### ③ 제웅치기

제웅치기 역시 홍수맥이나 삼재풀이와 같이 개인의 불운을 막기 위한 액막이의 일종이다.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남녀의 나이가 나후직성羅喉直星에 들면 제웅을 만든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직성이란 사람의 운명을 맡고 있는 9종의 별이다. 이 직성 가운데는 사람에게 흉한 직성이 있는데 그것이 나후직성이다. 이 나후직성은 제웅직성으로 불리기도 한다. 나후직성은 9년을 주기로 사람에게 닿는데 남자의 경우 10세부터, 여자는 11세부터 든다고 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소년을 둔 부모는 나후직성의 불운을 떨어내기 위해 제웅치기와 같은 액막이를 행하는 것이다.

### 3) 정월대보름

정월보름을 대보름이라고 부른다. 대보름은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개개인들은 각자 자신의 길운을 희망하는 의미 있는 날이다. 실제로 광주시 소재 다수의 마을에서 이날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의가 시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달맞이나 해동화 등을 통하여 마을 사람들이 각자 가정의 평안과 개개인의 건강·길운을 축원한다. 내용면에서 보름풍속의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내는 마을고사(초월읍 선동리, 2009)

상당수는 재액이나 질병퇴치, 건강과 장수기원, 가정의 평안과 재복 추구, 마을의 평안과 번창 등이다. 여기에서는 정월 열나흘과 보름 사이에 이루어지는 풍속 사례를 옮겨놓았다.

#### (1) 열나흘

##### ① 지신밟기

지신밟기는 정월보름 이전에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던 세시풍속의 하나이다. 광주시의 6개 조사지역 역시 예전에는 지신밟기를 했는데, ‘마당밟이, 보름풍장, 고사반’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지신밟기의 날짜는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광지원리 백남오 씨는 지신밟기를 주도하는 마을 사람들을 두레패라고 지칭한다. 과거 이 마을에 두레가 있었고 풍물패가 활동하였다. 두레패가 마을의 민가를 가가호호 방문하면 해



광주중앙고 풍물패가 재연하는 지신밧기(2009)

당 가정에서 쌀이나 돈을 놓았고, 역시 집 주인이 소박하나마 음식을 내어 대접하였다. 이러한 면모는 다른 마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장지동의 권용석(1934, 남) 씨는 풍물패의 선두에 농기를 든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그가 기를 들고 길 안내를 하면서 민가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가정에서 돈이나 쌀을 많이 내놓으면 집을 한 바퀴 돌면서 풍장을 쳐주고 가정의 평안과 농사의 풍작을 빌어주었다고 한다.

퇴촌면 우산리 정복동 씨는 지신밧기를 '고사반'이라 불렀다. 본래 고사반은 고사에 제물로 놓은 쌀이다. 이 쌀은 풍물패가 축원 풍장을 마친 후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런데 풍물패의 지신밧기를 고사반이라 부른 것이다. 요컨대 주부의 편에서 가정의 평안을 축원하는 관점과 연계된 명칭으로 보인다.

## ② 오곡밥

정월 열나흘 저녁에 오곡밥을 지어 먹는다. 쌀·보리쌀·참쌀·좁쌀·팥·수수·동부 등 다양한 잡곡을 재료로 하여 밥을 짓는다. 보통 이들 재료 다섯 가지 또는 그 이상을 가지고 밥을 짓기 때문에 이날의 밥을 오곡밥이라고 한다. 이날의 반찬은



대보름 행사에서 오곡밥과 나물을 나누는 시민들(2009)

묵은 나물이다. 취·고사리·다래순 등의 산나물을 말려두었다가 물에 불려 찬을 만든다. 그리고 밥을 얻으러 오는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흔쾌히 밥을 나누어준다.

서하리의 임중옥(1932, 여) 씨는 마당에서 빨래를 터는 사이에 마을의 젊은이들이 와서 밥을 훔쳐갔다고 한다. 하지만 밥을 훔쳐간 이들을 원망하거나 찾으려 하지 않았다. 열나흘에 밥을 훔쳐가는 것은 하나의 관습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분원리의 이옥희(1931, 여) 씨는 여러 집의 밥을 먹어야 좋다고 하였다.

### ③ 소밥주기

소에게 밥을 주어 풍흉을 점치는 주술적인 풍속이다. 소밥주기는 두 곳의 사례를 보았는데 양자가 매우 흡사하다.

밥과 나물을 소에게 주어서 밥을 먼저 먹으면 벼농사를 비롯한 곡식 농사가 풍년 들 것이라고 풀이한다. 반면 나물을 먼저 먹으면 그해에 흉년이 들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 소밥주기는 새해 풍흉과 관련된 농사점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④ 귀신당날

광주시 일원에 전승되고 있는 귀신당날 풍속의 귀신은 야광귀夜光鬼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야광귀는 설달그믐 밤중에 민가를 방문하여 신발을 신고 가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광주시에서의 귀신은 이와 다르다. 우선 정월 열나흘로부터 열엿세 사이의 한 날에 귀신이 내려온다. 그리고 나머지 행위는 야광귀와 유사하다. 사립 문이나 마당에 걸어둔 소쿠리 또는 체의 구멍을 세다가 날이 밝아 되돌아간다거나 마루 밑에 놓여있는 신발을 신고 가는 등의 행태를 보인다.

### ⑤ 일기 예측 점속

정월 열나흘에 수숫대의 속을 빼어낸 뒤 그 가운데에 12개의 콩을 넣는다. 이 콩은 각각의 월을 상징한다. 한 줄로 놓여있는 콩의 맨 위에 있는 것을 1월로 보며, 맨 아래쪽의 콩을 12월로 상징한다. 콩을 넣은 뒤 수숫대 주위를 실로 묶는다. 그러면 마치 대나무 통에 콩알을 넣은 것과 마찬가지로 수숫대 통에 콩알 열두 개가 들어있게 된다. 이 콩이 든 수숫대 통을 자신의 집 처마 밑 추녀 끝에 매달아 놓는다.

일기를 점치는 방법은 달을 단위로 한다. 곧, 수숫대 통의 콩이 붙은 정도를 통하여 그 달에 '비가 많을 것이다. 또는 가물 것이다' 라고 점친다.

### ⑥ 가수

가수嫁樹의 말뜻은 나무 시집보내기이다. 이는 생산과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나무를 시집 보내는 이면에는 보다 많은 열매의 생산을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주시의 제보자들은 나무 시집보내기를 정월 열나흘과 보름 사이에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보자에 따라 '과 일나무 시집보내기', '나무 장가들이기' 등으로 표현하였다.

시집보내는 나무는 과일나무이다. 시집을 보내거나 장가를 들여 주는 방법은 나무의 가지 사이에 남성 성기형태의 길쭉한 돌을 끼워주는 것이다. 곧 갈라진 나뭇가지를 여성의 성기로 보고 돌을 남성의 성기로 삼아 성적 결합을 유도하는 것이다. 농작물의 풍요를 바라는 풍속의 하나라 할 수 있다.

### ⑦ 잣불 점치기

잣에 불을 붙여 타는 정도를 가지고 그해의 운세를 점치는 풍속이다. 잣은 가족의 수만큼 준비한다. 그리고는 준비된 잣을 성냥개비나 꼬챙이에 꿰어 세우고 가족 구성원이 각각 자신의 잣을 정한다. 이어 잣에 불을 붙이고 그 타는 정도를 보는데 잣에 불이 붙어 잘 타야만 그 해의 운세가 좋다고 평한다.

### ⑧ 쥐불놀이

정월 열나흘 저녁에 청소년들은 쥐불놀이를 하였다. 논둑에 모여 줄을 맨 강통에 숯이나



쥐불놀이(중부면 광지원리, 2008)

나무를 넣은 뒤 불을 붙여 이것을 돌렸다. 이 깡통을 '개보름 깡통'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충청도지역에서는 쥐불놀이 깡통을 돌리면서 같은 마을 청소년들이 패를 이룬 뒤 이웃마을 청소년들과 깡통을 던지면서 싸우는 예가 많다. 그런데 광주시 일대에서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패싸움의 사례를 발견하기 어렵다.

요즘도 농촌지역에서는 깡통을 돌리는 사례가 있으나 극히 드물다. 또 열나흘 저녁에 논두렁을 태우는 예도 근래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 ⑨ 수세(守歲)

수세는 말 그대로 가는 해를 지킨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풍속은 선달그믐 저녁에 집안 곳곳에 불을 밝혀두는 것이다. 수세속의 내면에는 여러 뜻이 함의되어 있겠으나 그 가운데 하나가 가는 해와 오는 해를 밝게 이어주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광주시 일대에서는 이 수세속이 정월 열나흘 저녁에 시행된다.

수세를 위해 불을 밝히며 자녀들에게는 이날 잠을 자면 눈썹이 쉰다고 하여 자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이날 저녁에 윗놀이를 하거나 화투를 치며 밤늦도록 잠을 안 잤다.

## (2) 보름

### ① 부럼 · 귀밝이술 · 더위팔기

보름날 이른 아침의 세시풍속으로 부럼 · 귀밝이술 · 더위팔기 등이 있다. 이들 풍속은 이미 『동국세시기』 등의 각종 세시기에 기록되어 있어 전통이 오래인 것을 알 수 있다.

부럼은 보름날 이른 아침 해뜨기 전에 깬다. 부럼은 밤 · 호두 · 잣 · 무 · 땅콩과 같이 딱딱한 견과류이다. 이들 부럼을 깨면 이가 튼튼해질 뿐 아니라 그 해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광주에서는 맨 처음 깬 부럼을 대문 밖에다 버렸다고 한다. 맨 처음 깬 부럼은 버려야 한다는 관념이 부럼풍속에 깔려 있는 것이다.

부럼을 깨는 시점에 맞물려 귀밝이술을 마신다. 보통 귀밝이술로는 청주를 마시는데 집에서 술을 담글 경우에는 그 술을 사용한다. 술은 차게 하여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한다. 따라서 귀밝이술은 전날 마루와 같이 추운 곳에 놓았다가 가져다 마신다. 이 술은 청소년들도 마시게 한다. 술을 마시는 시간은 해뜨기 전이다. 이처럼 귀밝이술을 마시면 그 해에 귀가 밝아 소리를 잘 듣게 된다고 한다.

더위팔기 또한 보름날 이른 아침에 주로 한다. 제보자에 따라서는 해뜨기 전에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나 낮에 하였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보름날 이른 아침에 더위를 팔면 그 해에 더

위로 고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주위의 사람을 갑작스럽게 부르고, 그가 대답하면 “내 더위 사가라! 또는 내 더위 네 더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답한 이에게 더위를 판다고 한다.

### ② 보름 아침밥

보름날 아침에는 쌀밥을 해 먹는다. 가정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넉넉한 가정에서는 보름 아침에 소고기국에 김을 구워먹었다고 한다. 남중면 분원리와 퇴촌면 우산리의 제보자는 보름날 아침에 만두국을 먹는다고 하였다. 농사가 풍년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풍속이며, 이때의 만두는 벼섬을 상징한다고 한다.

### ③ 어부심

어부심은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풍속이다. 주로 경안천변이나 지천가에 위치한 마을 주민들이 보름날 이른 아침에 많이 하였다고 한다. 어부심은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풍속이라 할 수 있다. 제보를 토대로 어부심을 재구성 하면 다음과 같다.

보름날 이른 아침에 밥을 한다. 달걀꾸러미 같은 짚꾸러미를 만들고 그 속에 가랑이를 식구 수대로 놓는다. 그리고 그 앞사귀 위에 밥을 떠 놓는다. 그런 뒤 짚꾸러미 중간 중간을 역시 짚으로 묶어 고정한다. 주부는 이것을 가지고 시냇가로 간다. 시냇가에 밥이 든 짚꾸러미를 놓고 용왕님께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비손을 한다. 빌기를 마친 뒤 짚꾸러미를 시냇물에 띄운다.

### ④ 복조리

광주시 일대에서는 정월 열나흘 이전에 조리를 구한다. 마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마을의 청년회, 부녀회 또는 개인이 열나흘 저녁에 조리를 각 가정의 마당에 던져놓고 간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삼일 뒤에 각 가정을 돌며 조리 값을 받아간다. 이 조리는 복조리로 불렸는데 보름날 오전에 안방 천정, 부엌, 마루 등에 달았다.



복조리 만드는 모습(너른고을 대보름 놀이한마당, 2009)

## ⑤ 나무 아홉 짐

보름날에 성인 남성은 나무 아홉 짐을 해 나르고 밥을 아홉 번 먹어야 했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가정에 부를 이루기 위한 의도라고도 한다. 이러한 인식이 보편적으로 인정받던 시기는 농경 중심 사회에서다. 또 한 겨울의 연료를 전적으로 나무에 의지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때문에 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땀감이 요구되었고, 이런 바탕에서 나무를 해오는 일은 매우 중요한 남성의 일과였다. 곧, 부지런한 남성의 노동을 의도하고 격려하려는 데서 나온 풍속으로 볼 수 있다.

## ⑥ 소꼬뚜레 만들기

보름날 오전 소를 기르는 가정의 남성들은 소꼬뚜레를 만들었다. 인근의 야산에 올라가 노간주나무 줄기를 잘라다 불에 구우면서 나무를 휘어 꼬뚜레를 만든 것이다. 초월읍 서하리의 임중옥씨는 “보름날 꼬뚜레 많이 뚫지. 소꼬뚜레. 새끼도 꼬고, 가래 줄도 만들고 그랬어”라고 하여 이날 남성들이 새해 농경의 준비를 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가래는 도랑을 치거나 논둑을 보수하는 도구인데 이 삽줄을 보름날 낮에 꼬아 만들었다는 것이다.

## ⑦ 새 쫓기

보름날 아침에 새를 쫓는 풍속이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새는 농사에 해를 끼치는 동물이다. 파종한 씨앗을 파먹는다든가 새싹을 잘라먹어 농작물을 죽게 만든다. 따라서 보름날 새 쫓기 풍속은 농작물의 안전한 성장과 수확을 바라는 복합적 의도의 풍요기원 행위라 할 수 있다.

## ⑧ 액막이 비손

광지원리의 백남오 씨는 보름날 저녁에 시냇가에 나가 준비해 간 밥을 놓고 비손을 하면서 액막이를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비손은 본인뿐 아니라 이웃도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불운을 예방하기 위한 고사로 밥과 미역국을 놓고 용왕님께 치성을 올리는 행위이다. 보름달이 떠오르는 시간을 고사의 시점으로 보아 달맞이의 속성도 있다.

## ⑨ 가농작

가농작假農作은 풍년을 모의하는 일종의 풍요의식이다. 가상의 보리나 콩 등을 심은 뒤 이것을 수확하면서 풍요를 기원하는 기풍의식祈豐儀式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상의 농작물로 등장하는 보리나 콩을 만드는 주재료는 수수깥이다. 곧 수수깥의 속대를 가지고 보리나

콩 등의 형상을 만든다. 그리고는 이것을 싸리나무 대에 꽂아 눈에 세워놓는다. 보리나 콩밭을 조성해 놓는 것이다. 그런 뒤에 이 콩이나 보릿대를 뽑아서 탈곡을 흉내 내고 풍년이 이루어졌음을 시연하는 놀이인 것이다.

광지원리의 백남오 씨는 가농작이 해동화와 연계되어 이루어진 놀이라고 하였다. 달빛 아래에서 타작을 하며 “올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원을 하였다”고 한다. 요컨대 가농작은 풍년기원 모의행사이면서 놀이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풍속의 하나이다. 충만의 뜻이 담긴 대보름 만월 아래서 행해지는 행사로서 마을 공동체의 풍년에 대한 집단적 염원이 깃들어 있는 놀이라고 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⑩ 동화

광주시에선 다른 지역과 달리 동화洞火가 다수 마을에 분포하며 또한 오랜 내력을 지니고 있다. 이들 동화 가운데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면서 널리 알려진 것은 광지원리의 해동화이다. 광지원리의 해동화는 놀이적 성격뿐 아니라 제의적 성격까지 두루 갖춘 채로 전승되고 있다.



중부면 광지원리의 해동화놀이(2008)

광주시에 동화가 집중되어 있는 곳은 무갑산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지역이다. 무갑리를 비롯하여 신월리, 선동리 등 크고 작은 마을에서 보름날 동화를 밝힌다. 정지리의 경우에도 거대 규모의 나무탑을 쌓고 보름 동화를 피운다.

### ⑪ 달맞이

달맞이는 개인의 건강과 길운을 비는 정월보름의 대표적인 세시풍속이다. 광주시 일원에서는 달맞이 때에 화를 사용한다. 화를 만드는 재료는 마을이나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화는 들에 자라는 쑥대·참깨대·싸리나무 등을 이용하여 만든다. 곧게 자란 이들대를 바닥에 놓고 그 가운데에 가랑잎이나 마른 솔잎 등을 고르게 퍼 놓는다. 그리고는 바깥의 대를 오므려 묶으면 원통형의 화가 만들어진다. 이 화는 보통 지름이 10cm 남짓하고 길이가 1m 안팎이다. 화의 외형이 흐트러지지 않게 바깥 부분을 짚 등의 끈으로 묶는데, 이 끈의 수는 화를 사용할 당사자의 나이 수에 따른다. 곧 열 살 먹은 청소년이 사용할 화는 화의 둘레

를 열 번 묶는 것이다.

보름날 저녁 달맞이를 하기 위해 마을의 특정 장소에 모인 사람들은 먼저 모닥불을 피운다.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다 달이 떠오르면 각자 준비해 간 화에 불을 붙인다. 그리고는 화를 사용하여 소원을 빈다. 우산리의 정복동 씨는 보름날 달맞이를 하고 돌아온 자녀들에게 흰 가래떡을 찌서 조청과 함께 먹게 하였다고 한다.



초월읍 선동리의 달맞이 모습(2009)

## ⑫ 줄다리기

보름날 줄다리기를 하던 마을은 장지동을 비롯하여 남종면 분원리, 곤지암읍 수양3리 등 여러 마을이 있다. 오늘날에 이르러 이들 줄다리기는 대부분 단절되었지만 과거 농경의 풍물을 점치는 중요 놀이 가운데 하나였다.

광주시의 줄다리기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는 장지동의 풍요기원 줄다리기이다. 장지동의 줄은 어른 한 아름이 될 정도로 굵었으며, 규모 면에서도 단연 뛰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줄이 굵다보니 마을의 각 가정에서 짚을 거두어 줄을 만들었다. 또 원줄에 곁줄을 내서 이것을 잡고 줄을 당겼다.

줄다리기는 그 자체가 농사의 풍년과 관련되어 있었다. 여자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것이다.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남성들, 특히 청소년들이 여성의 편에 붙어서 줄을 당겼다. 이는



장지동 줄다리기(2008)

줄을 당기는 사람의 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풍년을 갈망하는 마을 사람들의 집단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여자 편이 이기면 보리풍년이 든다”고 하는데 당시 농사에 있어서 보리가 서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매우 중요한 작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 줄다리기에 사용한 줄이 자식을 두지 못한 이들의 무자갈등을 풀어주는 득자得子の 매개였음도 나타난다.

### ⑬ 보름놀이

광주시의 각 마을에서는 보름날에 다양한 놀이를 하였다. 윷놀이를 비롯하여 널뛰기·종기놀이·수건돌리기·강강술래·허수아비놀이 등 여러 놀이를 하였다. 퇴촌면 정지리의 한 연순(1937, 여) 씨는 보름날 널뛰기를 하면서 ‘귀신머리를 깨뜨린다’고 하였다. 곧 널을 차고 공중에 올라가 잡귀를 들이받아 내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강강술래 또한 보름놀이로 각광 받았다. 이 강강술래는 여성들의 놀이인데 초월읍 서하리로부터 퇴촌면 정지리·우산리, 남종면 분원리 등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다.

허수아비놀이도 주목된다. 이 놀이는 고전을 각색한 놀이의 하나이다. 곧 고전소설의 내용을 줄거리 중심으로 축약하거나 중요 대목을 대본으로 하여 소품을 동원해서 시연한 놀이로 판단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정월 보름에 윷놀이를 하고 있다.

## 4) 월중

### (1) 입춘

입춘이 다가오면 춘첩을 받아 대문이나 안방 출입문 상부의 벽면에 붙인다. 춘첩의 가장 일반적인 내용은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 ‘수여산壽如山 부여해富如海’, ‘국태민안國泰民安 가급인족家給人足’과 같은 것이다. 그 외에 부적을 받아서 집안에 붙이는 예도 있다. 제보자들은 이와 같은 춘첩이나 부적을 절 또는 만신의 집에서 구입해온다고 한다. 정지리 한연순 씨는 춘첩을 붙이는 데에도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말한다. 밤중이든 새벽이든 절에서 지정해 준 시간에 붙여야 한다고 한다.

또 이날 밭이나 논에 심어둔 가을보리의 싹을 확인한다. 이때 보리싹의 순이 세 개이면 그해 농사가 풍년 들것이라고 점친다. 두 개일 때에는 평년작이라 하고, 순이 하나뿐일 때는 흉년이 들것이라고 점친다.

## (2) 여성의 출입금지

정월 가운데 보름 이전에는 여성의 타인 집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른 아침에 방문하는 것을 금기시하였다. 이러한 관념은 이월 초하루도 마찬가지였다. 여성들의 타인 집 출입에 대해 금기시하였던 것은 유교관념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여성을 음의 속성을 가진 부정의 상징으로 보았기 때문인 듯하다. 때문에 여성의 출입을 부정감염과 연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3) 엄나무 예방

정월보름을 전후하여 엄나무 가지를 잘라다 부엌문이나 방문의 상부 천장에 걸어둔다. 엄나무 가지에는 많은 가시가 달려 있다. 민가에서 엄나무 가지를 출입문 입구 상부에 걸어두는 것은 바로 이 엄나무 가시가 벽사의 기능이 있다고 본 데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정지리 한연순 씨는 엄나무 가지를 다는 풍속에 대해 “그건 귀신이 붙지 말라고 하는 거야. 잡귀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엄나무의 벽사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 2. 이월

음력 이월 초하루는 정월보름과 함께 본격적인 농경의 시작 시점이다. 따라서 들이 너른 지역에서는 이날 고용한 머슴에게 옷을 해 입히고 돈을 주어 하루를 쉬게 하였다. 그런데 광주시 일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 이것은 광주시 일대가 크고 작은 산들이 밀집해 너른 들을 끼고 있지 않은데 연유한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이떡 먹기, 노래기 쫓기 등의 풍속이 전한다.

## 1) 나이떡

나이떡은 쌀을 재료로 하여 만든 송편이다. 나이떡을 빚기 위해서는 맨 먼저 쌀을 계량해야 한다. 이때 계량의 기준은 가족의 나이이다. 곧 가족 구성원의 전체 나이 수만큼 수저로 쌀을 떠서 그 쌀로 떡을 빚는다. 나이떡인 송편은 보통 송편보다 크기가 작다. 그래서 이 떡

을 쥐떡이라 부르기도 한다. 송편을 이처럼 작게 만드는 것은 나이 수대로 먹어야 한다는 관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노래기 쫓기

노래기는 길이 2cm 정도이며 지네와 같이 발이 많이 달린 벌레이다. 주로 습한 곳에 모여 있는데 옛 초가집의 지붕에 많이 서식하였다. 특히 지붕 개초를 안 하여 수년 씩 묵으면서 지붕이 썩게 되면 그곳에 노래기가 서식하였다. 이 노래기는 봄철에 주로 집 주변이나 마당에 나와 기어 다니는데 냄새가 매우 고약하였다. 이와 같이 냄새가 고약한 벌레인 까닭에 사람들은 노래기를 퇴치의 대상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월 초하루 날 집안에 있는 노래기를 쫓기 위해 주술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 퇴치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이 솔가지를 꺾어다가 지붕이나 그 주변에 던져놓는 것이다.

## 3) 콩볶기

이월 초하루 오전에 콩을 볶았다. 남종면 분원리의 이옥희 씨는 콩을 볶으면서 '노래기 볶는다' 는 말을 하였다. 그리고 이날 볶은 콩은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였다. 중부면 광지원리의 백남오 씨는 양력 1월 1일 검은 콩을 볶아서 길에 뿌리거나 먹었다. 1월 1일에 검은 콩을 볶는 것은 일제강점기 일인들에 대한 저항의 뜻이 담겨있다고 한다. 부연하면 양력은 일인들이 사용하던 역법이고, 검은 콩은 일제 순경의 제복과 같았다. 따라서 일제 역법을 상징하는 양력 첫째 날에 순경의 등가물인 검은 콩을 볶으면서 '일본 놈 볶는다' 고 하였다.

## 4) 장 담기

이월 말날이나 정월 말날에 장을 담갔다. 광지원리의 백남오 씨에 따르면 말날 가운데에도 6~10, 16~20, 26~30일 사이의 말날에 장을 담갔다고 한다. 곧 손가락으로 수를 셀 때에 손가락이 안으로 굽는 날에는 장을 담그지 않았다는 것이다.

### 5) 이월고사

초월읍 서하리에서는 매년 2월 초에 좋은 날을 받아 동제를 지낸다. 동제는 마을 뒷산에서 산신제를 올린 뒤 이어 마을의 네 곳 입구에서 장승제를 지내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그런데 이때 마을의 각 가정에서는 산신제와 맞물려 고사를 지내는 전통이 있다. 이러한 전통 관습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산신제는 제일祭日 밤 10시 경에 거행되는데 제의가 마무리 될 즈음 각 가정에서도 미리 준비한 시루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것이다.

### 6) 이월 보막이

들을 끼고 있는 마을에서는 해동할 즈음인 이월에 보막이를 하는 예가 있다. 농사를 생업으로 삼던 시절의 보막이는 보湫 아래 논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중요한 공동 작업이었다. 따라서 수리계 또는 붓계를 조직하여 보를 운용하였다.

정지리에서의 수리계는 마을 주민 대다수가 참여할 정도로 거대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보를 보수하는 날은 계원이 빠짐없이 참여하여 보를 정비하였다. 그리고 이날은 동네잔치를 열 정도로 음식도 넉넉하였다. 수리계를 할 때에는 돼지를 잡았다. 고기를 크게 토막 내어 꼬챙이에 꿰었는데 그 수를 계원 수와 같게 하여 계원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고기를 받은 계원들은 그 자리에서 꼬챙이의 고기를 구어 먹기도 하고 집으로 가져가기도 하였다. 머리고기는 삶아서 술안주를 하고 내장 역시 씻어서 국을 끓였다. 이날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보냈다.

## 3. 삼월

삼월에는 한식을 맞아 시제를 지내는 사례가 있다. 또 봄에 나온 나비를 보고 신수를 점치기도 한다. 곧 그 해 처음으로 본 나비가 흰 나비이면 상주가 되고 노랑나비를 보면 괜찮다고 한다. 우산리의 정복동 씨는 봄에 느티나무의 잎이 나오는 것을 보고 풍흉을 점쳤다고 한다.

그거는 느티나무가 한꺼번에 활짝 피면 풍년이 들고 그게 한꺼번에 안 피고 한 남구, 한 가지라도 먼저 피는 놈 있고 나중 피는 놈 있어요. 그럼 '올해는 흉년 들겠군?' 그러더라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 <정복동(1937, 퇴촌면 우산리,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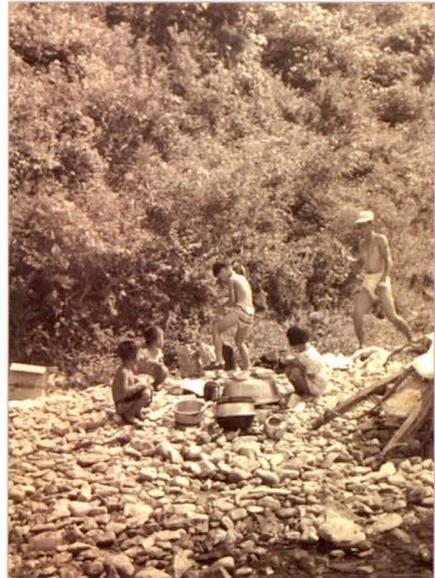
## 4. 사월

### 1) 사월 초파일

조사 대상 마을인 퇴촌면 정지리·우산리, 초월읍 서하리, 중부면 광지원리 등지에는 불교 신자가 다수 있었다. 이들은 한결 같이 사월 초파일에 절에 간다고 하였다. 절에 가서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절을 한 뒤에 돌아온다. 예전에는 공양을 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쌀을 가지고 갔다. 그리고는 그 쌀을 절에서 빵아 백설기를 지어 올렸다. 그런데 지금은 돈을 현금하고 참배한다.

### 2) 천렵

이 무렵 마을의 남성들은 못자리를 하고 난 뒤 가까운 강가로 천렵을 간다. 모래사장이나 나무 그늘에 터를 잡고 한 쪽에서는 밥을 짓고 다른 한 쪽에서는 물고기를 잡아 찌개를 끓인다. 그리고는 둘러 앉아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즐긴다.



열미리 냇가에서 천렵하는 모습(곤지암읍 열미리 구균모 제공, 1970년대 초)

## 5. 오월

### 1) 단오장

5월 5일 단오端午의 대표적인 풍속 가운데 하나가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는 것이다. 또 창포 뿌리를 깎아서 비녀로 삼는 것도 오랜 전통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상추 앞에 고인 이슬을 모아서 분을 개어 화장을 하기도 하였다.

## 2) 그네뛰기

단오놀이로 대표적인 것이 그네뛰기이다. 장지동, 퇴촌면 정지리, 남종면 분원리 등 여러 마을에서 행해졌다. 마을의 정자나무에 동아줄을 꼬아 매달고 그네를 뛰었다. 단오에 그네를 뛰면 1년 동안 몸이 건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시부모들은 시집온 며느리들에게 이날만은 그네를 뛸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 3) 단오 콩설기

단오에 콩설기를 해 먹기도 하였다. 초월읍 서하리의 임중옥 씨는 단오에 쌀을 빵아 가루를 낸 뒤 콩을 넣고 버무려서 솥에 찌 콩설기를 해먹었다고 한다. 퇴촌면 우산리의 정복동 씨는 단오에 시루떡을 해 먹었다고 한다.

## 4) 단오 약쑥

우산리 정복동 씨는 단오에 약쑥을 베어 그늘에 말렸다. 이렇게 말린 약쑥은 나중에 여러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전통사회에서 약쑥은 상처를 소독하고 아물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이 약쑥을 삶아 요강에 담은 뒤 그 위에 올라가 김을 쪄도록 하였다. 그러면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상처가 소독되고 또한 쉬 낫는다고 보았다.

# 6. 유월

## 1) 유두 부침개

음력 6월 15일 유두일에 밀가루를 물에 반죽하여 부침개를 부쳐 먹었다. 보통 유두 부침개는 가족끼리 부쳐서 먹었다.

## 2) 삼복

복날에 보양식의 풍속이 있었다. 닭을 잡아 삼을 넣고 끓인 삼계탕이나 개장국을 주로 먹었다. 그런데 이렇게 삼계탕이나 개장국을 먹는 사례는 1960년대 이전에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다. 1970~1980년대 이후 사람들의 살림 형편이 나아지면서 급격하게 보편화되었다. 제보자들은 살림 형편이 나아진 시기를 대부분 통일벼 보급 이후로 보았다.

## 7. 칠월

### 1) 칠석고사

칠석고사는 칠성신을 대상으로 한 제의이다. 칠성신은 자식의 수명을 관장하는 신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칠석고사는 자녀의 건강과 성장을 기원하는 제의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광주시 일대에서 시행되고 있는 칠석고사는 안택고사와 마찬가지로 가신(家神)을 대상으로 한 제의로서의 성격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중부면 광지원리의 백남오, 퇴촌면 정지리의 한연순, 초월읍 서하리의 이명자 씨의 구술에서 확인되었다.

### 2) 칠석 부침개

서하리의 이명자 씨는 “칠석날 고사 떡 해먹죠. 밀가루로 부침개 해먹고”라고 하였다. 이처럼 칠석에 부침개를 부쳐 먹는다고 하는 답변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부침개를 부치는 것은 단순히 먹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칠석 부침개는 가신을 위한 제물인 것이다. 칠석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을 맞이하여 부침개를 부치고 이것을 집안의 여러 가신들이 머무는 공간에 올리는데, 개인에 따라서 막걸리를 함께 놓아두는 예도 있다.

### 3) 호미씻이

퇴촌면 정지리에서는 칠석날 남성들이 풍장을 치고 놀았다. 그러면 마을의 부녀들이 음식

을 준비하여 마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놀이는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는데 이것을 이 마을에서는 호미씨세(호미씻이)라 하였다. 호미씻이는 본래 밭농사의 풀 잡기를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시기는 전국적으로 칠석이나 백중이다. 정지리에서는 칠석에 호미씻이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 4) 백중장

음력 칠월 보름은 백중이다. 이날은 경안동에 장이 섰다. 경안동의 백중장은 여러 구경거리가 많았다. 우시장 인근에서 송아지를 걸고 씨름을 하고, 장마당에는 각설이패들의 무동놀이가 펼쳐졌다. 남중면 분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백중장이 크게 섰다. 그리고 경안장과 같이 남중면 우천리 우시장 근처에서 송아지를 건 씨름판이 열렸다. 백중장은 농사꾼이나 머슴들이 일손을 놓고 쉬는 날로 통했다. 따라서 이날은 인근의 장에 나가 술을 먹으며 즐겼다. 머슴을 둔 집의 주인은 머슴에게 넉넉한 노자를 주어 장에 다녀오도록 배려하였다.

## 8. 팔월

칠월 말이나 팔월 초순에 조상의 묘에 올라가 벌초를 한다. 벌초는 후손들이 함께 날을 잡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지에 나가 사는 사람의 경우 산소가 있는 마을 사람에게 벌초를 의탁하기도 한다. 이 경우 묘 한 기에 10만 원을 지불한다.

팔월 보름 아침에는 차례를 지낸다. 추석차례는 햇곡식을 가지고 음식을 조리한다. 밥 대신 송편을 차려놓는다. 직계 자손들이 모여 차례를 지낸 뒤에는 다 함께 조상의 산소에 성묘를 간다.

## 9. 구월

사례가 드문 경우지만 9월 9일 중앙에 구일차례를 지낸다. 구일차례를 지내는 것은 추석날 차례를 지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추석에 차례를 올리지 못한 것은 아직 곡식이 여물지 않은 데에 연유한다. 곧, 자신이 경작한 햅쌀로 송편을 빚거나 그 외 햇과일을 올리기 어려울

때에 차례를 9월 9일로 늦추어 중앙차례를 지내는 것이다.

우산리의 정복동 씨는 구월에 구절초를 뜯어다 말린다. 구절초를 뜯어다가 말리는 것은 민간요법의 약재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지리의 한연순 씨도 구절초를 뜯어서 말려 보관한다. 그는 구절초의 효용에 대해 “속 아픈 사람이 먹으면 좋고, 애기 못 낳는 사람들이 다려 먹으면 좋다”고 한다.

## 10. 시월

### 1) 가을고사

가을고사는 주로 음력 시월 초사흘에 지낸다. 이 무렵은 벼를 비롯하여 잡곡의 가을걷이가 갈무리되어 가는 시기이다. 따라서 한 해의 곡물을 수확한 뒤 집안의 가신을 대상으로 천신薦新을 하는 고사를 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시월고사에서는 여느 고사 때보다 떡을 많이 한다. 서 말 이상의 쌀로 떡을 찌고, 이 떡을 가지고 고사를 지낸 뒤에 마을의 이웃집에 돌린다. 고사의 전개 과정은 정초의 안택고사나 칠석고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2) 삼신주머니

시월 중에 좋은 날을 택하여 삼신주머니에 햅쌀을 갈아 넣는다. 대개 삼신주머니의 쌀을 교체하는 시기는 가을고사를 지낼 무렵이다. 가을고사에 임박하여 삼신주머니의 쌀을 갈아 담고, 삼신주머니에서 나온 쌀로는 밥이나 떡을 한다. 그리고 이 쌀로 지은 밥이나 떡은 별도로 삼신주머니 아래에 놓고 비손을 한 뒤에 먹는다.

### 3) 터주단지

터주단지의 벼 역시 가을고사 즈음에 갈아 넣는다. 전 해에 담아놓았던 벼를 꺼내고 햇벼를 단지에 채워 넣는다. 단지의 크기는 각 가정마다 차이가 있다. 벼를 담고 난 뒤에는 정선한 짚으로 고깔처럼 단지를 덮는다. 이곳에서는 이 짚을 주저리라고 하였다. 또 지난 해에 담

아둔 벼는 밥이나 떡을 찌기도 한다. 그리고 이 밥이나 떡을 터주에 놓고 비손을 한 뒤에 가족이 나누어 먹는다.

#### 4) 업양까리

업양까리는 업신業神을 위한 것으로 단지에 벼를 담아둔다. 터주단지와 동일한 형태를 이루는데 대개 터주단지보다 작은 단지를 사용한다. 그리고 업양까리의 업은 집안을 지켜주거나 재복을 가져다준다고 인식되는 두꺼비·구렁이·족제비와 같은 업신을 위한 것이다.

## 11. 동짓달

동지冬至는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다. 동지를 지나고나서부터 조금씩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 그리고 이날에는 팔죽을 쑤어 먹는다. 쌀가루로 새알심을 만들고 팔을 찌른 간 팔가루를 재료로 팔죽을 쑤는 것이다. 가정에서 동지 팔죽을 쑤면 먼저 가신家神에게 한 그릇씩 가져다 놓는 관습이 있다. 이를테면 성주·조상·터주·조왕·곡간신·우물신 등 집안의 여러 가신에게 팔죽을 올리는 것이다.

팔죽은 잡귀를 쫓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팔죽이 벽사의 재료가 되는 것은 그 자체가 양의 속성을 지닌 붉은 빛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팔죽이 잡귀를 쫓는 도구가 된 것이다. 한편 팔죽을 쑤지 않는 예도 있다. 동지가 동짓달 초순에 들면 애동지, 중순에 들면 중동지, 하순에 들면 노동지라 하는데, 이중 애동지일 경우 팔죽을 쑤어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가정의 청소년 자녀들에게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 12. 선달

광주시에는 특별한 선달 풍속이 전하지 않는다. 수세守歲와 같은 그믐 풍속 또한 정월 보름 날에 행한다. 제보자 백순애(1935, 초월읍 서하리, 여) 씨는 선달을 '씩은 달'이라 하였다고 한다. 썩은 달이기 때문에 한 달 내내 해로움이 많다고 보았다. 따라서 집안의 가구 등도 옮기지 않

는다고 하였다. 성인 남성이나 청소년들이 참새를 잡는 예가 있었다. 1970년대에는 참새잡이에 그물이 동원되었다. 논 가운데에 참나무가지를 한 줄로 꽂아 마치 숲처럼 조성해 놓고 나뭇가지를 꽂아놓은 전후에 새그물을 길게 늘어놓았다. 또 참새를 유혹하기 위해 나뭇가지 주변에 벌씨를 뿌려두거나 참새를 넣은 새장을 나뭇가지 주변에 놓아둔다.

### 13. 윤달

태음력의 1년 길이는 태양력의 그것보다 10.875일이 짧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달이 윤달이다. 곧, 태음력과 태양력의 날 수 차이를 8년 동안 더하게 되면 87일이 되게 되며, 달수로는 석 달이 된다. 곧, 8년에 석 달의 윤달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8년을 주기로 3회에 걸쳐 음력 한 달인 29의 날 수가 쌓이는 시점에 윤달이 들게 된다. 이처럼 윤달은 태양력과 조화의 일환으로 배치된 것이다.

그리고 일 년 열두 달 외의 달인 까닭에 윤달을 텅달이라고도 부른다. 이에 연유하여 윤달에는 귀신들이 쉬는 달이라고도 한다. 같은 맥락에서 사람들은 윤달에 이사나 이장, 결혼, 수익제작 등의 일을 한다고 한다. 귀신들이 쉬는 달이기 때문에 굿은일이나 중요한 일을 해도 탈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광주시 일원에 보편화 되어 있다.

## 제3절 민속놀이

### 1. 민속놀이 개관

경기동부의 산간지대에 위치한 광주시는 농촌공동체의 특징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으로 손꼽힌다. 그에 걸맞게 공동체의 유제(遺制)를 간직한 여러 마을에서는 다양한 민속놀이의 전통을 이어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전래놀이는 소멸되거나 그 자취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물론 지금도 정월 보름이면 마을 단위의 동제(洞祭)와

척사대회·지신밟기를 비롯한 세시놀이가 명맥을 잇고 있지만, 지난날 농경사회에 뿌리를 둔 놀이문화의 전통은 단지 일부 노인들의 기억 속에서만 희미하게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조사는 매년 일정한 주기로 되풀이되는 세시놀이와 예부터 전승되는 전래놀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기존에 간행된 민속지와 문헌자료를 일정하게 참고하는 한편, 광주지역에서 민속문화의 전통이 비교적 완고하게 간직되어 있는 산간마을 토박이 주민들의 제보를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만 현지조사의 범위는 모든 지역과 계층의 놀이를 아우르지 못하고 몇몇 주제가 핵심이 된 까닭에 다음의 세 가지로 국한하였다.

첫째, 광주지역에서 민속놀이의 상징성을 띠고 있는 해동화놀이의 유래와 전승 양상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제5절에서 별도로 다루었다.

둘째, 광주지역의 줄다리기이다. 해동화놀이와 더불어 줄다리기는 지난날 대보름 민속의 또 다른 상징으로, 경안동·송정동·광남동·동부읍(현 하남시)·오포읍·초월읍 등에서 주로 전승되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관할구역이 서울·성남·하남 등으로 분할되면서 현재 유일하게 장지동 줄다리지만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셋째, 광주지역의 전래놀이이다. 이는 광복 이전의 놀이와 현지조사에서 수집된 전래놀이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광복 이전의 놀이는 1936년에 간행된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조선의 향토오락』 광주군편에 실린 46종의 놀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그 이후의 놀이는 현지조사에서 파악된 전래놀이를 일반놀이와 세시놀이로 분류하여 그 특징적인 모습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 2. 풍농을 예측하는 동제와 줄다리기

### 1) 광주의 줄다리기

줄다리기는 해동화놀이와 더불어 광주지역 대보름 민속의 또 다른 상징이었다. 줄다리가 전승되었던 지역은 장지동(광남동)·오포읍·초월읍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는 장지동에서만 유일하게 옛 전통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비록 퇴촌면 정지리 등에서도 줄다리를 행하고 있지만, 이는 10여 년 전에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마을 차원에서 새롭게 개최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광주의 줄다리기는 장지동을 제외하고 사실상 소멸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2) 장지동 줄다리기

정월 대보름 저녁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 달맞이를 한 다음 줄다리기를 했다. 비록 산제는 중단되었지만 줄다리기는 지금도 옛 전통을 잇는 대동놀이로 지속되고 있다. 장지동 줄다리기의 역사는 그 연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유구한 전통을 지녔으며, 6·25전쟁 중에도 거른 적이 없다고 한다.

줄다리기는 대보름 2~3일 전에 걸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전에는 행사를 치르기 위해 적잖은 비용이 소요되었을 뿐 아니라, 많은 양의 짚이 필요했는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지신 밭기를 겸한 걸립을 돌았다. 이는 또한 마을 주민들의 단합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동아줄을 틀어서 줄을 제작하는 데는 보통 2~3일이 걸린다. 장지동에서는 암줄과 숫줄을 구분하지 않고 외줄을 꼬아 줄의 한복판에 천을 묶거나 비녀목을 끼워두었다. 줄은 직경 15cm 쯤 되는 동아줄 예닐곱 가닥을 하나로 엮은 한 아름 굵기로 길이는 70~80m가량 되었다. 여기에 1m 간격으로 줄을 잡아당길 수 있는 곁줄을 별도로 부착한다.

현재 줄다리기는 장지1통 앞가지마을의 청년회가 주축이 되어 준비를 한다. 이를 위해 대보름을 앞둔 일요일에 30여 명의 회원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줄을 끈다. 최근에는 매년 새로 제작하지는 않고 몇 년에 한 번씩 썩었거나 헤진 부분의 개보수를 하는 정도이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아침부터 마을회관에 동민들이 모여서 옷놀이 등의 척사대회를 개최하며, 오후 3시 쯤 풍물패의 지신밧기가 이어진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면 앞동산으로 올라가서 달맞이(망월)를 한다. 떠오르는 달을 보고 새해의 소원을 비는데, 예전에는 달이 뜨는 것



암수 구분 없이 외줄로 끈 장지동의 줄(2008)



장지동 줄다리기 여자 편(2008)

을 보고 풍흉을 점친 다음 한바탕 풍물놀이를 하고 내려왔다.

달맞이를 마치고 내려오면 보름달이 중천에 떠오르는데 이를 기화로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장지동에서는 남녀로 편을 가르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들과 어린이는 여자 편에 합세한다. 줄다리기는 모두 세 번을 겨루어서 두 번을 이긴 편이 그 해의 승자가 된다.

장지동에서는 예부터 “여자가 이기면 보리 풍년이 들고, 남자가 이기면 벼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전한다. 이는 보릿고개를 넘기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쌀이 매우 귀했기 때문에 보리라도 풍년이 들어야 마을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산다는 뜻이다. 때문에 막상 줄다리가 시작되면 여성들에게 일부러 져주는 게 관례이다.

### 3. 일제강점기 문헌으로 살펴 본 광주의 전래놀이

광주지역에서 전승되었던 광복 이전의 전래놀이는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의 향토오락』에 의하면 모두 46종이다. 그중 달맞이·쥐불놀이·줄다리기·연날리기·동제·썰매타기 등은 지금도 널리 전승되는 대표적인 세시놀이이고, 거북놀이·종경도·다리밟기·고누·낫치기·갈퀴던지기·두레·호미씻이·자치기 등은 사실상 1980년대 이전에 중단된 놀이로 파악된다. 그러가 하면 풍계문이는 보물찾기의 일종인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밖에 기와밟기·접시찾기·호랑이놀이·고사리따기 등은 유사한 방식의 놀이가 전승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동일한 명칭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조선의 향토오락』에 수록된 광주지역의 전래놀이

시기	전래놀이
정월	웃놀이, 종경도놀이, 풍계문이, 접시찾기, 거북놀이, 기와밟기, 쥐놀이, 쥐불놀이, 사자놀이, 연날리기
정월 대보름	달맞이, 다리밟기
정월·7월	줄다리기
정월·추석	널뛰기
봄	버들피리, 화전놀이, 동제(4월), 그네(단오 전후)
봄·가을	천렵, 활쏘기, 비석치기
여름	두레(농악), 호랑이놀이, 낫치기, 닭잡기, 호미씻이, 씨름(백중)
가을	말타기, 고사리따기, 썰매타기, 팽이치기, 돈치기
가을·겨울	갈퀴던지기
수시	시회, 자치기, 장기, 숨바꼭질, 제기차기, 투계, 찜뽕, 고누, 진치기, 벌장수, 풀겨루기, 돌차기, 공기

## 1) 세시놀이

### 달맞이

정월 대보름달이 뜰 무렵 언덕이나 산정에 올라가서 미리 만들어온 싸리나무화에 불을 붙여 들고, 떠오르는 달을 향해 절을 하며 한 해의 소망과 무병제액을 기원한다. 이때 달이 뜨는 속도, 밝기, 위치 등을 보아서 그 해의 풍흉을 점친다. 또한 달을 맞이하면서 '신수안과태 평身數安過太平'이라고 외치는 곳도 있다.

월출을 먼저 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여 널리 행해졌다. 마을에 따라서는 동네 근처의 달이 잘 보이는 곳에 싸리로 크게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축원문을 쓴 종이깃발을 세운다. 어린이들은 따로 작은 햇불을 만들어 나이수대로 끈을 묶어 달이 뜰 때에 그 햇불을 들고 달에 절을 한다.

### 다리밟기

정월 대보름에 행해졌던 놀이이다. 각자 옷을 차려입고 마을 근처에 있는 다리를 건너다닌다. 여성들은 음식을 물에 던지며 복을 빌기도 한다. 남성들은 어린이를 어깨에 태우고 무동춤을 추면서 농악대를 선두로 행진을 한 다음, 다리 위나 부근에서 주연을 베풀었다. 그러면 다리밟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농악에 맞추어서 춤을 추며 밤을 지새웠다.

### 풍계문이

부녀자들이 두세 편으로 갈라 앉아서 하는 보물찾기놀이의 일종이다. 가위바위보로 선후를 정하고 이긴 편부터 시작한다. 콩 같은 것을 '풍계문기(보물감추기)'라고 하면서 자기편의 어디엔가 숨긴다. 상대편은 숨긴 물건을 찾아내야 하는데 못 찾으려면 진다. 보통은 정월에 하며 여자아이들은 수시로 하고 논다.

### 접시찾기

여러 명이 둘러앉아서 작은 접시를 차례로 돌리다가 누군가가 접시를 감추고는 가운데 앉은 술래에게 찾도록 한다. 접시를 찾으려면 감춘 사람이 술래가 된다.

### 거북놀이

짚으로 만든 거북이를 뒤집어쓴 사람과 그 거북이를 끄는 사람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노는 놀이이다. 방문한 집에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를 한다. 그러다가 거북이를 뒤

집어쓴 사람이 주저앉아 움직이지 않으면 집주인이 그 까닭을 묻는다. 배가 고프는데 떡을 먹고 싶다고 하면 주인은 떡과 음식을 내어 대접한다.

### 기외밧기

여러 사람이 한 줄로 늘어서서 허리를 구부린 채 앞사람의 허리춤을 뒤에서 잡아 긴 행렬이 되도록 이어나간다. 행렬의 맨 뒷사람부터 한 사람씩 노래를 부르면서 순서대로 늘어선 사람들의 등 위를 걸어 앞으로 나아가면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사람도 화답하는 노래를 부른다.

### 쥐놀이

어미 쥐가 새끼 쥐를 데리고 가는 모양을 흉내 내는 놀이이다. 어린이들이 일렬종대로 앉으면, 앞사람이 뒷사람의 허리춤을 꼭 붙잡는다. 이렇게 해서 맨 앞사람이 황새걸음으로 걷기 시작하면 다음 사람은 모두 몸을 앞으로 구부린 모양이 되어 발끝으로 걸으며 앞으로 나아간다.

### 사자놀이

한 사람은 짚 따위로 사자처럼 꾸미고, 여러 사람들은 농악을 울리면서 그 사자를 춤추게 하며 논다.

### 연날리기

고려 때 제주도를 정벌했던 최영 장군이 섬에 가시덤불이 많아서 상륙할 수가 없자, 큰 종이 연을 만들어 거기에 억새풀 씨를 실어서 날려 올렸다. 그해 가을에 억새풀이 우거지자 가시덤불과 함께 불을 질러 태워 없애버리고 진격했다는 데서 유래한다.

### 호랑이놀이

호랑이와 나무꾼으로 편을 나누어 다소 멀리 떨어져서 마주선다. 나무꾼편이 '나무를 할까' 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호랑이편 쪽으로 가서 나무를 하는 흉내를 내면 호랑이는 재빨리 나무꾼을 잡아서 호랑이집으로 데리고 가서 가둔다. 갇힌 나무꾼은 몇몇 호랑이가 감시한다. 그러나 잡히지 않은 나무꾼이 갇혀 있는 나무꾼을 손으로 쳐주면 갇혀있던 나무꾼은 다시 살아서 그 집에서 나올 수가 있다. 반대로 이런 식으로 나무꾼을 모두 다 붙잡아 가두면 호랑이편이 이긴다.

### 닭잡기

모인 사람을 닭 한 사람, 너구리 한 사람, 집안 식구 여러 사람 등으로 나눈다. 먼저 집안 식구 여러 사람이 동그랗게 둘러앉는다. 그 가운데에 닭이, 원 바깥에 너구리가 서서 문답을 하다가, 문답이 끝나면 닭을 잡으려고 한다. 이때 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서서 손을 잡고 닭장을 만들어 너구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너구리가 이 원을 빙빙 돌다가 빈틈을 찾아 들어가서 닭을 잡으면 이긴다.

### 두레(농악)

마을 사람들이 모내기나 김매기 등의 공동작업을 할 때 아침 일찍 모여 악기를 울리며 한 데 어울려서 일터로 향한다.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점심식사 후에 농악을 울린다. 그리고 저녁에 일이 끝나면 농기를 앞세우고 악기를 울리면서 돌아간다. 사용하는 악기는 징·큰북·작은북·장고·피리 등이며, 곡은 행진곡·무도곡舞跳曲 등 5~6종이 있다.

### 호미씻이

농꾼들이 논매기를 끝낸 후 7월 칠석이나 백중날에 농악을 울리면서 하루 동안 술잔치를 벌여 서로 위로하며 논다. 이때 음식은 부잣집에서 기부하기도 하지만, 서로가 추렴하여 마련하기도 한다. 다른 마을과 함께 호미씻이를 할 때에는 형제관계를 정해서 동생 마을의 농기는 형 마을의 농기에 절을 하게 한다.

### 말타기

가을밤에 어린이들이 했던 놀이이다. 말 28명은 앞사람의 허리춤을 쥐고 한 줄로 선다. 줄의 양쪽 끝에 말장수와 말 찾는 사람이 선다. 말 찾는 사람이 '여보시오, 여기 말을 매어 놓고 주막에 들러 한잔하고 왔더니 없어졌구려. 어디 갔을까요?' 라고 하며 찾아다닌다. 그러다가 늘어서 있는 말을 보고 '아, 내 말이 저기 있구나' 라고 하면, 말장수가 '있으면 데리고 가시오' 라고 한다. 말 찾는 사람은 어리둥절해서 '시골로 갈까, 서울로 갈까' 라고 한다. 이때 늘어진 말 모두가 그대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다. 말 찾는 사람은 '시골로 갈까, 서울로 갈까' 를 반복하며 줄선 말들을 하나씩 잡아 끌어낸다. 전부 다 끌어낼 때까지 말과 함께 돌며 달린다.

### 고사리따기

가을밤에 여자아이들이 했던 놀이이다. 여러 사람이 동그랗게 둘러앉는다. 맨 마지막 사람

부터 고사리따기 문답을 한 뒤, 잡았던 손 사이로 빠져나와 왼 바깥을 돈다. 전체를 다 돌고 나면 모두가 '영차, 영차' 라고 외치면서 춤을 춘다.

### 갈퀴던지기

가을이나 초겨울에 농촌 어린이들 사이에서 성행했던 놀이이다. 산으로 낙엽을 긁으러 갔을 때 땅바닥에 던져서 갈퀴가 젖혀진 횃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승패를 가린다.

## 2) 일반놀이

### 자치기

60cm 정도 되는 막대기를 쳐올려 그것을 떨어뜨리지 않고 손으로 붙잡으면 비로소 상대를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얼른 상대를 쫓아가서 붙잡는데, 이때 정해놓았던 구멍과 막대기를 붙잡은 곳 사이의 거리를 재서 거리가 짧은 편이 이기게 된다. 그러나 쳐올렸을 때 잘못해서 떨어뜨리면 곧 역할을 교대한다.

### 숨바꼭질

가바위바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숨고, 진 사람은 술래가 되어 숨은 사람을 찾는 놀이다. 들킨 사람은 다시 술래가 되어 숨은 사람을 찾는다.

### 진치기

두 조가 서로 대진하여 가위바위보로 선후를 정하고 진 편부터 전진한다. 이때 이긴 편은 뒤로 물러났다가 나오면서 서로 뒤엎혀 싸운다. 진 편이 상대 편을 손으로 치는데, 손에 맞은 사람은 싸울 자격을 잃고 자기의 진지로 돌아간다. 먼저 적의 진지를 차지하는 편이 이긴다.

### 별장수

두 편으로 갈라서 한 편은 별을 사는 사람들이 되고, 다른 편은 별장수가 된다. 별을 사는 사람들은 손을 잡아 원을 만들고, 별장수들은 앞사람의 허리춤을 잡고 일렬로 늘어선다. 별장수가 '별을 사시오' 하면, 살 사람들이 '무슨 별이냐?' 고 묻는다. '꿀벌이다' 라고 대답하면 줄 끝의 별장수 한 사람을 원 안으로 들여보내준다. 문답을 계속하면서 한 사람씩 원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 풀겨루기

겨울철을 제외하고 어린이들 사이에 수시로 행해졌던 놀이이다. 두 편으로 나누어 모아온 풀의 가짓수가 많음을 겨룬다. 가능한 한 여러 종류의 풀꽃을 모아서 풀꽃 하나씩을 비교하여 양쪽이 같은 것은 버리고 상대 쪽에 없는 풀꽃만을 세어 그 수가 많은 쪽이 이긴다.

### 돌차기

여자어린이들이 수시로 했던 놀이이다. 땅 위에 여러 가지 모양을 그려 놀이판을 만들고 작은 돌맹이를 발로 차서 놀이판의 칸을 순차적으로 돌아, 실수 없이 빨리 돌아오는 쪽이 이긴다. 돌아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 4. 현지조사 전래놀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현재 유행하는 놀이를 배제하고도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광주지역의 전래놀이는 약 70여 종에 이른다. 그런데 이 조사가 시 전체를 아우르지 못한 한계를 감안하면 과거에 전승되었던 놀이의 종류는 훨씬 다양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광주시에서 행해졌거나 지금도 전승되는 전래놀이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다만 같은 놀이일지라도 그 명칭과 방법에 있어서 다소 다를 뿐이다. 광주지역에서 조사된 전래놀이를 세시놀이와 일반놀이로 분류하면 표와 같다.

### 광주지역 전래놀이

구분	전래놀이명
세시놀이	연날리기, 씨름, 달맞이, 널뛰기, 보리타작, 마당밧기(지신밧기), 다리밧기(답교놀이), 거북놀이, 농기싸움(두레싸움), 호미치기, 화전, 장치기, 줄다리기, 해동화놀이(동화놀이), 옷놀이, 척사대회, 천렵, 씨름, 그네뛰기, 쥐불놀이, 횃불싸움(쥐불싸움), 쥐불놀이, 호미씻이, 풍물놀이, 풀겨루기, 피리불기, 풀각시놀이, 썰매타기, 명실태우기
일반놀이	골패, 종경도, 사방치기, 싸싸싸, 못찍기, 땅따먹기, 슝빠이, 꼬니(고누), 우물밥, 다리세기, 짚공차기, 구슬치기(다마치기), 딱지치기, 고무줄, 줄넘기, 공기, 뚜꺼비집, 술래잡기, 숨을래기(숨기장난, 숨바꼭질), 가이생, 자치기, 남원골 춘향아씨, 대전집기, 기마전, 곤동(낫치기), 지경다지기, 돈치기, 띠치기, 엿치기, 갈퀴던지기, 진치기, 비석치기(비사치기), 반지돌리기, 종지놀이, 상여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돌차기, 장기, 화투, 찰뽕, 조조잡기, 자기소개하기

## 1) 세시놀이

### 백중 씨름대회

광주지역에서 씨름은 백중 무렵에 열리는 오일장을 매개로 하여 보편적으로 전승되었던 민속놀이이다. 현지조사에 의하면 경안장과 분원장 등 예전에는 거의 모든 장사에서 씨름대회를 개최했던 것으로 드러난다. 이는 시장의 번영을 목적으로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기금을 마련하고 백중을 전후하여 씨름대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경안장(3·8장)의 경우 백중날 우시장이 있는 공터에서 송아지를 걸고 씨름대회를 개최했는데, 대개 아이씨름·청소년씨름·어른씨름으로 구분하여 자웅을 겨루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씨름대회는 분원장(4·9장) 장사씨름이었다. 대회는 늦더위가 한풀 꺾인 한가위 무렵에 4~5일간 열렸다. 서울·부산·호남 등 전국에서 수십 명의 장사들이 출전하여 기량을 겨루었으며, 마을에서 주관을 했다. 이를 위해 부농과 유관기관으로부터 회사금을 받는 한편, 시장상인들에게는 자릿세 명목으로 세금을 받아 비용을 충당했다. 분원장 씨름대회는 팔당담 조성과 더불어 중단되었다.

### 화직상놀이

정월대보름에 전승되었던 세시놀이로서 앞에서 살펴본 '달맞이'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초월을 서하리에서는 달맞이를 하고 나면 '화직상'이라 하여 특정 연령에 도달한 아이를 해로 때리는 놀이가 전승되었다. 남자는 15세, 여자는 16세가 되면 화직상이 든다고 하는데, 화직상은 '화직성火直星'의 와음으로 보인다. 직성이란 '액년厄年'이 든 것을 말한다. 따라서 화직상은 불과 관련된 좋지 않은 액운이 낀 것으로 이해된다.

## 2) 일반놀이

### 자치기

광주에서 가장 널리 행해졌던 전래놀이의 하나였다.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치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쪽 끝을 뽀족하게 깎은 길이 50~60cm쯤 되는 막대기와 양쪽을 대각선 방향으로 깎은 10~15cm 남짓 되는 작은 막대기가 필요하다. 큰 막대와 작은 막대를 부르는 용어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광주에서는 전자를 '자치기' 또는 '어미자'라 하고, 후자를 '새끼자치기' 또는 '새끼자'라고 부른다.

자치기는 어미자로 새끼자를 쳐서 그 거리를 어미자로 측정하는 놀이이다. 보통 4~5명이 한 편으로 두 편이 공수를 갈라서 한다. 놀이의 방법은 땅바닥에 길쭉하게 흙을 판 후 그 위에 새끼자를 올려놓고 어미자로 치면서 놀이를 시작한다.

### 지경다지기

지경다지기는 집터를 다질 때 수반되는 의례이자 놀이이다. 새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 공사가 되는 집터를 다진 후에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토목공사를 한다. 이때 지경다지기를 하는데, 둥글고 납작하게 생긴 지경석(地硬石)이나 지경목(地硬木)에 여러 가닥의 동아줄을 매고 10여 명의 장정들이 사방에서 그 끈을 잡아당기면 지경석이 공중으로 떴다가 바닥에 떨어진다. 그 압력으로 집터를 단단하게 다지게 되는데 이때 선소리꾼이 지경소리를 메기면 나머지 사람들은 '에헤라 지경이요' 라는 후렴구를 받아 넘기며 흥겹게 작업을 한다.

지경다지기를 하지 않으면 집의 기초가 허약해서 넘어지거나 기울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지경다지기는 단순히 집터를 견고히 하기 위함만은 아니었다. 인간과 지신(地神)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자 땅을 살아 있는 생명체로 인식하고 경외했던 숭고한 의식이기도 했다. 선소리꾼이 부르는 메기는 지경소리는 붕분을 다질 때 부르는 '달구질소리(회다지기소리)'나 상여소리와 유사하다. 사설의 내용은 대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형제간의 화목을 강조하면서도 인생의 무상함이 담겨 있는 것이 특징이다.

### 곤동과 호미치기

'곤동'이란 용어는 초월읍 서하리 사마루에서 전승되었던 놀이의 명칭으로 '낮치기'의 다른 이름이다. 곤동은 예전에 초군들이 떨나무를 하러 가거나 쇠꼴을 베러 갔을 때 심심풀이로 자주 했던 놀이이다. 놀이의 방법은 3~5명이 각자 정해진 양의 풀이나 나무를 걸고 순서대로 낮을 던져서 땅에 꽂히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 다만 두 사람 이상이 낮을 땅에 꽂았을 때에는 그 각도를 재서 낮자루가 땅에서 더 멀리 떨어진 사람이 나머지 사람의 풀이나 나무를 모두 가져간다.

이와 유사한 놀이로 '호미치기'가 있다. 이 놀이는 논밭에서 김을 매다가 쉴 때 낮 대신 호미를 가지고 승부를 겨룬다. 방법은 적당한 거리에 선을 그어놓고 한 사람씩 호미를 던지는데 호미의 날이 땅에 꽂힌 사람이 승자가 된다. 이때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김매기를 대신하여 준다.

### 쓱빠이(돈치기)

돈치기의 일종으로 마을에 따라서는 딱지치기의 한 방편으로 이 놀이를 하기도 했다. 70~80대의 노인들 중 기억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일본어로 추정되는 '쓱빠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제보자를 만나기는 어려웠다.

쓱빠이는 그림과 같이 땅바닥에 놀이판을 그린 다음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를 정한다. 이때 일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출발선에서 놀이판 안으로 동전을 던져놓는다. 그러면 일등은 커다란 엽전(주로 조선시대의 화폐인 상평통보나 해동통보)을 던지거나 굴려서 다른 사람의 돈을 맞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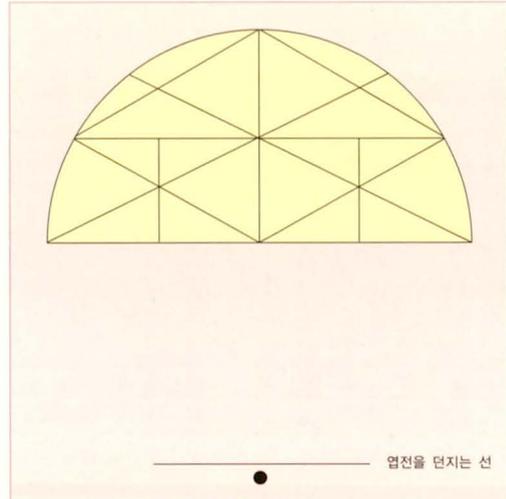
자신의 것이 된다. 다만 상대의 돈을 맞추고도 엽전이 선에 물리면 실격이 되어 다음 사람에게 기회가 넘어간다. 딱지로 쓱빠이를 할 때는 출발선에서 엽전을 굴려 상대의 딱지에 엽전이 없으면 나머지 딱지를 다 가져간다.

쓱빠이와 전혀 다른 종류의 돈치기도 다수 전승된다. 가령 장지동에서는 '딴치기'라 하여 동전을 뜰에 팽개치는데, 이때 튕겨 나온 동전이 멀리 날아가면 상대의 돈을 가져간다. 또 '뽀재먹기'로 돈치기를 하기도 한다. 이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상대의 동전이 놓인 지점에 자신의 동전을 던져서 맞추거나 한 뽀 안에 들어오면 자신의 소유가 된다.

### 남원골 춘향이

접신(接神)놀이의 일종이다. 이 놀이는 50~60년 전에 혼인을 하지 않은 소녀들 사이에서 널리 성행했으나 오래 전에 중단되었다. 주로 정월대보름이나 명절 때 여자아이들이 방안에 빙 둘러앉아 '남원골 춘향이'를 부르며 놀았다. 초월읍 서하리 마을회관에서 만난 70세 이상의 할머니들은 어린 시절에 이 놀이를 했던 추억을 대부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놀이방법은, 10여 명의 아이들이 방안에 둘러앉았다. 그리고 신이 잘 내리는 아이 또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꼴찌를 한 아이는 한복판으로 나와 두 손을 합장한 채 눈을 감는다. 이때 나머지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춘향아가씨'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다보면 호명된 아이는 합장한 손이 점점 벌어지고 마침내 신이 올라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때로는 실성



쓱빠이 도식

한 사람처럼 엉엉 울고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고 한다.

이 놀이는 자칫 잘못하면 호명된 아이의 정신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여 어른들은 매우 꺼려했는데, 신이 오른 아이를 깨우기 위해서는 왼쪽 뺨을 세계 쳐서 쓰러져야 제정신이 든다고 한다.

### 쌔쌔쌔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널리 행해졌던 놀이이다. 두 사람이 마주앉아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부르고 손뼉을 치며 정해진 동작과 율동을 하다가 '장깨미셔(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벌칙을 내린다.

아침 바람 찬 바람에 / 울고 가는 저 기러기 / 우리 선생 계실 적에 / 엽서 한 장 써주세요  
구리구리구리 멧팅구리 / '장깨미셔' - 노래 : 이명자(1935, 초월읍 서하리, 여) -

노래에 따른 동작과 율동은 마을마다, 혹은 놀이하는 어린이들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초월읍 서하리에서 조사된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쌔쌔쌔'에 서로 손을 맞잡고 아래위로 흔든다. '아침 바람 찬 바람에'에는 상대방과 손바닥이 엇갈리게 손뼉을 치고, '울고 가는'에는 소매로 눈물을 닦는 시늉을 하며, '저 기러기'에는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키는 흉내를 낸다. 또 '우리 선생 계실 적에'에는 양 손을 가슴에 열십자로 대고 몸을 좌우로 흔들고, '엽서 한 장 써주세요'에는 손바닥에 엽서를 쓰는 시늉을 한다. 마지막으로 '구리구리 구리 멧팅구리'에는 연자세를 돌리듯이 양손을 돌리다가 '장깨미셔'를 동시에 외치며 상대방과 가위바위보를 한다.

### 다리세기

정월대보름이나 명절 때 주로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전승되었던 놀이이다. 이 놀이는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분포를 보일 만큼 널리 행해졌던 전래놀이이다. 놀이의 방법은 여러 명이 마주보고 앉은 다음 두 다리를 쪽 뺨어 가랑이 사이에 맞물리게 한다. 그리고 '이 거리 저 거리 각거리'를 부르며 한 구절마다 차례로 다리를 세어가다가 노래가 끝나는 '깨(띠)'에 지목된 다리는 오므린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노래를 반복하며 다리를 세는데, 마지막까지 다리를 지목받지 못해 한쪽 다리가 펴 있는 아이가 술래가 되어 벌칙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심부름을 한다. 다리세기 노래는 마을에 따라 차이가 있다.

## 고무줄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두루 전승되었던 놀이이다. 고무줄 놀이의 방식과 노래는 각 지역마다 매우 다양하다. 방법은 고무줄을 잡고 있는 아이가 동요나 숫자 등을 불러주면 고무줄을 하는 아이는 그 리듬과 박자에 맞춰 고무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해진 동작을 반복한다. 하나의 단계가 끝나면 고무줄을 점점 높여서 동일한 요령으로 고무줄을 하는데, 가령 첫 단계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발목에 걸고, 그 다음부터는 무릎, 허벅지, 엉덩이, 허리 등의 단계로 줄을 걸고 놀이를 한다.

## 대전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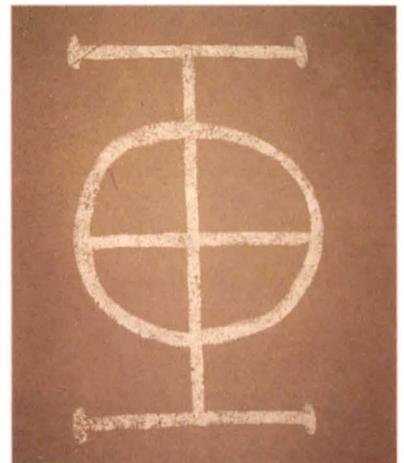
청소년들 사이에서 편놀이로 행해졌던 놀이이다. 넓은 공터나 학교 운동장에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길게 그려놓는다. 이때 골목길은 빠져나가기 어려운 폭이 좁은 곳과 다소 넓은 공간을 적절히 섞어서 배치한다. 길이 그려지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두 패로 편을 나눈다. 이긴 편은 자기 집인 골목으로 들어가고, 진 편은 상대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길목을 지키고 있거나 그 주위를 넘나들며 골목에 있는 아이를 밖으로 낚아챈다.

놀이의 규칙은 공격을 하는 편에서 한 사람이라도 수비를 뚫고 목적지(대전)에 도착하여 발로 밟으면 승부가 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한다. 반대로 수비하는 편은 상대편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모두 밖으로 끌어내거나 아웃을 시키면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서 놀이를 한다. 이밖에도 몇 가지의 규칙이 있다. 공격자와 수비자 모두 상대의 진영으로 끌려가거나 한발이라도 들여놓으면 탈락이 된다. 금을 밟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신발이 절반 이상을 넘어가면 역시 탈락한다.

## 우물밥

고누놀이의 일종이다. 흔히 '호박고누', '사발고누', '전봇대' 등으로 불리는데, 초월읍 서하리에서는 '우물밥'이라고 불렀다. 이미 중단된 놀이로 70대 전후의 노인들은 대부분 이 놀이를 기억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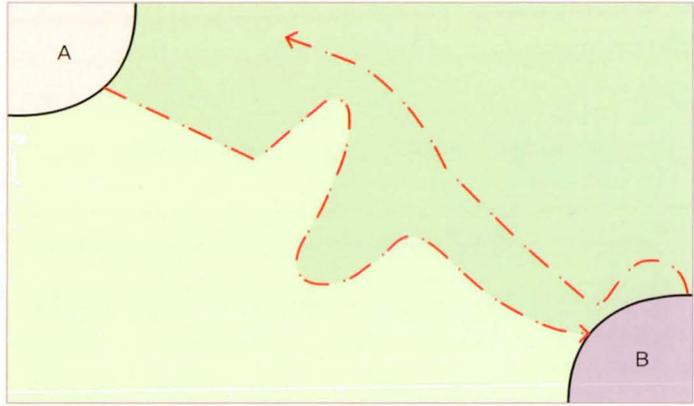
방법은 그림과 같은 판에 두 사람이 3개의 말을 써서 고누를 두는데, 자기의 차례에 말을 움직여서 상대의 말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면 이긴다. 우물밥은 자기 집에서 한 번 전진을 하면 후퇴를 할 수 없고 상대가 처음 차지했던 곳에 자신의 말이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



우물밥 도식

## 못찍기

못이나 송곳을 매개로 2명이 하는 놀이이다. 그림과 같이 땅바닥에 자기 집을 그린 다음 가위바위보를 해서 누가 먼저 시작할 것인지를 정한다. 이긴 사람은 못이나 송곳을 땅에 내리쳐서 꽃히게 한다. 성공을 하면 꽃힌 부분까지 선을 긋고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못찍기를 한다. 만약 실패하면 상대방에게 기회를 넘겨준다. 이때 못을 박는 거리는 통상 한 뼘 정도 거리를 사전에 정해놓는다. 만일 이 거리를 벗어나면 설령 못을 땅에 꽃아도 무효로 처리가 된다.



못찍기 도식

못찍기는 자기의 차례에 앞으로 전진을 해서 먼저 상대의 진지를 점령하면 승부가 난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그어놓은 선은 넘어갈 수 없다. 따라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앞으로 전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집으로 쉽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방어선을 친 다음에 상대편을 공략한다.

못찍기는 자기의 차례에 앞으로 전진을 해서 먼저 상대의 진지를 점령하면 승부가 난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그어놓은 선은 넘어갈 수 없다. 따라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앞으로 전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집으로 쉽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방어선을 친 다음에 상대편을 공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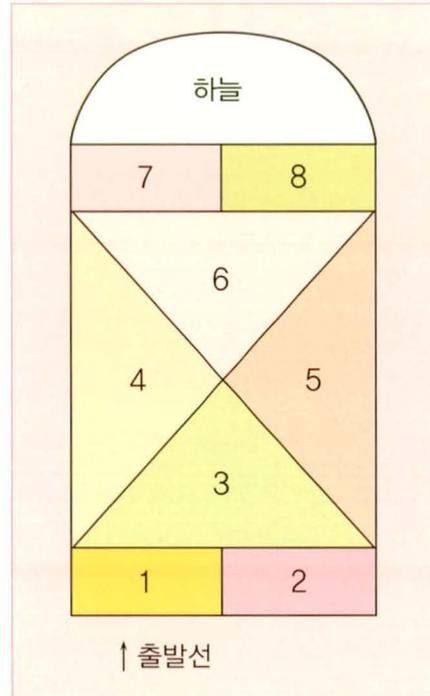
## 사방치기

사방치기는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성행했던 전래놀이로 지금도 초등학생들이 즐겨 하는 대표적인 놀이이다. 이 놀이는 그림과 같이 마당이나 공터에 직사각형의 놀이판을 그린 다음 1~8까지 숫자를 기입한다. 7~8번 위에는 반원을 그려 넣는데 이를 '하늘'이라고 한다. 하늘은 놀이의 마지막 과정인 '땅따먹기'를 할 때 '땅'을 던지는 공간이다.

방법은 각자 속칭 '땅'으로 불리는 납작한 돌을 준비한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 1번 칸에 자기의 땅을 던져놓고 2~8번까지 차례로 발짝을 뛰면서 가는데, 2~3번은 깨금발(외 발), 4~5번은 양발을 벌려서 동시에 두 발, 6번은 깨금발, 7~8번은 양발을 벌려서 동시에 두 발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7~8번에 이르면 다시 뒤로 돌아서서 역순으로 나와서 2번 칸에 이르면 자기의 땅을 주워서 나온다.

사방치기는 이와 같은 요령으로 1~8번까지 차례로 땅을 던져놓고 동일한 동작으로 놀이

를 한다. 만일 던진 망이 엉뚱한 칸에 들어가거나 선에 물리면 탈락하고, 발짝을 뛰며 앞으로 나갈 때 선을 밟거나 약속된 동작(깨금발 또는 두 발)을 어겨도 역시 아웃이 된다. 8번까지 모두 끝난 아이는 무릎에 망을 끼고 깨금발로 놀이판 주위를 도는데, 바퀴 수는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른다. 이때 주위를 돌다가 망을 떨어뜨리거나 선을 밟으면 죽는다. 무사히 통과한 아이는 '땅따먹기'를 한다. 이는 하늘이 있는 반원으로 들어가서 어깨너머로 망을 던져서 1~8번 중 어느 한 칸에 들어가면 그 칸은 자신의 집이 된다. 자기의 영역이 된 칸은 규칙과는 무관하게 두 발로 들어갈 수 있으며, 반대로 상대방이 얻은 칸은 건너뛰어야 한다. 땅따먹기에 성공하면 1번부터 다시 사방치기를 한다. 승부는 모든 칸에 땅따먹기를 해서 더 많은 집을 확보한 사람이 이긴다.



사방치기 도식

#### 자기소개하기(아이 엠 그라운드)

최근 초등학교 어린이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하고 있는 놀이이다. 5~10명의 아이들이 빙 둘러앉아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놀이를 하는데, 사전에 자기의 이름과 재미있는 동작을 정한다. 아울러 누구부터 놀이를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놀이가 시작되면 '시시시작(또는 췌췌췌) 아이 엠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라고 합창을 한 다음 한 사람씩 차례로 자신의 이름과 동작을 율동에 맞춰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가 돌고나면 놀이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 혼자서 '아이 엠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라고 노래를 부르고 자기의 이름과 동작을 취한 뒤 곧바로 다른 아이를 지명한다. 그러면 호명된 아이 역시 자기의 이름과 동작을 하고 다른 아이를 지명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반복해서 놀이를 진행하다가 자신의 순서에 박자를 놓치거나 동작이 틀리면 벌칙을 받는다.

## 제4절 장승과 산신제

### 1. 광주의 장승

#### 1) 장승의 유래

장승은 어디서 왔을까? 이러한 의문은 모든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품어온 오랜 질문이었다. 과연 장승은 '옛 부터 있어 온 문화' 라고 애매하게 말해서는 답이 풀리지 않는다. 이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혹자는 사찰이 거대한 사찰소유지를 보유하고 있었을 때 그 경계를 표시하는 의미에서 장승이 세워졌다고 한다. 이들은 장생(長生)에서 착안하여 '장생고표식설(長生庫標識說)'을 주장한다. 솟대·선돌·서낭당과 같이 한민족 고유의 토착신앙으로부터 기원했다는 설, 고대사회의 남근숭배로부터 기원했다는 설, 더 나아가 통구스문화설과 같이 인근 지역과의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설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몽골 문화와의 관련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승의 기원은 역시 어느 하나만의 학설로 해결될 수 있을 성질은 아니다. 따라서 고유의 전래설과 더불어 비교문화설이 함께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향이다. 결국, 장승은 반드시 한민족만이 단독으로 보유한 고유의 문화라고 고집하기도 곤란하며, 그렇다고 하여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문화라는 전파주의적 관점을 주장하기도 곤란하다. 장승의 기원이 어찌되었건 간에 장승이 한민족의 생활과 풍습 속에서 유전하는 독자적인 문화 틀로서 나름의 변화 발전을 거듭해 온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명칭은 각 지역마다 다르다. 경기·서울지역에서는 장승이라고 부르지만, 관서·관북지방에서는 돌미륵·당승, 전라도나 경상도에서는 장승·벽수·법수·벽시 등으로 부른다. 충청도에서는 수살막이·수살목·장승·장신, 제주도에서는 돌하르방·우석목·옹중석 등으로 부른다. 마을신의 신격을 나타내는 뜻으로 할아버지당산·할머니당산으로 호칭되기도 하며, 미륵신앙과 결부되어 미륵당산·미륵이라고도 불린다. 그중 가장 보편적인 이름이 장승이며 그 다음이 벽수다.

광주장승의 역사는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이지만, 별반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연대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이며, 특히 목장승의 경우는 매년 새로운 장승을 깎아 세워야 하기에 추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 2) 광주장승의 기능

일반적으로 장승은 마을·사찰·성을 지켜주거니와 그 내용상으로는 ‘무언가를 막아준다’는 풍수비보風水裨補적인 요소가 강하다. 광주의 장승도 풍수비보적 요소가 강하다. 들어오는 길목의 입구에 세워서 액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때로는 이정표 기능만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단순 이정표로 볼 수는 없다. 다만 다른 지역의 순수 마을공동체적 장승에 비하면 ‘길목’이라는 측면에서 이정표적 기능이 매우 강한 것이 광주장승의 특징이다. 이는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근교의 왕래가 잦은 진입로에 위치한 광주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장승은 마을민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위해 군락으로 세워진다. 장승이 단독으로 세워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개 남녀를 상징하는 2기가 마주보고 서 있거나 나란히 서 있다. 광주장승도 대부분 암장승과 여장승으로 구분되어 1쌍이 마주보고 있다. 음과 양이 조화하고 상응하여 마을의 안녕을 지켜준다는 믿음이 담긴 매우 통속적이면서도 일반적인 것이다.

장승에는 대개 기문記文이 쓰여 있어 장승마다의 성격을 부여 한다.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 ‘동방축귀대장군과 서방축귀대장군’, ‘토지대장군과 방어대장군’, ‘천상천하축귀대장군과 동서남북축귀대장군’, ‘상원주장군과 하원당장군’ 등의 다양한 이름이 쓰이고 있으나, 그 주종은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다. 초월읍 무갑리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북방흑제장군과 남방적제장군’이 확인된다.

## 3) 장승에 담긴 광주사람들의 자화상

극히 자연적인 자연석과 자연목 그대로의 조형물이 병존한 가운데 새롭게 사람의 얼굴을 담은 장승이 놀라운 창조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장승발달사의 일획을 긋는 것이었다. 광주 엄미리장승과 같은 나무장승의 단순미와 자연미는 마을 목장승이 도달할 수 있는 민중적 조형미의 압권이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 민중적 조형미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장승 제작방법은 광주도 예외 없이 마을주민들 사이에서 ‘어깨너머 기법’으로 전승된다. ‘어깨너머’로 전승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누적된 적층 문화적 결실이 장승에 반영되며, 장승의 미학이 공동체적 질서에 농축되게 된다.

그러나 목장승을 만드는 당대 사람들의 의식과 취향, 조형적 솜씨 차이에 따라 변화의 정도가 심하다. 가령, 오늘날 전해지는 엄미리장승이 획득하고 있는 조형성은 목장승이 보여주



중부면 엄미리 미라울 남장승



초월읍 무갑리 남방적제장군



퇴촌면 우산리 여장승

는 조형성으로서 압권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전혀 ‘볼품없는’ 조형성을 보이기도 한다. 가변적이면서도 그 어떤 조형적인 공통분모를 광주의 장승들은 내포하고 있다. 가령, 입과 턱을 2단으로 과감하게 쳐 넘으로써 단순화시켜 구태여 이빨을 사실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으며, 몸통과 얼굴을 자연스럽게 구분해내는 기법 등은 목장승 조각의 압권이다.

광주에 목장승이 유명한 것은 산촌지방이라는 특성과도 직결된다. 광주에서는 오리나무를 많이 이용한다. 오리나무는 쉽게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무껍질을 벗기면 붉은 빛이 돌아 액을 쫓는 장승 소재로는 그만이다. 중부면 검복리에서는 “화장을 안 해도 화장을 한 것처럼 빨갛게 물어 나오기 때문에” 오리나무를 많이 쓴다고 한다. 하지만 마땅한 오리나무를 구하지 못하면 미루나무로 대체하기도 한다.

장승목은 굵은 나무를 쓰는 경우와 가는 나무를 쓰는 경우로 대별된다. 과거에는 굵은 목재를 썼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가는 나무가 이용된다. 큰 나무를 구하기 어렵기도 하고 마을의 고령화로 노인층이 주도하는 장승제에서 큰 나무를 처리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엄미리나 검복리·무갑리 등은 아직까지는 굵은 나무를 선택한다.

광주장승은 남장승과 여장승이 비슷하다. 다만 남장승에는 사모(紗帽)를 씌우고 양측에 사모 날개를 꽂아 여장승과 구별한다. 남장승은 대개 사모 격식을 갖춘 인물로 조각한다. 머리 부분과 관은 먹선으로 빗금처리 하는 것이 보편적인 광주장승의 얼굴 처리 방식이다. 입과 턱 부위는 2단으로 과감하게 잘라내어 미학적으로 처리하고, 몸통과 얼굴 부위를 구분해내는 것도 남다른 특징이다. 무갑리·검복리 등 마을에 따라서는 이빨을 조각하거나 그려 넣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전통적 광주식은 아니다.

#### 4) 장승제와 솟대

마을장승은 여말선초부터 자연마을이 형성·발전되면서 하나의 독자적인 리보를 형성할 때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이며, 한국 마을문화의 전형적인 상징으로 두드러진다. 마을장승은 그 자체가 마을신이며 마을지킴이 자체이다.

광주는 산이 많은 지역이다. 따라서 산신이 강하다. 광주에서는 산신제가 있을 뿐이며 다른 제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장승제도 산신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 (1) 광주의 장승제

장승제는 매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을에 따라서는 격년, 혹은 3년에 한 번씩 행하기도 한다. 제일은 정월 보름날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마을회의 때 생기복덕을 보아 택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연기하기도 한다. 마을회의에서는 비용을 결정하고 제관을 뽑는다. 제관은 반드시 집안에 초상이나 여타 굿은 일이 없어야 하며 심지어 여자들의 월경도 '피부정'이라 하여 피해야 한다. 선정된 제관은 몸을 정갈히 하고 집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 온갖 금기를 행한다.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찬물에 목욕재계하고, 부부간에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

제일 직전이나 당일 아침에 제관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오른다. 제법 장승감으로 쓸 만하다고 판단되는 나무를 점지하여 원새끼로 금줄을 두르고 그 앞에 간단한 고사상을 차려 인사를 드린 연후에 톱질을 시작한다. 곁가지를 대략 잘라낸 다음 지계에 지고 마을로 돌아온다.



썩은 장승도 그대로 둔다(엄미리)



쓰러져도 장승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검복리)

대개 마을의 마당이나 장승 터에서 나무를 다듬는다. 껍질을 벗기고 대략의 형태를 만든 후엔 눈·코·입·귀 등 섬세한 부분을 만들고 매끈하게 자귀질하여 다듬고 나면 먹으로 수염이나 사모를 그린다. 천하대장군·지하여장군 등의 명문을 쓰고 나면 장승에 금줄을 두르고 다시금 지계에 지고 장승 모실 곳으로 향한다. 마을에 다른 지킴이들, 가령 산신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산신제를 먼저 지내고 맨 나중에 장승제를 지내게 된다. 풍상에 쓰러져가는 지난번의 장승은 그대로 둔 채 새 장승을 세워두고 그 앞에 간단한 상차림을 한다. 삼색실과, 어육, 나물 등이 차려지고 제관이 술을 붓고 재배하며 장승제를 지낸다.

광주의 경우 장승제와 산제가 같은 날 이루어진다. 대개 산제를 먼저 올리고 난 다음 하당적 성격의 장승제를 연이어 올린다. 장승을 깎고 세우는 일은 번거롭기 때문에 낮에 하고 밤에 제를 올린다. 엄미리와 같이 장승제만 남고 산제가 사라진 경우도 있다.

광주에서는 풍물을 앞세우는 등 길굿 방식의 거대한 형식은 없으며, 소찬 형식의 산제를 올리고 간단하게 장승제를 지낸다. 너른 논이 있는 곳과 달리 산골에 형성된 광주의 자연지리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마을별 장승제 현황**

마을	절차와 내용
중부면 검복리	음력 3월 1일부터 10일 안에 지낸다. 마을과 주민을 위해 지내는 것이므로 장례가 있으면 무조건 연기되며, 택일이 되면 곧바로 제를 올리기도 한다. "오늘 봐서 날 좋다 이러면 바로 오늘 잡아서 내일 잡고 그린다"고 한다. 동네에 무슨 일 생기기 전에 바로 바로 불시에 지내는 것이다.
중부면 엄미리	산신제의 일환으로 모신다. 격년으로 음력 2월 초순에 올리는 산신제는 매우 엄격하게 금기를 지키면서 전승되었으나 단절되었고 남은 것은 장승제뿐이다. 외부 사람들이 오로지 장승만 볼 뿐 신성공간으로서의 산제당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그래서이다.
중부면 하번천리	장승제는 산제와 연계된다. 산제의 일환으로 장승제를 지냈기 때문이다. 격년에 한 번씩 지내고 있으며 10월에 행하는데 택일하여 날을 정한다. 초상이나 굿은일이 생기면 무조건 연기한다. 일단 택일이 되면 제관은 3일 동안 비린 것을 가리고 상갓집을 가지 않으며 가능한 한 굿은일은 피한다.
퇴촌면 관음리	추운 겨울, 12월에 지낸다. 마을사람들은 장승제와 산신제를 구분하여 생각하지 않는다. 제일도 같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다가 산제 없는 장승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퇴촌면 우산리	음력 10월 1~3일 사이에 지낸다. 생기복덕을 따져 제일을 정하고 제관 3~4명을 뽑는다. 예전에는 장승 깎는 사람 2명, 제 지내는 사람 2명을 따로 했다. 지금은 같이 하는데 이장이나 개발위원들이 한다. 밤 1시에 산제에서 내려와서 장승제를 지낸다. 떡과 막걸리를 올리는 간단한 상차림인데 당산에 올리는 상과 장승에 올리는 상이 다르다.
초월읍 서하리	장승은 한 해 걸러서 깎는다. 산제와 밀접하여 장승은 반드시 산신제날 깎는다. 마을 뒷산에 당산이 위치하고 있고 매년 '산신제', '산제'를 모신다. 주신은 '도당할아버지', '도당할머니'이며 하위신으로 장승과 솟대가 있다.
초월읍 무갑리	장승과 기러기를 세운 뒤에는 장승 앞에다 술을 붓고 복어를 매달고 제사를 지낸다. 이것들이 마을을 수호해 주고 액운을 물리쳐 준다고 한다. 산신제는 2년에 한 번씩 지내며 장승제와 같은 날이다.
목현동 (송정동)	3년마다 5월 단옷날에 마을 어귀에 장승을 깎아 세우고 장승제를 지낸다. 제일 아침에 산에서 오리나무를 베어 당 앞에서 깎아 세운다. 오전에 장승을 깎아 세운 뒤에 정오에 남장승-여장승 순으로 각각 제물을 마련하여 지낸다.

## (2) 솟대의 재인식

장승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음에 반하여 광주의 솟대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실 솟대도 공동체문화의 하나이다. 솟대는 마을의 안녕과 수호, 그리고 풍농을 위하여 마을에서 공동으로 세웠다. 광주 관내의 장승들은 대부분 솟대를 함께 세운다. 그런데 세간의 인식이 장승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솟대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한 점에서 솟대신앙이 광주시 장승들에 매우 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은 주목을 요한다.

과거 광주에서는 솟대라는 말은 거의 쓰이지 않았으며, '오릿대' 정도가 전통적인 술어였다. 무갑리에서는 '기러기' 라는 표현도 쓴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정작 솟대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으며 구술 전승되는 것도 거의 없다. 비록 솟대의 전승은 이루어졌으나 그 구체적 내용물이 중간에 사라진 상태다. 다만 제의구조상 장승과 더불어 반드시 솟대를 세우는 것으로 무의식 중에 인식하고 있다.

솟대는 마을 입구에 홀로 세워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장승·선돌·탑·신목 등과 함께 세워져 마을의 하당신 또는 상당신이나 주신으로 모셔지기도 한다. 여타 신앙 대상물과 함께 나타나는 복합양상을 보이며, 장승과 솟대가 같이 공존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이다.

광주시의 솟대는 자연적인 나뭇가지를 일정 크기로 잘라내어 나무토막에 홈을 파고 새 모양의 나무를 구해 끼어놓는 방식이다. 긴 장대에 Y자형의 나뭇가지를 꽂아 단순 처리한다. 솟대에는 신탄래와 천을 걸어서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용도로도 활용된다. 각각의 장승군마다 솟대가 모두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솟대에 관한 신앙심이 연연이 이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북어와 창호지를 실로 묶어 매달고 원새끼에 한지를 끼워 둘러치는 경우가 많다.



중부면 엄미리 새마을여성승과 솟대



목현동 장승과 솟대



초월읍 서하리 솟대

그러나 장승만이 강조되면서 솟대가 사라진 곳도 있다. 퇴촌면 우산리의 경우, 조형 장승을 세우면서 아예 전승되던 솟대를 없애 버렸다. 퇴촌면 관음리의 경우도 장승은 전승되고 있으나 솟대는 개념조차 사라져 버렸다.

### 5) 장승 제작(중부면 엄미리 장승 사례)

장승의 규모와 생김새, 재목, 주기 등 마을마다 장승 제작은 차이가 있지만 장승제가 전승되는 곳에서는 예외 없이 장승을 제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부면주민센터 앞이나 퇴촌면 등에서처럼 장승제와 상관없이 관광장승을 세운 곳도 있다. 여기에서는 방송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중부면 엄미리의 사례를 살폈다. 장승제는 2009년 3월 1일에 있었다.

엄미리에는 총 4곳에 장승이 세워져 있다. 먼저 은고개 초입에서 약 200m가량 들어 온 새말 잣나무집이라는 식당을 기준으로 서쪽에 천하대장군, 동쪽에 지하여장군이 있다. 그리고 새말에서 다시 200m 정도 올라가 미라울 령산계곡이란 식당의 동쪽으로 천하대장군, 서쪽으로 지하여장군이 있다.

장승의 재료인 오리나무는 제의 며칠 전에 마을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정한다. 장승에 적합한 나무는 한아름쯤 되는 굵기에 한 나무에서 4개의 장승이 나올 수 있을 법한 키를 가진 나무이다. 2009년 장승 제작에 사용된 오리나무는 별봉에서 제의 하루 전날 베어 마을 사람들이 트럭으로 실어 운반하였다. 오리나무를 자르기 전에 나무 앞에 막걸리를 부어 놓고 절을 함으로써 간단한 고사를 지냈다.

제의 당일 오전부터 약 2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장승과 솟대를 깎았다. 장승을 깎기 위한 도구로는 전기톱·끌·정·톱·도끼·낫 등이 사용됐다. 준비한 나무를 4등분하여 2~3명이 각각 장승 하나씩을 맡았다. 이때 나무 밑동부터 미라울 남장승, 미라울 여장승, 새말 남장승, 새말 여장승이 된다. 먼저 낫을 이용해 나무껍질을 벗기고 사모와 입이 될 부분을 톱과 도끼를 이용하여 잘라냈다. 어느 정도 형체가 완성되자 대패 등을 이용해서 나무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었다. 눈 부위는 매직을 이용해서 스케치 한 후 끌과 정을 이용하여 타원형으로 둘레를 파냈다. 이때 장승 눈은 무섭게 만든다. 드릴을 이용해서 콧구멍과 수염 부분에 5개의 구멍을 뚫은 후 매직으로 눈을 또렷하게 그렸고, 동네 앞산에서 퍼 온 황토 흙을 개어 장승 얼굴에 발랐다. 그런 다음 사모 바로 아래 부분에 구멍을 뚫고 사모대를 끼웠다. 그리고 사모와 사모대 부분에 먹과 매직으로 격자무늬를 그려 넣고, 손종규 중부농협조합장이 먹과 붓을 이용해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라는 글씨를 각각 먹과 붓을 이용해 써 넣었다. 남장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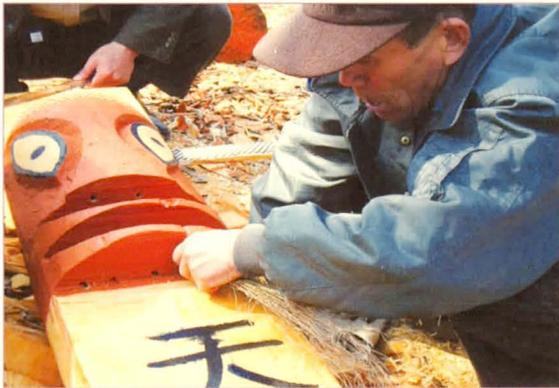
엄미리 장승제작



엄미리 장승제작 ①(얼굴 깎기)



엄미리 장승제작 ②(글씨 써 넣기)



엄미리 장승제작 ③(수염 꽃기)



엄미리 장승제작 ④(장승 세우기)



엄미리 장승제작 ⑤(숫대 만들기)



엄미리 장승제작 ⑥(완성된 엄미리 미라울 천하대장군)

의 아래 부분에는 '서울 70리, 수원 70리, 이천 70리' 라는 이정을 적어 넣었다. 예전에는 장승의 글씨는 동네 어른들이 담당했지만 최근에는 한자를 잘 아는 사람이 적어 필체가 좋은 손종규 조합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 이어 미리 준비한 지매텔뿔을 수염자리에 꽃음으로써 장승을 완성했다.

한편, 솟대는 곧게 뻗은 전나무로 만들었다. 전나무를 약 2m 정도 잘라 대를 만들고, Y자로 갈라진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기러기를 만든다. 우선 기러기를 만들 큰 Y자 가지와 작은 V자 가지를 낮으로 다듬고, Y자 가지의 갈라지는 부분에 V자 가지를 꽃아 기러기의 목과 부리를 만들어 둘을 합쳤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러기를 전나무 대에 꽃으면 솟대가 된다. 솟대는 총 4개를 만들었다.

**마을별 장승제작과 전승 현황**

마을	장승제작과 전승 현황
중부면 하번천리	"장승이 바뀌게 된 게 어르신도 돌아가신 분도 많고 장승을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장승 깎는 걸 전수받는 게 아니어서"라고 한다. 젊은 층이 떠났거나 있다 해도 과거처럼 장승깎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현대사회의 특징인 손노동의 소멸로 인하여 기술 자체가 끊긴 것이다.
퇴촌면 관음리	과거의 전통적 장승이 쇠락하고 관광형 장승으로 전화되는 경우다. 관음슈퍼 앞의 길가에 서있는 장승은 사모를 쓴 남장승과 사모가 없는 여장승이다. 관은 검게, 얼굴은 황토빛으로, 입과 몸통은 흰색 페인트를 칠하였다. 전통성과는 전혀 무관한 과거를 기념하는 관광장승이다. 반면, 관음슈퍼 뒤편의 냇가에는 높이 1.5m에 불과한 장승이 있다. 머리부위는 먹으로 빗금을 그었으며 나무가 썩은 상태이다. 눈과 코와 입은 양각으로 돌출해있었다. 눈은 흰색으로 칠하고 눈동자만 검게 찍었다. 이빨은 흰색이다. 턱과 몸통을 구분하여 나무를 잘라냈으며, '지하여장군' 표식을 하였다. 장승 전체를 붉은 색으로 칠하였다. 토속적 관음리장승의 마지막 모습으로 여겨지며, 더 이상 이 같은 장승이 제작될 전망이 없다.
퇴촌면 우산리	이 마을은 아주 독특한 선택을 하였다. 원래 있던 장승이 사라지고 '예술적인' 장승을 세웠다. 지금 것은 외부에 맡겨서 깎아 세운 것이다. "큰 나무를 2개씩 베서 매년 깎았는데 10여년 전만해도 경찰에 걸리니까 못하게 되어서, 조사까지 가서 받아야 해서 그냥 매년 목기로 깎았다"고 한다. 산림청의 벌목규제가 민속전승에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그릇된 경우로 인해 매년 제작의 번거로움을 피할 겸 항구적인 선택을 하였다. 자연스럽게 약간 휘어진 통나무의 굵이를 적절하게 이용하였으며 관과 귀의 비례가 조형미를 높여준다. 눈은 동그렇게 뿔으며, 코와 입도 사실적이다. 조각 솜씨가 있는 전문가가 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나무도 항구적인 나무는 없다. 장승제작법을 아는 노인층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우산리의 장승 제작전통은 소멸될 것이다.
초월읍 무갑리	마을 목수 일을 하는 김용석(남, 52세) 씨가 톱, 깎귀, 끌, 대자귀로 깎고 붓으로 그리고 얼굴에 붉은 페인트칠을 해 만든다. 나무를 2년 전부터 미리미리 사전에 찍어두고, 일단 나무를 베면 경운기에 싣고 와서 깎는다. 마을에 전문적으로 장승을 깎아온 2인이 있어 장승제작이 다른 마을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관련 일을 하는 마을민이 있어 그네들의 손으로 장승이 제작되고 있다. 결과론적으로 세련된 장승이 되기는 하지만 조형성에 치중하여 전래 광주시에서 전승되어오던 방식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나무를 깎는 사람은 우리 둘이 밖에 없어. 우리는 건축하는 사람들이라, 장비는 다 있어. 톱, 가귀, 끌, 대패. 그거 연장 없으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4m 장승도 깎은 사람이야"라고 하는 이점이 있는 반면, 공동체적 공동전승의 가능성이 차단될 우려도 있다.
목현동	'지하여장군' 얼굴에는 흰 칠을 하고 연지·곤지를 붉은색으로 찍어서 한껏 멋을 부렸다.

## 6) 광주장승의 마을별 개관

### (1) 중부면 검복리 장승

광지원에서 남한산성으로 가는 308번 지방 국도변에 남장승 천하대장군 4기가 위치한다. 좌측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세운 장승, 우측에 가장 오래된 장승이 서 있다. 2년 1회씩 격년으로 세우므로 도합 8년간의 장승이 서 있으며, 이들 장승 뒤로는 썩어서 스스로 쓰러진 장승들까지 있으므로 적어도 십 수 년의 장승군이 자리하고 있다.



중부면 검복리 여장승

마을을 가로지르는 냇가 건너편 산기슭에 여장승 지하여장군 4기가 남장승군을 마주보고 있다. 이들 장승 역시 4기가 서 있으며 각각 2년씩 도합 8년의 시간을 말해준다. 솟대는 조사시점 당시에 건너편 여장승 군락에만 1기 세워져 있었다. 장승은 주로 오리나무로 깎는다.

### (2) 중부면 엄미리 장승

엄미리에서 2리를 거쳐 남한산성 방향으로 넘어가던 길이 있었기 때문에 장승군이 1리부터 2리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1988년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옛길이 끊겼다. 서낭당과 장승이 있던 곳으로 도로가 나면서 자연스럽게 산제사가 사라졌다. 고속도로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 엄미리에만 장승이 계속 모셔지고 있다.



중부면 엄미리 미라울 남장승

엄미리 장승은 2기씩 총 4군데 있는데, 새말과 미라울에 세워져 있다. 새말을 거쳐 미라울의 좁은 길로 걸어가면 남한산성길과 연결되는데 지금은 등산이나 다니는 소로로 인적이 드물다. 옛날에는 그 너머가 면소재지라서 인근 일대에서 이곳으로 다녔다고 한다. 서울로 가는 지름길이지만 지금은 등산로로만 활용된다. 새말 남장승의 경우, “서울 70리 수원 70리 이천 70리”라고 몸통 하단에 묵서되어 있다.

엄미리 장승제도 본디 산신제의 일환이었다. 격년으로 음력 2월 초순에 엄격하게 금기를 지키면서 전승되었으나 현재는 단절되고 장승제만 남았다. 장승은 주로 오리나무로 깎는다.

### (3) 중부면 하변천리 장승

장승은 박진이 앞과 양지말 쪽에 서있다. 장승에는 “서울 80리, 이천 60리”란 이정표가 묵서되어 있다. 박진이의 장승은 마을 입구의 텃밭 속에 서있었다. 도로변이기는 하지만 텃밭에 놓여 있어 눈에 띄지 않았다. 산촌생태마을 사업을 전개하면서 도로를 정비하고 장승군락을 만들었다. 마을 번영을 위하여 여러 사업을 하면서 관광홍보용 장승을 세웠지만, 본래 치성 드리던 장승과는 구분하여 모신다.



중부면 하변천리의 전통적 장승과 관광장승의 병존

남장승과 여장승 각 1기, 솟대 1기가 관광용 장승 곁에 왜소하게 서 있으며, 하천 건너편에는 다른 장승이 마주보고 있다. 그런데 남장승만 존재하고 여장승은 없다. 솟대도 1기 서 있다. 마을정비사업을 하면서 전통적인 장승 모시기 관행이 사라진 상황으로 보인다. 장승은 원칙적으로 오리나무로 깎는다.

### (4) 퇴촌면 관음리 장승

장승의 위치는 여러 번 변화를 겪었다. 지금은 느티나무 앞 관음슈퍼에서 살짝 비껴난 마을정자 옆으로 옮겨져서 남녀 1쌍이 세워져 있지만, 원래는 슈퍼 위치의 느티나무 밑에 있었



퇴촌면 관음리의 옛 장승



퇴촌면 관음리의 현대식 관광장승

다. 그런데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독방 쪽으로 옮겼다가 다시 길가로 옮겨왔다. 정자 옆에 세워진 '현대판 장승'은 장승의 원래 위치를 기억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지막 장승제 때 세워둔 것이다. 길가에 위치한 대성사 입간판과 '앵자봉(관산) 등산로 2.7km' 같은 간판이 뒤섞인 나무 앞에 전형적인 관광장승으로 서 있다. 늬말의 '진짜' 장승은 마을회관 뒤편에 지금도 있다. 앞의 장승이 관광형 장승이라면 이 장승은 관음리의 전통을 이어온 마지막 모습이다.

관음슈퍼 앞의 길가에 서있는 장승은 사모를 쓴 남장승과 사모가 없는 여장승이다. 관은 검게 칠하였고 얼굴은 황토 빛으로 칠하였으며 입과 몸통은 흰색 페인트를 칠하였다. 전통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관광장승이다. 장승은 주로 오리나무로 깎는다.

##### (5) 퇴촌면 우산리 장승

산골마을이지만 고개 넘어 타동과 연결되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니다. 지금도 천진암으로 향하는 차량행렬이 끊이지 않으며, 예전에도 천진암 약수터를 향하는 인적이 많았다. 장승은 '매내미 장승배기'에 서 있다. 우산천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면 좌우로 별려 있다. 왼쪽의 장승 위치는 옛날과 다를 바 없으나 오른쪽 장승은 본디 우산천 건너편에 있었다. 장승은 우산천을 사이에 두고 좌우로 별려 세워져 있었는데 냇가 건너편에 안강식당이 생기면서 자리를 옮겨왔다.



퇴촌면 우산리 남장승



퇴촌면 우산리 여장승

본래 있던 장승이 사라지고 ‘예술적인’ 장승을 세웠다. 자연스럽게 약간 휘어진 통나무의 굽이를 적절하게 이용하였으며 관과 귀의 비례가 조형미를 높여준다. 눈은 동그랗게 뿔으며, 코와 입도 사실적이다. 조각솜씨가 있는 전문가가 깎았음을 알 수 있다.

남장승과 여장승 모두 원통형 소나무를 3분의 1 정도 켜서 굽은 쪽이 상부가 되게 하고 가는 쪽을 밑 부분이 되게 하여 잡석으로 다져 넘어지지 않게 고정시켰다. 남장승은 관모를 씌웠는데 머리 부위를 약간 켜서 얼굴과 각을 지게 한 다음 붓으로 표시를 하였다. 얼굴은 원통형 나무를 켜지 않고 그대로 살려 볼록 튀어나오게 해 눈썹을 비롯해 눈·코·입·귀 등을 먹물로 그렸으며 몸통에는 3기 모두 ‘천하대장군’ 이라고 묵서하였다. 여장승도 기교면에서 남장승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으며 단지 몸통에 기록된 명문만 ‘지하여장군’ 이라고 되어 있다.

#### (6) 초월읍 서하리 장승

서하리는 예나 지금이나 교통의 요지이다. 장승은 여장승 2곳, 남장승 2곳 등 교통상의 길목 4곳에 집중 배치되어 있다. 자그마한 느티나무와 장승이 서 있는 도로변은 과거에도 아주 큰 길이었으며, 안골 입구로 들어가는 곳은 남한산성으로 가는 길이다. 논 복판에 있는 장승이 가장 오래 것으로 장승 앞이 지금은 농로에 불과하지만 과거에는 가장 큰 길이었다고 한다.

서하리에는 ‘숫대’ 라는 말이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 어렸을 때는 ‘오릿대’ 라 불렀으며, 숫대

라는 말은 6·25전쟁 이후부터 붙었다고 한다. 지금은 모두 솟대라 부른다.

장승 제작 기법은 남장승과 여장승이 비슷하며 단지 남장승에는 사모를 씌우고 비녀와 같은 사모 날개를 꽂아 여장승과 구별하였다. 남장승의 명문은 '천하대장군'이며, 여장승은 '지하대장군'이다. 장승은 주로 오리나무를 이용한다. 그런데 적당한 오리나무를 구하지 못하면 미루나무로 대체하기도 한다.



초월읍 서하리 남장승

#### (7) 초월읍 무갑리 장승

큰 도로에서 마을로 접어들자마자 마을에서 200여m 떨어진 진입로에 장승과 솟대가 세워져 있다. 남장승과 여장승은 약 100여m 떨어졌으며 길을 향해 서로 마주보고 있다. '남방적제장군'과 '북방흑제장군'이라 명기되어있다. 주민들은 "무갑리 수호신이야. 그러니까 엄하



초월읍 무갑리 북방흑제장군



초월읍 무갑리 남방적제장군

게 만든 것이지. 엄하게 만들어 놓으면 못 들어오잖아. 남방은 적제야. 북방은 흑제야. 옛날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 거”라고 한다. 방향에 따라 풍수비보적인 차원에서 세웠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천 60리, 죽원 20리, 경안 10리’ 식으로 거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이정표 역할도 겸했던 것 같다.

숫대는 무갑리의 경우에 ‘기러기’ 라고만 불렀다고 한다. 숫대라는 명칭은 후대의 산물인 셈이다. 장승과 숫대(기러기대)는 제일 전날 세운다. 산의 깨끗한 곳에 가서 쓸 만한 오리나무를 골라 베어다가 동네 마당에서 마을 목수일을 하는 김용석(남, 52세) 씨가 톱·각귀·끌·대자귀로 깎고 붓으로 그리고 얼굴에 붉은 페인트칠을 해 만든다. 나무는 2년 전부터 사전에 짐찍어두고, 일단 나무를 베면 경운기에 싣고 온다. 마을에 전문적으로 장승을 깎아온 2인이 있어 다른 마을보다 전문적으로 조각되고 있다.

### (8) 목현동 장승

마을 입구에는 작은 느티나무와 장승·숫대가 있다.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아름답리 느티나무 7~8그루가 있었고 돌로 쌓은 탑(누석)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느티나무는 ‘왜정 말기’에 구장이 베어서 팔았고 탑은 새마을운동으로 길을 확장하면서 없어졌다. 즉 과거에는 장승·숫대·돌무더기·신목神木이 함께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마을 사람은 이곳을 ‘탑밖에’라 부른다. 결혼 후에 신부가 마을을 나갈 때나 새로 시집오는 신부가 마을로 들어올 때 이곳에서 북어·술·떡을 진설하고 절을 한 연후에 지나갔다고 한다.



흰 칠과 연지·곤지를 붉게 칠한 목현동 여장승과 거대한 관광장승

원통형 오리나무를 깎아 만들고 밑동을 묻어 세웠다. 관과 왕방울 눈, 주먹 코, 덩성덩성한 이빨, 수염 등을 조각하고 목서로 그린다. 톱·망치·끌·자귀를 이용하여 거칠게 상부를 조각하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을 목서한다. 특히 지하여장군 얼굴에는 흰 칠을 하고 연지곤지를 붉은 색으로 찍어서 한껏 멋을 부렸다. 길 옆에 있는 천하대장군 하부에 산성·성읍·경안·이천까지의 거리가 쓰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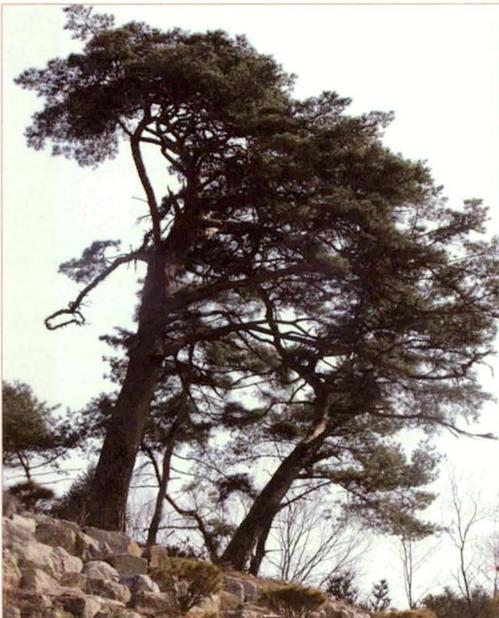
## 2. 광주의 산제사

### 1) 산제사의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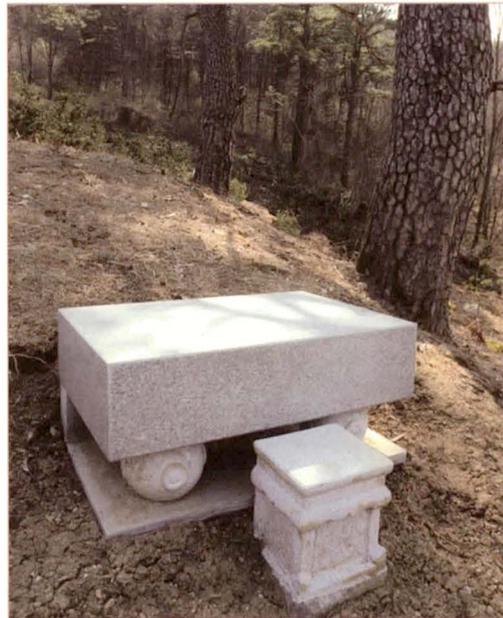
#### (1) 신격과 신체

광주시민들도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곳곳에는 과거로부터 전해져 온 민속유산들이 여전히 유전·傳되는 중이다. 그 중에서도 마을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어 오면서 곳곳에서 현존민속으로 생동하고 있는 마을곳이 단연 돋보인다.

광주의 마을곳과 마을지킴이는 산신제와 산신으로 압축된다. 광주는 산이 많다. 산에는 산신이 있다. 따라서 산신제가 보편적으로 행해짐은 당연한 일이다. 산신 같은 신격이 가능케 하는 제1의 전제 조건이다. 신격은 바로 마을지킴이 자체를 말한다. 광주의 마을곳은 다음의 특징을 보여준다.



퇴촌면 우산리 산제당



퇴촌면 우산리 산제당의 제단

첫째, 산신제라는 명칭 보다는 '산지사(산제사)', '산치성' 이란 표현이 더 많이 쓰인다. 마을신앙은 대부분 산신제로 대표할 수 있으며 다른 신앙은 거의 없거나 미약하다. 실제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면담 조사에 따르면, 산신제라는 통념상의 명칭보다는 산제사가 훨씬 많이 쓰인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산신제라는 통념상의 일반적 명칭보다는 광주민들이 쓰는 산제라는 명칭을 씀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산신이 대부분이지만 도당이 결합된 경우도 많다. 산신과 더불어 당할머니, 당할아버지 내외를 모시는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당할머니, 당할아버지는 도당할머니, 도당할아버지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산신을 주격主格으로 하면서 여타 신앙 및 신체가 결합된 경우들이다.

셋째, 산신은 어느 경우에도 가장 높은 신격으로 홀로 모셔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당으로서의 산신과 하당으로서의 장승을 동시에 모시는 경우도 많다. 광주 관내에서 장승으로 유명한 중부면 하번천리, 초월읍 무갑리·서하리 등은 모두 상당 개념으로서의 산신과 하당(거리신) 개념으로서의 장승을 함께 모시는 경우이다.

넷째, 광주의 산신이나 도당은 건물을 지닌 경우가 거의 없다. 자연적 형태의 숲이나 나무와 돌무더기로 만든 제단 등이 신체의 전부인 경우가 많다. 다만 제를 집행하기 위한 제기 보관, 제의 준비 용도의 움막이나 가건물은 더러 존재한다.

다섯째, 산신을 모시기 때문에 비록 마을은 갈라져 있어도 같은 산신을 모시는 경우가 많다. 무갑산을 공유하는 초월읍의 무갑리와 신월리, 백마산을 공유하는 오폭읍 양별1리와 3리 등이 그것이다.

## (2) 제관

제관祭冠 및 제주祭主는 제의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관명은 당주·도가·집사·화주·축관·제주·집례·독축·초헌관·아헌관·종헌관·유사·존위·좌상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쓰이는 명칭은 당주·제관·축관·도가·화주·유사 등이다. 제의를 주도적으로 집행하는 인물과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 축문만 읽는 사람 등의 역할 구분에 의하여 세분화되는 경우도 많다. 간단히 지내는 경우에는 당주 한 명이나 당주 내외 식으로 이루어지고 잡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따른다. 유교식 축문이 없는 경우에는 축관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축관은 제법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제관의 기본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제관을 통하여 신과 접하고 지킴이를 모셔야하므

로, 그에게는 다양한 금기가 요구된다. 마을주민 중에서 생기복덕을 가려 뽑히, 무병하며 가정에 초상·출산 등이 없는 사람으로 제반 금기를 가린다. 집안에 생리 중인 여자가 있어도 안 되며, 만일 날을 받아놓고 초상이나 기타 불상사가 생기면 제를 연기하거나 제관을 바꾸어야 한다. 마을에 따라서는 부부가 함께 선정되어 제를 집행하기도 한다. 생기복덕은 마을사람 전체의 태어난 날과 시를 가려 제일과 맞추어 가장 잘 맞는 사람으로 가려 뽑는다.

제관 선출은 제를 올리기 전에 마을회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회의를 통하여 선정한다. 제관으로 선정되는 사람은 대개 마을의 장년층 이상이거나 '깨끗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뽑힌다. 집안에 아이들이나 젊은 여자가 없어서 피부정(월경과 출산) 등을 아예 피할 수 있는 조출하고 단출한 집안의 사람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평소 품행이 단정한 사람을 뽑는다.

#### 마을별 제주 현황

마을	제주	
오포읍	문형리	당주 1집, 소임 2집
	양벌1리	제관, 축관, 당주
	양벌3리	제의를 총괄하는 당주, 제물 등을 준비하고 심부름을 하는 화주, 축을 읽는 축관
	매산리	당주 1명과 당주를 도와서 제를 집행할 사람 2명
초월읍	도평리	당주, 화주, 축관
	신월리	상소임 3명, 나무소임 3명 등 6명
	서하리	당주, 도가, 세주, 화주
	무갑리	당주 부부, 축관 1명, 축관을 보좌하는 사람
중부면	엄미리	당주, 화주, 축관, 집사
	하번천리	부부 3쌍(산하주, 육산, 소산)
퇴촌면	우산리	당주, 헌관, 축관, 소임 4명
	관음리	제관 1명, 산제당 1명, 제수를 나르고 잡무를 하는 사람 2명, 축관 1명 등 도합 5명
	정지리	당주 2명, 비당주 2명

## 2) 제일 · 제비 · 제물

### (1) 제일

제일祭日은 대개 날을 정해 놓고 행하는 방식과 택일로 하는 방식으로 대별된다. 광주의 경우에도 날짜를 택일하는 경우와 정일에 하는 경우로 나뉜다. 택일은 생기복덕을 보아 굿은 날을 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초월읍 무갑리 같이 도당굿이 크게 이루어졌던 마을에서는 며칠 밤을 지새우며 거대한 놀이판을 벌이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며칠씩 굿이 펼쳐지는 영남의 별신굿 등에 비교된다.

제를 올리는 시각은 대개 저녁에 당에 올라 야간, 혹은 밤 12시를 전후하여 외부세계와 차단된 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통이나 장승제처럼 낮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제를 올리는 시간이 밤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지킴이를 모시는 과정이 인간이 활동하는 시각과는 동떨어진 성스런 시간임을 알려 준다. 그러나 차츰 굿이 약화되면서 밤에 지내던 것을 편의적으로 낮에 지내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원칙적으로 한밤에 제를 모시나 차츰 간편하게 변화하고 있는 조짐을 보여준다. 밤에 제를 지낸다고 하여도 낮에 일찍 올라가서 제당 청소를 하고 노구메를 짓는 등 제의준비를 하는 사례가 많다.

#### 마을별 제일 현황

마을	제일	비고	
오포읍	문형리	봄(음력 2월 초순)과 가을(9월 초승), 연 2회	소멸
	양벌1리	2년에 1회	그 전에는 연 1회
	양벌3리	산제는 2년에 1회 10월경 택일	
	매산리	음력 10월 1일 정일	복원 이후 정일로 변환되었음
초월읍	도평리	음력 10월 초하루 정일	
	쌍동리	음력 정월 초하루	정제
	신월리	정월 초나흘날 정일	
	서하리	음력 2월 초 6~7일경 택일	
	무갑리	2년에 1회	짝수년에는 없고 홀수년에 행함
중부면	엄미리	2년에 1회 음력 2월 초순 택일	
	하번천리	음력 10월 택일	
퇴촌면	우산리	2년에 1회	
	관음리	3~5년에 1회 음력 2월 초순이나 9월경 택일	
	원당리	2월 초순 택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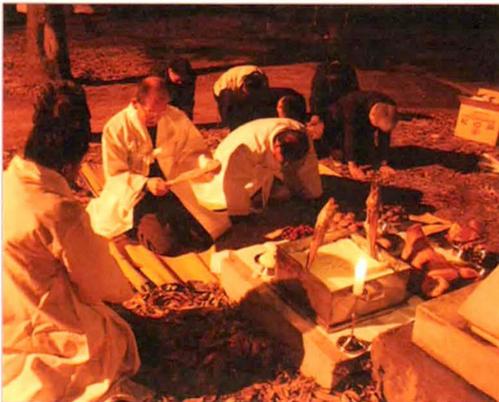
## (2) 제비

마을제사에 드는 제비祭費는 제물 마련, 제당 설치, 여타 잡비 등으로 나뉜다. 제물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이 지출되는 부분은 통소를 구입하여 제를 올릴 때이다. 고무장갑, 양푼, 장갑 등 소소한 잡비로부터 삼색실과와 떡 등의 제물 준비에 대부분의 비용이 들어간다. 마을주민들의 추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마을공동기금에서 쓰는 경우도 있다. 제비는 마을민의 대동참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을에 따라서는 각호마다 돈을 내어 통소를 잡아서 마을곳이 파한 후에 고기를 나누어 갖는 식으로 제비가 할당되기도 한다. 이 경우 제비 액수는 소 값에 따라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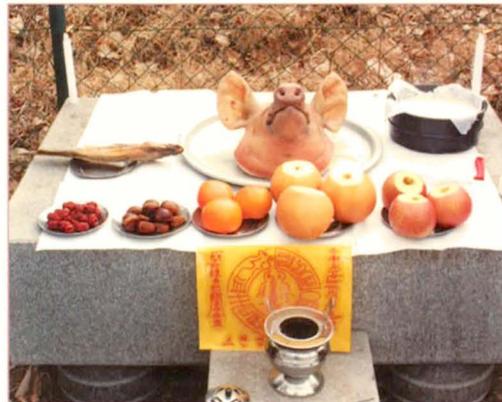
제물을 분배하는 것은 제물 자체를 나누어 먹는다는 차원을 넘어 제의적 공동참여라는 다른 뜻도 있다. 대개 제관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들이 모르는 야심한 밤에 조용히 산제를 올린다. 따라서 대부분의 마을주민들은 제의에 참관할 수 없다. 대신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몫을 나누어 주면서 신성한 제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실제로 그 제물을 먹음으로써 복을 받는다고 믿는다. 마을에 따라서는 회관에서 음복을 곁들여서 잔치를 벌이는 경우도 있다.

## (3) 제물

최근에는 구입해 온 물품을 제물祭物로 사용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원래는 생산 수확물을 올리는 것이었다. 대개 마을제사에서는 삼색실과와 탕, 떡, 술, 메, 육류나 어물, 포, 나물



초월읍 신월3리 산신제



퇴촌면 정지리 산신제 상차림

등이 기본을 이룬다. 이들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도 경건함을 갖춘다. 장에 나가 제물을 구입하는 일도 아무나 해서는 안 되며, 부정을 가려 제주들이 직접 사오거나 마을회의에서 깨끗한 사람을 선정하여 구입하도록 한다. 시장에 나가서도 물건 값을 깎지 않으며, 궂은일이 생긴 집에서 물건 구입하는 일을 피하고, 최상품을 사는 방식으로 금기를 지킨다. 일단 사온 제물도 정해진 사람의 집에서 정갈하게 준비해야 부정을 타지 않으며, 제수거리를 다듬는 물도 당우물을 사용하여 준비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술은 단술, 혹은 조라술이라 하여 정성스레 담가서 제일 전에 당집이나 신목 밑에 보관하여 잡스러운 일이 닥치지 못하도록 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메(밥)를 지을 때는 일반적인 술을 쓰지 않고 노구메라는 작은 메 짓는 술을 썼다. 노구라는 명칭 자체가 고래의 표현인 것으로 미루어 노구메를 짓는 행위는 가장 오래된 제의 행위의 하나로 여겨진다.

원당리의 경우, 제물 차림에서 육류는 절대 금기하는데 밤에 산에 올라가서 노구(메)를 지어 밥을 바치고 육류를 뺀 소찬으로만 제상을 차려 진설한다. 절을 하고 소지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비록 특별한 제의는 없지만 대단히 엄격하게 집행되며 신성스런 산이라 조금의 오차도 허락되지 않는다. 원당리의 경우, 제의의 원초성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원당리와 다르게 신월리처럼 생고기를 대대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신월리의 생고기를 늘어놓는 방식은 전국적으로도 많이 사라진 관행으로 여겨지며, 비정한다면 수렵사회의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다. 신월리에서 제를 지낼 때 소는 껍질까지 들고 올라간다. 제당 주변 나무에 소 껍질을 걸고 내장을 주렁주렁 걸어둔다. 소머리는 물론이고 소족, 각을 뜯 각 부위의 살, 간 같은 내장, 심지어 선지까지 바친다. 예전에 통소를 바치던 관습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며, 대단히 오랜 풍습으로 여겨진다. 전국적으로 볼 때, 이처럼 통소를 껍질까지 산에 바치는 경우는 현재로서는 매우 드문 경우이며 신월리의 풍습은 오랜 고제로 여겨진다.

### 3) 금기와 의례

#### (1) 금기

금기禁忌는 제의를 집행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몸가짐을 말한다. 당에 황토를 뿌려 출입을 금하고, 제관 선출 과정뿐 아니라 제관 자신의 행동도 일체 금기를 깨지 않도록 주의하고 금기주간을 설정하여 공동체 전부가 금기에 돌입한다.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은 부부관계를 금하는 등 금욕을 행하고 바깥출입도 삼간다. 쥐 같은 동물도 잡아서는 안 되며 초상집이나 병에 걸린 집, 출산한 집에 가셔도 안 된다. 집 앞에는 금줄을 두르고 황토를 펴서 잡스러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려한다. 마을 공동우물에도 금줄을 두르거나 뚜껑을 덮어 제를 지내고 나서야 먹게 된다. 제를 지내기 전에는 당을 깨끗이 청소해야 함은 물론이다.

만약 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마을곳의 영험이 떨어지고 제관 자신이 커다란 화를 입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은 오로지 마을 대동의 일을 위하여 고생을 감내해야 하는 탓이다. 비단 제관만 금기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금기에 돌입하여 공동우물을 청소하고 타동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 마을에 산기産氣가 있는 여자는 타동으로 보내거나 인근 피막避幕에 임시 거주하도록 배려하기도 한다.

제를 올리는 과정에서도 선정된 제관들만이 당에 오르거나 마을 주민들 중에서 깨끗한 사람들만 당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 금기를 어겨 신의 노여움으로 마을 전체가 커다란 액운에 빠져들었다는 식의 이야기가 자주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금기의 중요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광주에서 행해지는 금기는 다음과 같다.

- 제관 선정 과정에서 생기복덕을 보아 깨끗한 사람을 뽑는다.
- 제관으로 선정되면 부부생활, 외부 출입, 살생 등이 일절 금지된다.
- 제관뿐 아니라 마을 주민도 금기에 동참하여 가급적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외부인의 출입도 통제한다.
-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제관들은 찬 물로 씻어야 한다.
- 제물 준비는 정성을 다해야 하며 부정한 것이 개입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주 이외에는 제물 준비에 동참할 수 없다.
- 제관들은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으며 산에 올라가서도 말을 하지 않는다.
- 산에 있는 나무는 함부로 꺾을 수 없으며 부정을 타면 죽을 수도 있다.

## (2) 의례

의례儀禮는 제사의 본령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들 의례는 마을 신격의 종류, 마을마다의 오랜 전통, 같은 마을의 경우에도 요소요소마다 자리 잡고 있는 신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산신제는 여타 제의에 비하여 비의적秘儀的 요소가 강하다. 어두운 밤에 당주 1~2명이 참가하여 침묵 가운데 산신제를 올리고 조용히 내려오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볼 때 의례는 무당의 개입 여부, 유교식이냐 아니냐의 여부, 풍물의 개입 여부



초월읍 무갑리 산신제

등에 의해 다양하게 구분되나, 공통점은 어느 경우에도 의례의 주인공이 마을 민중들 자신이란 점이다. 광주의 경우, 풍물패가 주도하거나 무당이 주관하는 산신제는 없으며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생기복덕을 보아 일진이 맞는 제관이 선정되고, 선정된 제관은 일정한 금기를 거쳐서 산에 올라 제의를 집행한다. 대개 여성들은 제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남성들이 제를 주관한다. 그렇지만 도당제의 경우에는 무당이 개입한다. 무당 없이는 도당제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갑리의 산제는 유교식으로 매우 엄숙하면서도 소략하게 지낸다. 하지만 산제가 끝난 다음에 행하는 장승제는 거리굿답게 엄숙성이 떨어진다. 산제 이후에 행하는 도당굿은 단골과 화랭이들이 개입되며 줄타기 광대 등이 초청되어 흥겨운 잔치판을 벌인다.

어느 마을제사나 가장 중요한 의례 절차는 한지를 태우는 대동 소지(燒紙)와 개인 소지이다. 축문이 없는 마을제사에도 이들 소지만은 반드시 존재한다. 의례에 있어 대동 소지와 개인 소지는 절정에 해당한다. 유교식 축문이 준비되어 사람들이 알거나 모르거나 어려운 한자 투의 축문을 읽는 경우도 대단히 많으나, 그보다 마을주민들의 심성에 다가오는 것은 비나리로서 대동 소지와 개인 소지이다. 유교식 축문이 한문투성이라고 하여 반드시 그 내용이 비민중적인 것만은 아니다. 유교식 축문이라고는 해도 각각의 내용에는 마을의 안녕과 생업의 풍요 등을 비는 공동체의 염원이 잘 드러나는 것이다.

## 제5절 모두가 한마음 되는 해동화놀이

### 1. 해동화놀이의 분포와 의미

해동화놀이는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정월대보름 달맞이 의식인 동시에 새해를 예측豫祝하는 대동놀이의 성격을 띤다. 2008년 현재 광주시에서 해동화 및 동화놀이가 전승되는 마을은 18개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마을의 (해)동화는 대부분 예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계승한 것이지만, 몇몇 마을은 신설 또는 복원된 곳도 있다.

일찍이 광주지역의 해동화를 언급한 사람은 일제 관학자인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이다. 비록 해동화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의 향토오락』 광주군편에 실린 달맞이와 해동화놀이의 유래는 자못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월출을 먼저 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여 예부터 널리 행해졌다.…… ①마을에 따라서는 동네 근처의 달이 잘 보이는 곳에 싸리로 크게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축원문을 쓴 종이깃발을 세운다. ②어린이들은 따로 작은 햇불을 만들어 나이수대로 끈을 묶어 달이 뜰 때에 그 햇불을 들고 달에 절을 한다.

위의 자료에서 ①의 지적처럼 정월대보름에 화를 세우고 달이 뜰 때 불을 지르는 해동화의 전통이 당시에 매우 성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는 광주지역을 비롯한 경기도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전승되었던 달맞이 의례이다. 전자가 마을 차원의 달맞이 의식이라면, 후자는 개인별 혹은 각 가정별로 복을 빌고 건강을 축원하는 달맞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도 동화를 불사르는 마을에서는 ‘액매기厄賣旗’, ‘영복기迎福旗’, ‘화덕진군소멸火德陳軍消滅,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가가호호 화재예방’ 등 명칭은 다르지만 축원문을 쓴 깃발을 한지로 만들어서 화 꼭대기에 꽂는 전통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지역의 해동화 성격을 이해함에 있어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화를 만드는 재료가 싸리 나무라는 점이다. 해동화가 달집태우기와 유사한 대보름 민속임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확연히 구분 짓는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달집태우기의 주재료는 청솔가지이다. 솔가지를 사용하여 이른바 ‘달집’으로 불리는 나뭇단을 원추형으로 쌓아놓고 불을 지른다. 이때 솔가지에서 많은 연기가 나는데, 이는 달을 불에 그슬려야 가뭄이 들지 않고 풍년이 온다는 속신에 따른 것이다. 반면 (해)동화는 화를 높게 세우고 불사른다. 그 속에는 ‘달집’이란 개념이 없다. 재료도 솔가지가 아니라 싸리나무를 쓴다. 싸리나무는 연기가 거의 나지 않아 달을 불에

그슬린다는 관념이 없다. 요컨대 달집태우기는 ‘우순풍조(雨順風調)’의 성격이 더 농후한 반면, 해동화는 역질 소멸과 화재 예방 등 제액초복의 성격이 한층 강하다. 물론 이면에는 모두 두 가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만, 해동화를 달집태우기와 동일한 민속으로 인식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해동화 및 동화놀이 전승마을 현황**

연번	명칭	소재지	날짜(음)	횟수량	화목원료	묶는재료	비고
1	해동화놀이	중부면 광지원리	1. 15	1(본래 3)	싸리나무(잡목)	참근(동아줄)	지속
2	영월제	중부면 산성리	1. 15	1	짚	동아줄	신설
3	지신밧기	중부면 불당리			짚, 역새풀	새끼줄	복원
4	쥐불놀이	남종면 분원리	1. 15	1	잡목	동아줄	지속
5	달맞이	퇴촌면 정지리	1. 15	1	잡목, 짚	새끼줄	신설
6	동화놀이	초월읍 쌍동1리	1. 15	1	싸리나무(잡목)	참근	지속
7	동화놀이	초월읍 학동1리	1. 15	2	싸리나무	참근	지속
8	동화놀이	초월읍 학동2리	1. 15	2	싸리나무	참근	지속
9	해동화놀이	초월읍 선동1리	1. 15	2	싸리나무	참근	지속
10	동화놀이	초월읍 선동2리	1. 15	2	싸리나무	참근	지속
11	동화놀이	초월읍 도명1리	1. 15	1(본래 2)	싸리나무	참근	지속
12	동화놀이	초월읍 신월1리	1. 15	2	싸리나무	참근	지속
13	동화놀이	초월읍 신월3리	1. 15	2	싸리나무	참근	지속
14	해동화놀이	초월읍 대쌍령1리	1. 15		싸리나무(잡목)		복원
15	해동화놀이	초월읍 용수리	1. 15	1	싸리나무	참근	신설
16	동화놀이	도척면 추곡리	1. 15	1	싸리나무(잡목)	동아줄	지속
17	봉화제	도척면 도웅1리	1. 15	1(본래 2)	싸리나무	동아줄	복원
18	동화놀이	오포읍 양벌2리	1. 15	1	짚	동아줄	지속

## 2. 대표 사례 : 광지원리 해동화놀이

### 1) 해동화놀이의 유래

광지원리 해동화놀이는 200~400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에서 구전되는 유래에 따르면, “옛날에 돌림병이 창궐하여 온 마을이 근심에 잠겨 있을 때 백발노인이 현몽

하여 호당 쉼나무 세 매씩 준비하여 정월 보름달이 떠오를 때 불을 살라 태워 없으면 무탈할 것이다”라고 일러준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해동화놀이의 유래를 언급한 자료는 그 시기와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주요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동리에 전해지는 구전에는 이 해동화놀이의 유래는 약 200여 년 전에 이 동리에 마매(천연두)나 장질부사 등의 역질이 돌아 온 동리가 병고에 시달리고 있을 때 강표(姜杓)라는 노인의 꿈에 신령이 나타나 각 집마다 나뭇단을 모아 그것을 엮어서 쉼을 만들고 그것에 불을 놓고 제를 올리면 병이 치유된다고 하여 그때부터 매년 정월 보름날 밤에 이 의식이 이루어졌다고 한다.<sup>1)</sup>

② 해동화란 명칭은 동리의 화(禍)를 풀어버린다는 뜻에서 '해동화(解凍禍)'라고 하고, 겨우내 얼었던 것을 녹인다고 하여 '해동화(解凍火)'라고도 한다. 마을에 전하는 전설에 따르면 200여 년 전에 마을에 질병이 돌고 있을 때 강표라는 노인의 꿈에 신이 나타나서 각 집마다 나뭇단을 모아서 불을 놓고 제사를 올리면 병이 치유된다고 하여 그때부터 매년 정월 보름날 밤에 '해동화 세우기'를 시작했다고 한다.<sup>2)</sup>

③ 약 300여 년 전에 이 마을에는 7가구가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그때 마마와 같은 돌림병이 마을에 전염되고 있었다. 그때 마을의 어느 노인, 때로는 진주강씨의 후손인 강표라고 전하기도 하는데, 그 노인의 꿈에 신령스런 백발노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각 집마다 쉼나무(낮으로 벨 수 있는 뿔나무)를 모아 세 묶음씩 동아줄로 묶어서 쌓아놓고 원(院)집 앞 연못에 달빛이 비출 때 태우면서 제를 지내면 전염병이 치유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7가구의 사람들은 각 집이 세 묶음씩 준비해서 모두 스물 한 묶음을 동아줄로 단단히 둘러매고 그 나뭇단을 세워놓고 불사르면서 제를 지냈더니 정말 마을에 돌림병이 사라지게 되었다.”<sup>3)</sup>

④ 해동화(解凍火)놀이의 유래는 조선 선조 37년(1604) 마을에 돌림병이 돌기 시작하더니 농사도 흉년이 들고 온 마을이 근심에 쌓여 있을 때 마을 사람의 꿈에 신령님이 나타나서 현몽하기를, “집집마다 쉼나무 한 짐씩을 모아 21줄의 동아줄로 묶어 세웠다가 원 앞의 연못에 달이 비칠 때에 위에서부터 불을 붙여 완전히 태우고,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햇불을 만들어 달님에게 절을 하되, 때는 정월 대보름날이 가장 좋다” 하고 사라졌다고 한다. 그래서 정월대보름에 그대로 시행하였더니 돌림병도 사라지고 농사도 풍년이 들어 마을이 편안하게 발전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시행하고 있다.<sup>4)</sup>

⑤ 약 400여 년 전에 돌림병이 돌고 흉년이 겹치면서 마을이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을 때, 마을에 은씨

1) 광주군지편찬위원회, 『광주군지』, 1990, 831쪽.

2) 광주군·기전문화재단연구원,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95-96쪽; 국립문화재연구소, 『경기도 세시풍속』, 2001, 71쪽.

3) 경기도박물관, 『경기민속지』, 2000, 326쪽.

4) 광주문화원, 『광주의 지명유래』, 2005, 444-445쪽.

성을 가진 삼형제가 살고 있었다. 세 사람 모두의 꿈에 신령님이 나타나서 “각 집에서 나무를 한 짐씩 내고 그것을 모아 숲을 만들어 정월대보름날 달이 뜰 때 위에서 불을 붙이고 정성을 다한 음식을 장만하여 제를 올리면 모든 재앙이 사라질 것이며, 이러한 제를 매년 행하면 마을이 번창하고 화목한 마을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그해 신령님의 계시대로 제를 올렸더니 바로 돌림병이 사라지고 풍년이 들었으며 이듬해엔 7호의 작은 촌락에서 21호의 마을로 발전했고, 매년 3~4호씩 늘어났다. 행사 이름인 해동화는 마을의 근심 걱정을 덜어주고 어려움을 모두 해결해 준다는 뜻의 ‘해동화(解洞火)’라고 명명하게 되었다.<sup>5)</sup>

공통적으로 해동화의 유래는 돌림병의 창궐과 긴밀한 관련이 있고, 이를 물리치기 위한 처방은 신령의 계시대로 정월대보름에 동화를 세우고 불을 태우는 것이었다. 과연 효험이 있어 마을이 안정을 되찾으니 이후에는 해마다 해동화놀이를 지속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역질과 관련된 유래담은 우리나라의 동제 및 정월대보름 동화洞火의 연기설화 중에서 가장 비근하게 회자되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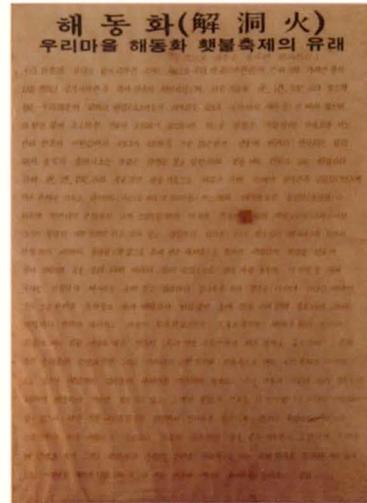
그런데 광지원리 해동화놀이의 유래에 대하여 논란이 분분한 것은 신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과연 자료 ①~③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강표라는 노인인가 하는 점이다. 이를 해명하는 일은 해동화의 성립시기를 추적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광지원리에서 오래 거주한 대다수 주민들의 증언은 이와는 사뭇 다르다. 즉, 해동화놀이는 은씨가 터를 잡은 이래 일곱 집이 작은 마을을 형성하였을 때 처음 시작되었고, 꿈에서 신령의 계시를 받은 노인은 강표가 아니라 자료 ⑤에 언급된 은씨 3형제로 회자된다. 따라서 진주강씨가 입향하기 이전에 이미 해동화놀이는 유래되었다는 것이다.

해동화놀이의 전설에 꿈을 꾸 사람이 강표라는 노인으로 얘기되는 것은 강○천 씨에 의해서입니다. 그 분이 광지원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나 하면 강표라는 분은 강○천 씨의 직계 선조인데, 기왕이면 해동화놀이의 정통성을 진주강씨로 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 광지원리는 진주강씨 집성촌이니까. 그래서 해동화놀이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던 강○석 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지금은 두 분 모두 돌아가셨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닌 거죠.<sup>6)</sup>

강표라는 노인이 꿈에 신령의 계시를 받았다는 설은 이렇게 해서 유포된 것이다. 40여 년 전에 마을주민 고 강관석 씨가 작성한 다음의 자료는 해동화놀이의 역사와 성격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5) 강병학(1958, 중부면 광지원리, 남, 이장)이 조부인 강은석(1901~1968)과 고 강관석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6) 광지원리에서 해동화놀이를 주관하고 있는 강병학 이장이 제보하였다(2009년 1월 20일).

은씨가 정착한 후 일곱 집(7호)이 작은 촌락을 이루고 살 때에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쯤) 어느 해에 예기치 못한 돌림병(전염병)이 마을에 만연되어 온 마을이 크게 근심중일 때에 이 마을 한 노인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시어 하시는 말씀이 너무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집집마다 쉼나무(낮으로 벨 수 있는 뿔나무)를 모아서 한 집마다 세 매씩 동아줄(벚짚으로 굵게 만든 새끼줄)로 묶어서 세웠다가 원집 앞 연못에 달이 비출 때 불을 살라 태워버리라 일러 주었으므로 마을 사람 모두가 이 마을을 지켜주시는 신령님의 계시라고 굳게 믿고 집집마다 쉼 나무를 모아 정성을 다하여 한 집 당 세 매씩 모두 스물한 번을 동아줄로 묶어 세웠다가 원집 앞 연못에 달이 비취일 때 불을 다려(당겨) 태워버렸더니 병마가 사라지고 마을이 무사하였으므로 그 후로부터는 새해가 되어 첫 번째 만월이 되는 정월 대보름날을 정하여 우리 마을 수호신에게 지난 음덕도 감사하며 그 한 해 동안 온 마을에 안녕과 풍년, 그리고 저마다의 소원 성취를 마음 속으로 비는 신앙축제로 이어져오고 있으나 옛날에는 집 호수에 세 매기를 계산하여 묶었다고 하나 마을이 커짐에 따라 집 호수에 세 매씩 계산하여 여러 번 묶을 수도 없고 그 옛날 원집과 연못도 다 없어졌으므로 지금은 옛날대로는 할 수 없으나 매년 정월대보름날이면 집집에서 쉼나무를 모아가다 맨 처음 묶었다는 수효대로 스물한 번을 묶어 세웠다가 보름달이 마을에 비칠 때 불을 살라 태우면서 그 한 해에 온 마을에 안녕과 풍년, 그리고 저마다의 간직한 소원을 마음속으로 비는 축제행사로 행하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 햇불을 해동화(解洞火)라 함은 마을의 재액을 풀어주는 불이라는 말임.<sup>7)</sup>



40여 년 전 강관석이 작성한 광지원리 해동화놀이의 유래

이상의 자료를 검토해볼 때 해동화놀이는 진주강씨가 입향하기 이전인 17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진주강씨가 광지원리로 정착한 것은 대체로 17세기 후반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지원리 해동화놀이는 최소한 350년 전에 형성된 정월대보름 민속으로 추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자료 ④에 제시된 것처럼 1604년에 해동화놀이를 시작했다는 설은 전혀 근거가 없어 차체에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립시기와 더불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또 다른 문제는 명칭이다. 그동안 각 자료마다 해동화의 한자를 ‘解洞福’, ‘海冬火’, ‘解洞火’, ‘解凍福’, ‘解凍火’, ‘解冬火’ 등으로 조금씩 다르게 썼다. 이처럼 다양한 뜻으로 풀이되는 까닭은 일찍이 해동화놀이를 주목한 조사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견강부회(牽強附會)된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후의 조사자들 대부분이 이를 무

7) 해동화 유래기는 고 강관석(1923~?)이 약 40여 년 전에 ‘우리마을 해동화 햇불축제’란 이름으로 기록한 것인데, 현재 강병하 이장이 소장하고 있다.

비판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오류는 1990년에 편찬된 『광주군지』 민속과 전설편 서술에서 부터 비롯되었다. 당시에 조사자는 해동화의 뜻을 설명하면서 해동화놀이의 명칭을 ‘海洞禍·海凍火’로 명기하고, ‘겨우내 얼었던 것을 녹인다’라는 뜻의 ‘海冬火’로 귀결 지었다. 그리고 이후에 편찬된 자료들은 거의가 이 견해를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전제하여 소개한 까닭에 다양한 명칭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동화洞火’란 그 자구字句와 같이 ‘동네불’을 뜻한다. 실제 동화제가 집중적으로 분포한 충남 칠갑산 주변의 청양군 정산면과 부여군 은산면·내산면 일대에서는 한결같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광주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동화·해동화란 명칭이 일반적인데, 해동화란 ‘동화로 액운을 풀어 없앤다’ 또는 ‘마을의 재액을 풀어주는 불’이란 의미의 ‘해동화解洞火’가 본디 뜻이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광지원리에서 제작한 홍보물에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40여 년 전에 고 강관석이 작성한 ‘우리마을 해동화 햇불축제의 유래’에도 기록되어 있다.

## 2) 준비 및 전개 과정<sup>8)</sup>

광지원리 해동화놀이는 본래 자연마을별로 거행되어 안말·바깥말·섬말이 각각 동화를 세우고 불을 질렀다. 일제강점기에는 화제를 문제 삼아 관에서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지만, 마을에서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맥을 이어왔다. 예전에는 화가 커야 효험이 있다고 하여 3개 마을의 청장년들은 서로 동화를 크게 만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약 40년 전부터는 바깥말 앞전들에서 광지원리 전체가 합동으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향을 등지는 젊은이들이 크게 늘면서 동화를 만드는 일이 여의치 않아졌기 때문이다.

해동화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초부터 보름까지 마을에서 출산과 초상 등 부정한 일이 없어야 한다. 만일 행사를 앞두고 아이를 낳으면 그 집은 땔나무를 넣지 않고, 상중인 가정 역시 땔나무 각출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행사를 마칠 때까지 해동화 근처에는 얼씬거리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

해동화 준비는 12월에 열리는 광지원리 대동결산에서 사실상 시작된다. 대동회의는 마을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한자리에 모여 지난해의 수입·지출을 결산한 다음 새해에 예정된 주요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 자리에서 이장이 해동화놀이의 개략적인 계획 및 행사

8) 이하 원고내용은 2008년 2월 21~22일 정월대보름 참관조사 및 2009년 1월 13일 보충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내용, 비용 등을 보고하면 마을의 구성원들이 심의 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예전에는 비용을 당일 아침에 마을에서 돼지를 잡아 주민들에게 판매하여 충당했다. 요즘에는 해동화에 필요한 기금은 1,500만 원 내외가 소요된다. 그중 시에서 300만 원, 2007년부터는 농협에서 300만 원을 각각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 비용은 마을의 공동기금과 찬조금으로



광지원리 해동화놀이 진설(2008)

충당한다. 이처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에서 각설이패를 초청하는 등 다채로운 식전행사를 펼치기 때문이다. 마을에서는 해동화놀이를 현대적으로 승화시켜 광주를 대표하는 마을축제로 발전시키고 있다.

제관은 집안에 굶은 일이 없고 나이가 지긋한 상노인 중에서 생기복덕을 따져서 선정했으나 지금은 단지 부정만 가려서 선출한다. 제관으로 선정되면 며칠 전부터 매일 목욕재계하고 외출을 삼간 채 정성을 드린다. 그러나 대문 앞에 금줄을 치거나 황토를 퍼지는 않는다. 제물은 기제사와 대동소이하다. 2008년의 경우 돼지머리, 팔시루떡, 전(두부전·명태전 등), 조기 5, 포 5, 통복어, 돼지갈비, 나물 세가지(숙주나물·고사리·시금치), 탕, 간장, 과일(대추·밤·감·사과·배·수박·바나나), 산자, 과자, 술 등이 진설되었다.

해동화놀이는 마을의 자치조직인 청장년회·부녀회·노인회가 주축이 되어 제반 준비를 도맡아 한다. 청장년회는 30대부터 60세 미만의 청장년층 60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객지에서 거주하는 회원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화를 만들고 세우는 날은 고향을 방문하여 적극 동참한다. 여기에 해동화의 경험이 풍부한 노인층은 화를 엮을 동아줄 꼬기, 땀나무 준비 및 기타 허드렛일을 담당하고, 부녀회원은 행사 당일에 술선수법하여 음식을 준비한다.

해동화를 만들고 세우는 일은 온 마을 사람들의 정성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화를 엮는데 필요한 땀나무는 집집마다 3단씩을 추렴한다. 만일 땀감을 내지 못하는 가정은 술을 부담한다.

본래 해동화는 정월 14일 아침에 집집마다 땀나무를 가져와서 화를 엮고, 오후에 화를 세우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객지로 나가 있는 청장년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정월대보름 직전의 일요일을 택해 화를 세운다. 2008년 정월대보름에 준비된 해동화의



완성된 광지원리 해동화(2008)

규모는 높이 약 9m, 둘레는 8.6m였다. 화를 얹는데 필요한 화목은 참나무나 잡목을 주로 사용하되 솔가지는 금지된다. 예전에는 잡목을 일절 섞지 않고 오직 싸리나무만을 채취하여 동화를 엮었다고 한다. 싸리나무는 청결하고 화력이 좋은 데다 불이 맑아 멀리까지 불꽃이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해동화는 짚으로 꼰 동아줄<sup>9)</sup> 21가닥을 바닥에 깔 다음 그 위에 나뭇단

을 놓고 엮는데, 이는 해동화 유래에 등장하는 것처럼 맨 처음 21매로 엮었던 관행에 따른 것이다. 동화가 완성되면 수십 명의 주민들이 지주목으로 동화를 일으켜 세우는데, 2년 전부터는 포클레인 2대를 동원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작업을 한다. 이때 동화 상단에는 동쪽으로 밧줄 2개를 묶어 쓰러질 방향에 미리 대비한다. 아울러 해동화 주변에는 10여 개의 크고 작은 버팀목을 설치하여 고정시켜둔다. 또한 해동화 하단에는 새끼줄을 길게 늘어뜨려 행사에 참여한 주민과 아이들이 새해의 소망을 적은 축원문을 끼우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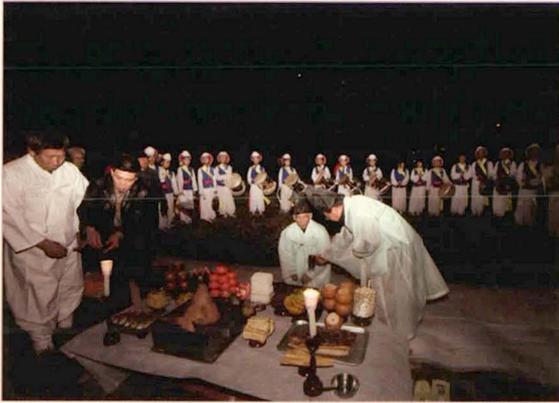
동화를 세우고 나면 주민들은 척사대회를 벌이며 정월대보름을 즐긴다. 최근에는 해동화 놀이를 축제로 승화시켜 진행하고 있다. 오후에는 각설이타령, 초청밴드 공연을 비롯, 식전 행사로 광지원초등학교 어린이농악, 어린이 밸리댄스, 광주중앙고등학교 광지원농악 등이 잇따라 진행된다. 행사장 주변에는 살수차를 대기시켜 놓고 방제연습을 하는데, 만일에 일어날지도 모를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달이 어두워지면 아이들은 불깡통을 돌리며 쥐불놀이를 시작하고 해동화 앞의 제상에는 제물이 진설된다. 도포를 입고 유건을 쓴 제관 3명은 달이 뜨기를 기다린다. 예전에는 이맘때쯤 마을 동쪽 장작산 날망으로 한 사람이 올라가서 달이 솟아오르는 것을 살피다가 햇불로 신호를 보내면 점화를 했다고 한다. 해동화에 불을 지르는 사람은 지난해 혼인을 했거나 아들을 낳은 주민이 맡되, 집안에 부정한 일이 없고 운수가 좋은 다복한 가정이라야 그 자격을 갖출 수 있었다. 점화자는 그해 운수가 좋다는 속설에 따라 예전에는 서로 다투어 자원을 했

9) 본래 화를 얹는 동아줄은 짚끈을 주로 사용했다. 짚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짚보다 단단하여 잘 풀어지지 않기 때문이었다.



2008년 광지원리 해동화놀이 식전 이모저모. ① 살수차의 방제연습 ② 축원문 꽃기 ③ 나무썰매 체험 ④ 각설이타령  
⑤ 광지원초등학교 어린이농악 ⑥ 어린이 밸리댄스 ⑦ 광주중앙고등학교 광지원농악 ⑧ 쥐불놀이



혜 앞에 제물을 진설하고 달이 뜨기를 기다린다(2008)



달이 보이면 횃불을 점화한다(2008)



액운을 쫓는 풍물패의 축원(2008)



활활 타오르는 해동화(2008)

으며, 으레 마을 사람들에게 술을 희사하는 것이 관례였다.

예전에는 밧줄을 타고 해동화 꼭대기로 올라가서 불을 지켰으나 자칫 위험할 수 있어 2008년부터는 기중기를 타고 접근하여 불을 지른다. 해동화가 타오르면 제관은 유교식 절차에 의해 분향-강신-헌작-독축 등의 순으로 마을의 안녕과 무사태평을 축원하는 동화제를 지낸다.

이어 행사에 참석한 내빈과 치성을 드리고 싶은 주민들은 돼지머리에 돈을 꿏고 차례로 헌작한 다음 절을 한다. 이 무렵 주변에서는 아이들이 미리 준비해둔 싸리나무화에 불을 붙여 보름달을 향해 “달님! 절합니다. 명복을 주세요” 하며 연신 절을 하고 새해의 소원을 빈다. 싸리나무화는 나이수대로 매듭을 묶는데, 횃불이 다 타면 땅바닥에 놓고 세 번을 뛰어 넘는다. 예전에는 정초에 신수점을 보아 삼재가 들었거나 액운이 낀 사람은 동정을 떼어서 해동화에 태우기도 했다.

제를 마치면 풍물패가 횃불 주위를 돌며 마을에 깃든 모든 액운이 해동화와 함께 소멸되기를 축원한다. 근래에는 농악을 칠 주민이 없어 광지원농악을 계승한 광주중앙고 풍물패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풍물놀이는 화가 다 탈 때까지 계속되는데, 동쪽으로 화가 넘어져야 풍년이 들고 액운이 없으며, 마을이 있는 서쪽으로 쓰러지면 흉사의 조짐으로 여긴다. 따라서 화가 쓰러질 무렵이 되면 사전에 동쪽으로 걸어놓은 밧줄을 잡아당기고 또 바깥에 고인 버팀목을 빼내어 동쪽으로 화가 넘어지도록 유도를 한다.

해동화가 소각되면 풍물패들은 지신밟기의 일종인 ‘소몰이놀이’를 한다.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액운이 없기를 축원하는 의례인데, 지신밟기처럼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문 앞에서 한바탕 풍장을 울리며 놀아주는 것이 특징이다. 각 가정에서는 대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풍물패가 도착하면 술상을 차려오고, 형편이 넉넉한 가정에서는 쌀과 돈을 내놓았다. 소몰이놀이는 농기를 앞세우고 안말을 시작으로 바깥말-섬말을 차례로 한 바퀴 돌되 변두리에 위치한 집부터 방문하여 축원을 해준다. 그리고 다시 해동화를 세운 장소로 와서 해산을 한다. 하지만 이 놀이는 수년 전에 중단되었다. 해동화놀이를 마치면 이튿날 이장을 비롯한 마을의 임원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결산을 한다.

## 제6절 충의의 전통을 기리는 선현 추모 제향

### 1. 충의의 고장, 광주

광주는 한강유역에 자리 잡고 있어 일찍이 삼국의 다툼이 치열했던 지역이다. 초기 한성시대의 백제가 도읍한 곳이며,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주장성(남한산성)을 쌓은 곳이다. 또한 13세기에 몽골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 남한산성에서 물리친 바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청의 침략에 맞서 인조가 마지막까지 항전한 곳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구한말에는 의병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남한산성에서 서울 진공 작전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일제가 이곳을 두려워 해 성 안의 무기고를 폭파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광주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천혜의 요새인 남한산성이 속한 곳이며, 특히 조선시대에는 도성 한양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양주, 파주,

용인, 고양과 함께 손꼽히는 명문거족의 고장이자 충의가 넘치는 지역이었다.

선현들의 이러한 충의는 현재도 광주 유림을 중심으로 하여 추모되고 있다. 백제의 시조 온조왕을 기리는 승렬전 제향과 병자호란 때의 삼학사인 홍익한(洪翼漢)·윤집(尹集)·오달제(吳達濟)와 척화파의 대표 인물인 김상헌(金尙憲)·정온(鄭溫) 등 5위를 배향한 현절사 제향은 시의 향토문화유산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매년 추모 제향을 하고 있다.

또한 병자호란 쌍령전투에서 전사한 선세강(宣世綱)·허완(許完)·민영(閔楬)·이의배(李義培) 등을 추모하는 정충묘 제향과 조선 세종 때 집현전에 재직하면서 각종 편찬사업과 훈민정음 창제에 큰 공을 세운 태허정 최항(崔恒), 병자호란 때 청에 볼모로 잡혀 간 소현세자의 호종을 자청하여 심양에 갔다가 목숨을 잃은 충정공 정뇌경(鄭雷卿), 그리고 해방 전후시기에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로 큰 족적을 남긴 해공 신익희(申翼熙)의 추모 제향을 매년 광주문화원과 광주유도회가 중심이 되어 거행하고 있다.

## 2. 전례 양식과 사례

### 1) 제사 구분

『국조오례(國朝五禮儀)』<sup>10)</sup> 규정에 의하면 제사는 크게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로 구분된다.<sup>11)</sup> 숭배 대상을 기준으로 천신(天神)에 대한 전례는 사(祀), 지기(地祇)(지신)에 지내는 제사는 제(祭), 인귀(人鬼)에게 지내는 전례는 향(享)이라고 한다.<sup>12)</sup>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전례의 대상으로는 우주의 중심인 하늘과 땅을 비롯하여 풍운뇌우, 명산대천 등 자연신에 대한 전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이 자연의 영향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필연적이다. 인간사회가 점차 발전하여 외경의 대상이었던 자연을 활용하며 조화하는 시기에 접어들고, 사상적으로는 유교의 합리적인 사고를 수용하면서 농경과 깊은 관

10) 조선시대 오례(五禮)의 예법과 절차에 관하여 기록한 책으로 세종 때 시작되어 1474년(성종 5) 신숙주 등에 의해 완성되었다. 『국조오례의』는 다섯 종류의 의례적 사항에 대한 것을 규정한 예전(禮典)으로 길례(吉禮)·가례(嘉禮)·군례(軍禮)·빈례(賓禮)·흉례(凶禮)의 순으로 편술되어 있다.

11) 기고제(祈告祭)·주현제(州縣祭)·속제(俗祭)로 구분할 수도 있다.

12)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권1 길례 변사(辨祀) 편. 제사의 성격상 양사(讓謝)의 제사는 별도로 구분하여 잡사(雜祀)라 하였으며 『국조오례의』는 이들 잡사를 제외한 일반제사에서 각종 의식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련이 있는 전례를 제외한 일반적인 전례는 대부분 음사(淫祀)로 정리된다.<sup>13)</sup>

『국조오례의』를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대사는 조선시대에 국왕이 친히 지내던 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원구단(圓丘壇)·사직단(社稷壇) 전례이다.<sup>14)</sup>

중사는 국가에서 지내던 대사 다음가는 전례로 대사보다 의식이 간단하다. 바람·구름·우뢰·비를 맡은 풍운뇌우, 산악·바다·강을 말하는 악해독(岳海瀆), 농업을 주관하는 신농씨를 제사하는 선농(先農), 양잠에 관한 선잠(先蠶), 기우제인 우사(雩祀), 성군관과 향교에 모신 공자의 사당인 문선왕묘(文宣王廟), 그리고 역대 시조의 신위를 모신 역대시조묘의 전례 등이다.

소사는 국가에서 지내던 소규모의 전례로 마보(馬步)·마사(馬社)·마조(馬祖)·선목(先牧)·사한(司寒)·영성(靈星)·노인성제(老人星祭)·독제(蠶祭)·마제(禱祭)·여제(厲祭), 그리고 주현(州縣)의 문묘·선농·사직제(社稷祭) 등이다.

대사·중사·소사의 기준으로 전례를 구분하면 승렬전 전례는 중사로 역대 시조(始祖)에게 지내는 전례이며, 현절사와 정충묘 등 나머지 전례는 소사로 주현의 상시제(常時祭)에 해당된다. 비록 중사와 소사의 차이는 단순하고 작은 절차의 차이지만 이로 인해 제수(祭需)와 제기(祭器), 복식(服飾)과 제관(祭官)의 규모가 변하는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 차이를 다루지는 않았다. 실제로 각 전례 간의 차이는 매우 전문적이며 세세한 부분이다. 반면 이 글은 선현에 대한 유교식 추모 제향을 개략적으로 살피고 이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에 중사인 승렬전 전례를 하나의 사례로 제시하는 것이며, 다른 전례는 다소간 차이가 있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 (2) 승렬전 전례

### (1) 전례 개황

승렬전은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중부면 산성리 남한산성 안에 있다. 1972년 5월 4일에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고, 승렬전 전례는 2008년 4월 21일에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되었다.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에 의하면 길례(吉禮)에는 행례(行禮)를 행하는 날짜가 일정하

13) 일상생활이나 농사와 연관되는 제사는 높여서 중사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소사로 구분하게 된다. 한밭이나 홍수 등과 같은 국가적인 천재지변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내는 기양제(祈禳祭)도 대폭 정리된다.

14) 국사(國祀) 또는 상사(上祀)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게 정해져 있는 상일제사常日祭祀와 일정한 날짜를 정하지 않은 무상일제사無常日祭祀가 있다. 승렬전 행례는 본래 시일時日이 일정하게 규정되지 않는 무상일제사로 매년 중춘仲春과 중추仲秋 즉, 봄과 가을의 가운데 달에 봉행됐다.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재정財政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매년 음력 9월 5일에 추향秋享으로 봉행하고 있으며, 매월 음력 1일에 진행되는 삭분향朔焚香은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국조오례의서례』에 따라 제관은 관찰사가 헌관獻官을 담당하고, 축祝은 교수教授가 담당하며, 장찬자掌饌者 이하 집준자執樽者, 집사자執事者, 찬자贊者, 알자謁者의 직분은 광주廣州의 학생學生으로 선발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광주시장이 헌례獻禮의 중심인 초헌관을 담당하고 제관과 제집사는 광주의 유생들이 역할을 분정分定하고 있다. 행례의 주관자인 헌관이 옛날의 관찰사격인 도지사에서 광주시의 자치단체장인 시장으로 바뀐 것 이외에는 기본적인 변화는 없다. 제수祭需는 중사의 규정에 따라서 8변8두八籩八豆이다. 변두籩豆의 찬품饌品은 시절에 따라 변화해 왔겠지만 기본적인 형식은 변하지 않았다. 행례 시 악무樂舞를 사용하는 규정은 없지만 현재는 음향기기를 이용하여 전통음악을 보조하기도 한다. 『국조오례의서례』를 기준으로 조선시대와 현재의 승렬전 전례를 비교하면 표와 같다.

**조선시대와 현재의 전례 비교**

구분	조선시대	현재	비고
예우	치제致祭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대상	온조왕, 완풍부원군 이서	온조왕, 완풍부원군 이서	
규모	중사中祀	중사中祀	
시일	무상시제無常時祭, 매년 중춘仲春·중추仲秋	상시제常時祭, 음력 9월 5일	
제수	10변10두 또는 8변8두	10변10두 또는 8변8두	불변
배차	소목昭穆	소목昭穆	
제관	경기도관찰사	경기도지사, 광주시장	
성격	추모제향	추모제향	
음악	불용不用	사용使用	

**(2) 행례 절차**

승렬전 전례는 예전의식禮前儀式, 행례行禮, 예후의식禮後儀式의 3단계로 진행된다. 그중 행례는 헌관이 삼상향三上香을 하고 폐백幣帛을 올리는 절차, 술잔을 올리는 헌례獻禮 절차, 음

복(福)을 하고 축(祝)과 폐백(幣帛)을 태우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분향에 쓰일 향(香)과 헌(獻)례에 낭독될 축문(祝文)을 전(傳)하는 전향축례(傳香祝禮)는 현재 진행되지 않으며, 제찬의 진설 행사는 행사일 행례 전에 진행된다. 행례는 오전 11시 정각에 집례의 집전(執典)에 따라 진행된다. 행례의 진행은 집례가 한문으로 작성된 홀기(笏記)를 읽으면서 진행된다. 홀기는 행례의 진행 절차를 기록한 일종의 규정집으로 역대 참봉이 후대 참봉에게 전수한 것이다. 『국조오례의』 홀기 규정은 오랜 세월동안 행례장소인 전례공간에 맞게 내용의 일부가 변용되면서 정착 되었다. 현재 승렬전에서 행해지는 전례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전절차 → 입취위(入就位)(제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관들이 정해진 자리에 배치되는 절차) → 전폐례(奠幣禮)(향을 피우고 폐백을 올리는 순서) → 헌례(獻禮)(헌관이 술을 올리는 절차) → 음복례(飲福禮)(헌관이 음복잔을 마시는 절차) → 철변두(撤邊豆)(제상에 놓인 제수를 거두는 절차) → 망료례(望燎禮)(제례에 쓰인 축문과 폐백을 태우는 절차) → 예후절차

#### 승렬전 전례의 세부절차

시간	대절차	세부절차	내용	담당	
09:00 ~ 11:00	예전의식 禮前儀式	진설陳設	제수를 제상에 진열하는 절차	참봉	
		환복換服	헌관과 집사가 예복을 입는 절차	여성유도회	
		입취위入就位	행례를 시작하기 전에 제관·제집사들이 정해진 자리에 나아가는 절차	알자	
11:00 ~ 12:00	행례行禮	청행사講行事	알자가 행사의 시작을 헌관에게 고하는 절차	알자	
		전폐례 奠幣禮	관세盥洗	행례 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절차	초헌관
			삼상향三上香	향을 세 번 살라 의식을 신위에 알리는 절차	초헌관
			헌폐獻幣	폐백을 신위전에 올리는 절차	초헌관, 축관
		헌례獻禮	초헌初獻	초헌관이 첫 번째 술잔을 올리고, 축관이 축문을 읽는 절차	초헌관, 축관
			아헌亞獻	아헌관이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절차	아헌관
			중헌中獻	중헌관이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절차	중헌관
			분헌分獻	분헌관이 배위 신위전에 술잔을 올리는 절차	분헌관
		음복례飲福禮	초헌관이 음복잔을 마시는 절차	초헌관	
		철변두 撤邊豆	철변두	축관이 변두를 옮기는 절차	축관
			사배四拜	모든 참사자가 일동배례를 하는 절차	참사자
망료례望燎禮	제례에 쓰인 축문과 폐백을 태우는 절차	초헌관			
예필禮畢	행사가 끝났음을 헌관에게 고하는 절차	알자			
12:00 ~ 13:00	예후의식 禮後儀式	헌관 인사	초헌관이 참사자들에게 치사를 하는 절차	초헌관	
		환복換服	헌관·제집사가 예복을 벗는 절차	여성유도회	
		일반 음복	참가자들이 음식을 나누는 절차	참사자	

① 입취위入就位

초헌관이 승렬전 참봉의 안내로 제수의 진설 상태를 검시(檢視)한다. 의식을 진행하는 집례와 헌관을 안내하는 찬인이 먼저 배위에 나아가 사배(四拜)하고 관세위에서 손을 씻는다. 이어서 축관과 제집사들이 찬인의 인도로 배위에 정렬하여 사배하고 관세위에서 손을 씻는다. 집사들이 전(殿)에 입실하여 위패의 함을 연다(開櫃). 찬인은 헌관과 분헌관을 인도하여 헌관위에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서게 한다. 이어서 알자가 초헌관 왼쪽에 나아가서 읍하고 삼가 모든 것이 갖추어졌으니 행사를 청한다. 헌관과 모든 참가자들이 사배한다.

② 전폐례奠幣禮

찬인이 초헌관을 관세위로 인도하여 손을 씻는다. 초헌관이 신위 앞에 나가 꿇어앉아 세 번에 걸쳐 향을 향로에 넣는다. 이어서 축관이 폐백이 든 광주리를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은 그것을 받아 높이 받들었다가 축관에게 주고, 축관은 신위전에 올린다. 초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찬인의 인도로 제자리로 돌아간다.

③ 초헌례初獻禮

찬인이 초헌관을 준소(술잔에 술을 따르는 곳)로 인도하고 초헌관은 준소를 살핀다. 초헌관이 신위 앞에 나가 꿇어앉으면 봉작이 술잔을 받들어 초헌관에게 주고 초헌관이 잔을 받아 높이 들어 헌작한 후 전작에게 주면 전작이 잔을 받아 신위전에 올린다. 헌관이 조금 물러나 다시 꿇어앉으면 축관이 동쪽을 향해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독축이 끝나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찬인의 인도로 제자리로 돌아간다.



초헌례

④ 아헌례亞獻禮

찬인이 아헌관을 관세위로 인도하여 손을 씻은 후 준소로 인도한다. 아헌관이 준소를 살핀 후 신위 앞에 나가 꿇어앉으면 봉작이 술잔을 받들어 아헌관에게 준다. 아헌관이 잔을 받아

높이 들어 헌작한 후 전작에게 주면 전작이 잔을 받아 신위전에 올린다. 아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찬인의 인도로 제자리로 돌아간다.

#### ⑤ 종헌례終獻禮 · 분헌례分獻禮

종헌례와 분헌례의 순서와 절차는 아헌례와 같다. 종헌관이 종헌례를 진행하는 사이에 분헌관은 분헌례를 진행한다.

#### ⑥ 음복례飮福禮

초헌관은 찬인의 인도로 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 서쪽을 향하여 꿇어앉는다. 축관이 나아가 초헌관 왼쪽에서 북쪽을 향해 꿇어앉는다. 전작이 음복잔을 축관에게 건네주면 축관은 그것을 받아 초헌관에게 주고 초헌관은 잔을 받아 음복을 한다. 축관이 빈 잔을 받아 원래의 자리에 가져다 놓고 적을 들어 초헌관에게 올리면 초헌관이 그것을 받아 높이 들었다가 다시 축관에게 건네준다. 축관은 적을 받아서 원래의 자리에 가져다 놓는다. 초헌관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면 찬인은 초헌관을 원래의 자리로 인도한다. 축관은 전殿에 들어가서 변과 두를 들어 옆으로 이동시킨다. 이어서 헌관 및 모든 참사자들이 사배를 한다.

#### ⑦ 망료례望燎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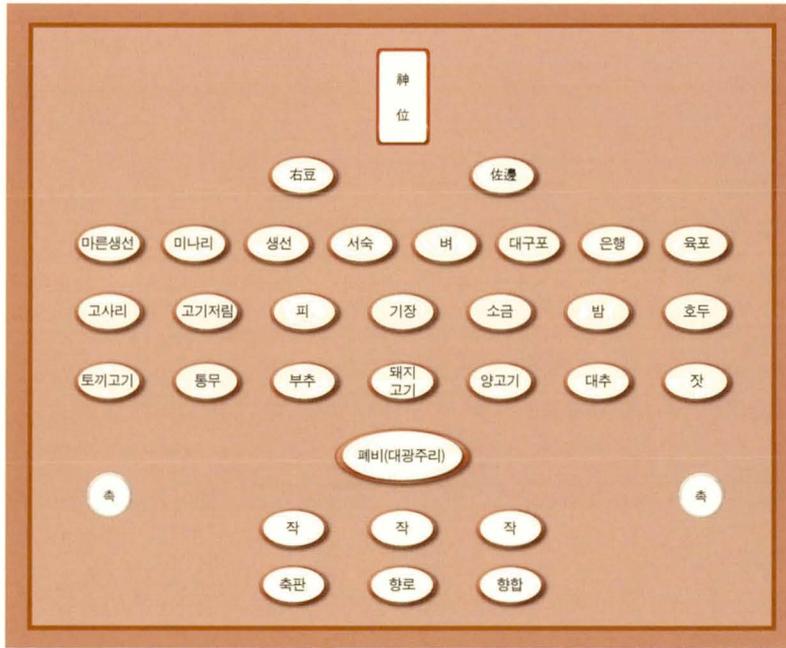
찬인은 초헌관을 망료위로 인도한다. 초헌관이 북쪽을 향해 서면 축관이 축관과 폐백을 담아서 서계로 내려가 불사르는 곳으로 가서 구덩이에 넣은 후 불사르고 덮는다. 찬인은 초헌관을 제자리로 인도한다. 집사들은 전殿에 들어가 주독을 덮는다.

알자는 초헌관 왼쪽에 서서 행사가 끝났을 알리는 예필을 한다. 축관과 제집사들은 배위로 가서 사배한다. 집례와 찬인은 배위로 가서 사배한다.

### (3) 제수와 제기

승렬전 전례의 제수祭需는 중사中祀의 규정에 따라서 8번8두이며 오랫동안 기본적인 찬품饌品은 변하지 않았다. 제수는 참봉이 직접 준비한다. 제수준비 기간은 10일 전부터이며 필요에 따라서 서울시 경동시장과 광주시 경안시장, 성남시 모란시장 등에서 구입한다. 희생犧牲은 별도로 주문하여 준비한다. 대전大殿 신위전神位前의 진설도陳設圖는 그림과 같다.

진설에 사용되는 제기는 국가전례에 사용되는 제기와 일반 사가私家에서 사용되는 제기가 상이하게 구분된다. 『국조오례의』 성립 이후 공공적 성격의 전례가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기



대전 신위전 진설도

때문에 국가전례의 제기는 고대의 전통을 계승하여 위엄 있고, 고풍적이며, 복잡하다. 반면 일반 사가의 의례에는 집안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간단한 그릇이 사용된다. 제기는 용도에 따라 젖은 제수와 마른 제수를 담는 것으로 나뉘며 희생犧牲과 술을 담는 제기와 곡식을 담는 제기가 있다. 그밖에 손을 씻는 물을 담는 닛대야, 향로와 향합 등이 있다. 기본적인 제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변籩 : 제사 지낼 때 신위神位の 왼쪽에 놓는 대나무로 만든 제기이다.
- 두豆 : 제사지낼 때 신위의 오른쪽에 놓는 밤나무로 만든 제기이다.
- 보簋 : 외형은 네모지고 안은 둥근 모양으로 곡식을 담아 놓으며 궤와 한 짝이다.
- 궤籩 : 외형과 내형이 모두 둥글며 곡식을 담아 놓는 제기인 보와 한 짝이다.
- 조俎 : 도마와 비슷하며, 희생을 담는 검은색 제기이다.
- 비篚 : 대나무로 만든 광주리로 폐백을 담는데 쓴다.
- 작爵 : 유기로 만든 술잔이다.
- 점玷 : 작을 놓기 위해 가운데는 원이고 밖은 네모난 받침이다.
- 희준犧樽 : 소 모양을 한 술 향아리이다.
- 상준象樽 : 코끼리 모양을 한 술 향아리이다.
- 산뢰山罍 : 산과 구름 모양을 곁에 새긴 술 향아리이다.
- 용작龍勺 : 술이나 물을 뜨는 기구이다.

#### (4) 제관과 복식

##### ① 제관

조선시대의 전례는 참석자의 위상에 비례하여 규모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국왕이 참석하면 친행親行이 되어 왕세자가 아헌관을, 문무백관의 대표자가 종헌관을 맡는다. 국왕이 유고로 친행하지 못할 때는 왕세자나 영의정이 대행하였는데 이를 섭행攝行이라고 한다. 한양성이외의 국왕의 제문祭文이나 향축香祝을 받는 치제致祭일 경우는 대부분 예조禮曹의 관리가 파견되어 국왕을 대신한 섭사의攝祀儀를 주관하거나 지방관인 관찰사가 대행한다. 치제의 성격이 강한 승렬전 전례는 경기도관찰사가 관할한다. 제관과 제집사는 광주부의 관리와 학생學生들 중에서 선정되었다. 현재도 참봉과 유사들이 주축이 되고 광주 유림 중에서 인품과 행례경험이 많은 유생을 추천받아 제집사로 위촉하고 있다. 승렬전 행례의 제관은 대전大殿을 담당하는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과 배위配位를 담당하는 분헌관인 헌관과 집례, 대축, 진설 제관과 알자, 찬인, 봉향奉香, 봉로奉爐, 봉작奉爵, 전작奠爵, 사준司樽의 집사자로 구성된다.

##### ② 복식

복식은 제관의 품위品位와 품계品階를 나타낸다. 제복祭服은 그 전례의 내용에 따라서 또는 입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달랐다. 제복을 입기 시작한 것은 국가의 틀이 잡히고 왕권이 확립된 이후부터라고 본다. 특히, 고대사회는 제정일치祭政一致 사회로 제사를 가장 중요한 행사로 시행하였다. 조선시대부터는 나라의 제사를 길례에 넣어 제복은 왕이 착용하는 의관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으로 규정하여 입었다.

예로부터 주자가례를 중히 여긴 관습으로 각 집안에서 지내는 제향도 엄격하게 시행되어 행례를 할 때는 반드시 의관을 갖추어 입었다. 제복 제도는 조선시대까지는 잘 준수되었으나 신분제도가 무너지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유가儒家에서는 심의深衣를 제복으로 입었는데, 이 심의는 그 연원을 중국의 춘추시대에 두는 동양전래의 예복이다.

현재도 제사 때 심의를 갖추어 입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유건儒巾에 도포나 두루마기를 갖춘다. 승렬전 전례의 제관과 제집사의 복식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금관제복金冠祭服, 조복朝服, 그리고 일반집사들이 입는 유생복이 그것이다. 헌관과 집례, 대축, 진설은 금관제복을 입는다. 경기도지사가 초헌관을 담당할 경우 7량간을 쓰며 광주시장이 초헌관이면 6량관을 쓴다. 량(梁)의 수는 금관의 줄의 개수를 뜻하는 것이다. 제집사諸執事는 유건도복儒巾道服을 입는다.

## 제7절 설화와 민요

### 1. 광주의 설화

광주의 설화는 남한산성과 관련한 내용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남한산성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과 민중적 사고가 접목되어 만들어진 이야기들이기도 하다. 또한 광주는 지리적으로 서울과 인접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물군과 관련한 전설도 많이 전승되는 특징이 있다.

#### 1) 회안국의 전설

기원 전후로부터 기원 후 2세기 중반까지의 부족사회를 원삼국시대, 또는 삼한시대라고 한다. 여기에서의 삼한은 마한, 진한, 변한을 일컫는다. 광주지역은 그중 마한의 일부였다고 한다. 『후한서』 등에는 모두 마한은 서쪽에 있고 진한은 동쪽에 있다고 되어있다. 또 어느 저명한 학자는, 마한은 서남에 위치하였고 진한은 동북에 위치하였다고 하며 진한을 한강유역까지 포함시키는 설을 내고 있다. 즉 오늘날의 광주지방이다. 그 학자는 광주의 옛 이름이 회안淮安임에 착안하여 저서에서 광주지역을 기자조선의 준왕이 위만에 쫓겨 내려와 나라를 세우고 거점으로 삼았던 지역이라고 논술 한 것이다.

『고려사』 지리지나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과 『광주읍지』의 연혁조를 보면 모두 광주의 별호를 회안이라고 하며, 광주의 고로古老들은 지금의 경안이 옛날 회안국왕의 소도지라고 한다. 그러나 이를 증명할 뚜렷한 고증자료는 없다. 한편 경안천 큰 다리 밑에 놓인 다리에 회안교가 새겨져 있으나 복개되어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한다.

#### 2) 서장대 매바위와 청량당

이 전설은 1624년 인조 때 남한산성을 쌓으면서 시작된다. 총 책임자 이서는 이회에게 동남쪽을, 승려인 벽암 각성대사에게는 서북쪽을 맡아 성을 쌓도록 했다. 산성을 쌓는 일은 나라의 중요하고 큰 사업으로,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나라 살림에 차질이 없다. 그래서 예정된 기간 안에 성을 쌓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북쪽은 지형이 완만하고 산세가 평탄했다. 벽암



한편 벽암대사가 쌓은 북쪽은 세월이 흐를수록 허물어지고 흔적도 없는 곳이 많았는데 이 회가 쌓은 남쪽은 오랜 세월 동안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한다. 이회의 억울한 죽음을 확인한 조정에서도 서장대 아래 청량당에 벽암과 이회의 영정을 모셔 제사를 올려주어 넋을 위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억울한 죽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당시 이회는 남한산성 수축을 기한 안에 다 못하는 것이 게으르고 무능한 탓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었다. 게다가 공사비를 착복했다는 헛소문에 시달려야 했다.

그런 남편의 어려움을 알게 된 부인 송씨와 첩 유씨는 가산을 정리해 남편을 도왔다. 부인 송씨와 유씨는 평소 자매지간처럼 의좋게 살았는데 남편 돕는 일에도 한마음이 되어 전라도를 거쳐 충청도와 경기도 일대를 돌며 모금을 했다. 여러 지방을 다니느라 심신은 지쳤지만 드디어 남한산성을 향한 강나루에 다다르자 남편을 볼 수 있다는 기쁨에 그 시름은 다 날아가 버렸다.

그런데 두 여인이 갈라터진 손으로 쌀 포대와 쇠붙이를 배에 싣고 송파나루로 향하던 뱃전에서 누군가 말했다.

“마님, 장군께서 어제 서장대에서 일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

“산성을 기한 내에 다 못 쌓았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송씨 부인은 말을 채 마치지도 못하고 쓰러졌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송씨는 정신이 아득했다.

“강직하고 올곧은 남편은 매사에 빈틈이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잘못도 없이 저승으로 가다니, 저승길에 얼마나 외로울까 ……”

그리고는 누가 말할 틈도 없이 한순간에 침병 강물로 뛰어들었다.

“형님! 이게 웬일입니까? 저만 두고 어디를 가십니까?”

망연자실 넋 놓고 있던 유씨 부인도 절규하듯 그 한마디를 남기고 송씨 부인을 따라 강물에 뛰어들고 말았다. 그러자 배가 기우뚱하며 쌀자루들이 강물로 떨어졌다. 강물은 이내 뿌연 쌀뜨물로 흐릿해졌고 이것이 몇 달 동안 계속되자 사람들은 그 나루를 ‘쌀뜨물 나루’라고 불렀다.

그 후 밤만 되면 그 강나루에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다. 날이 흐리거나 비라도 내리면 그 소리는 남한산성을 넘어 수어장대 앞 이회가 참수를 당한 지점까지 외한 맺힌 통곡이 되곤 하였다.

이를 알게 된 광주유수는 남한산 아래 기거하는 만신과 무당을 불러 송씨 부인과 유씨 부인의 님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올렸다. 그 후 청량당에 송씨 부인과 유씨 부인의 영정을 함께 모셔 제사를 지내니 여인의 통곡소리가 멈췄다고 한다.

### 3) 하늘이 내린 효자와 효자우물

남한산성 북문 안쪽에 효자우물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우물이 하나 있다. 그 효자우물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다.

수백 년 전의 일이다. 산성 북문 안 마을에 정남이라는 한 효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나이 열두 살 때였다. 정남의 아버지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자리에 눕게 되었다. 정남이 네는 그의 아버지가 하루하루 품을 팔아서 살아야 하는 가난한 집이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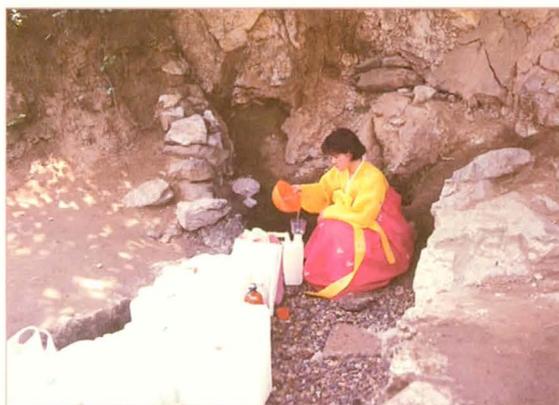
다. 그런 형편에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눕게 되었고 쌀마저 떨어졌다. ‘어쩌면 종단 말이나, 내가 굶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아프신 아버지가 굶게 되셨으니’ 정남은 이렇게 밥을 굶으면서도 아버지의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이제 겨우 열두 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년 으로서는 품을 팔 수도 장사를 할 수도 없었다. 정남은 할 수 없이 쪽박을 들고 나섰다.

“아주머니, 아버지가 병들어서 그러니 밥 한 술만 주십시오. 아버지의 병만 나으면 제가 일을 해서라도 은혜를 갚겠습니다.”

정남은 쪽박을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동냥을 했다.

“애구 가엾어라. 어린 것이 너무 고생을 하는구나. 어린애가 이렇게 효성이 지극하니 기특하기도 하지.”

정남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며 동정을 했다. 정남은 이렇게 동냥을 해다가 병든 아버지를 정성껏 봉양했다. 그러나 무슨 병인지 알 수 없는데다가 약 한 첩 제대로 쓰지 못한 탓에 아버지의 병은 좀처럼 낫지를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지나 가다가 아버지의 진맥을 살피게 되었다.



효자우물

“얘야, 네 아버지의 병에는 다른 약이 필요가 없다. 그저 큼직한 잉어를 구해다가 꼭 고아 드리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하고 훌쩍 가버렸다. 잉어가 좋다는 말을 들은 정남은 무척 기뻐다.

“아버지, 아버지의 병환은 잉어를 고아드리면 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나가서 잉어를 구해다 고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은 아버지를 안심시킨 후에 잉어를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혹시 강가의 어부라도 만나면 사정을 해서 잉어를 구하리라 마음먹고 어부가 있을 만한 곳마다 정처 없이 강변을 헤매었다. 그러나 때는 겨울철이었다. 강물은 모두 꽁꽁 얼어붙었고 매서운 바람만 뿜뿜거리며 불고 있었다. 너무도 혹독한 추위로 잉어를 얻지 못했고 아무리 헤매고 돌아다녀도 고기 잡는 어부는 한 사람도 없었다.

‘아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나? 낚시꾼도 하나 없으니 이러다가 잉어를 고아드리지 못하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거다. 잉어만 고아드리면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잉어를 구하지 못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어떻게 하늘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며 정남은 탄식을 했다. 정남이 어느 산기슭을 지날 때였다. 인가도 없는 산기슭에 우물이 있었다. 정남은 우물 앞에 힘없이 털썩 주저앉았다.

“신령님, 제 아버지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잉어만 구하면 우리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잉어 한 마리만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남은 우물 앞 산기슭에 주저앉아서 신령님에게 간절한 기원을 했다. 정남은 사정없이 몰아치는 추위와 하루 종일 굶고 걸어 다닌 피로로 기진맥진이 되었다. 그런데 기도를 올린 후 몸을 일으켜 다시 걷기 시작하여 우물가를 지나려니까 우물 속에 누런 금비늘이 찬란한 잉어 한 마리가 있는 것이다.

‘아니 잉어가!’

정남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쳤다. 정남은 두 손으로 잉어를 잡아 올리려고 했다. 그러나 잉어가 어찌나 크고 무거운지 간신히 건져냈다. 잉어는 별름별름 거리면서 펄떡펄떡 뛰었다.

“아, 신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 다행으로 잉어를 얻은 정남은 너무나 기뻐서 꽁꽁 얼어붙은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올렸다. 집으로 돌아온 정남은 잉어를 솥에 넣고 정성스럽게 고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밤새도록 정성껏 고아낸 약탕을 떠서 아버지에게 드렸다. 이를 맛있게 먹은 아버지는 과연 씻은 듯이 병이 나았다. 정남의 아버지가 산기슭 우물에서 구해 온 잉어를 고아먹고 병이 나았다는 소문이 차츰 근처 마을에 퍼졌다. 사람들은 정남의 효성이 지극해서 신령님이 잉어를 내려 주신 거라고 했다.

“정남이는 하늘이 낸 효자야.”

“암, 여부가 있나. 그 우물은 보통우물이 아니라 효자우물이야.”

“그렇지! 그 우물을 잘 받들어서 후세에 태어나는 자손들에게까지 알려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지, 그래! 효자우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고을의 자랑으로 삼아야 하네.”

정남의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그의 효성을 칭찬했고, 그 일이 있는 이후부터 이름 없던 그 산기슭의 우물을 효자우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2. 광주의 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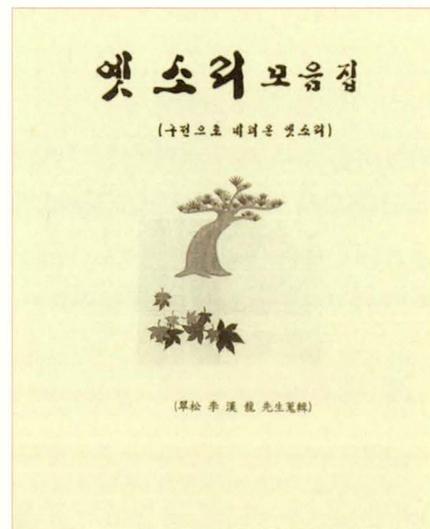
### 1) 광주지역 민요의 특징

민요民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전문적인 음악인들이 공연을 목적으로 부르는 '통속민요'이며, 다른 하나는 전통사회 민중들의 노래인 '향토민요'이다. 전문적인 음악 훈련을 받은 소리명창들이 부르는 통속민요는 가사의 문학적인 측면과 곡조의 음악적인 측면이 세련되게 다듬어지고 비교적 넓은 지역에 전파되어 불리고 있으나, 일반 서민의 노래인 향토민요는 가사와 곡조가 소박하고 비교적 좁은 권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특징이 있다.

민요를 '기층 민중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삶과 밀접하게 부르던 노래'라고 한다면, 이는 바로 '향토민요'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향토민요 속

에는 그 시대,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과 관련한 정서가 풍부하게 담겨 전한다.

광주지역의 민요는 고유한 음악문화를 간직한 향토민요와 서울·경기지방 전문 음악인의 소리인 통속민요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들 노래는 경기지방의 음악적인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데, 향토민요는 서울·경기지방의 진경토리와 반경토리<sup>15)</sup>로 된 노래가 있으며, 경기



구전으로 내려온 『옛소리 모음집』 (이한룡 수집)

동부지역의 보편적인 음악성을 드러내는 메나리토리<sup>16)</sup>의 노래도 많이 분포되어 있다.

1990년에 편찬된 『광주군지』에 수록된 광주지역의 민요는 「아리랑, 「긴 아리랑,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 「사설 방아타령, 「건드령타령, 「오봉산타령, 「한강수타령, 「액맥이타령」 등인데, 이들 민요는 대부분 통속민요에 속하는 것으로 서울·경기지방 전문음악인인 경기명창들의 연주곡목에 속하는 것이다. 이들 노래는 서울·경기지방의 유흥공간이나 민간의 잔치 등에서 주로 불렸고, 현재는 공연무대나 방송·음반을 통하여 전승되는 음악이다. 따라서 이들 통속민요는 광주지역의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간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 노랫말 속에서도 광주지방만의 고유한 특성은 찾기 어렵다.

광주민요의 리듬구조는 느리게 부르는 긴소리의 경우 대부분이 3소박 4박자의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드물게 자진소리에서는 2소박의 구조를 보이는 것이 있다. 또한 노동요와 의식요의 경우는 대부분 '메기고 받는 소리'로 부르며, 「소모는소리」나 통속민요는 독창으로 부른다. 이들 노래는 모두 광주의 전통문화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형성·전승되어 왔다. 따라서 이 노래 속에는 광주지역의 고유한 정서가 풍부하게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하여 소중한 음악문화가 오래 전승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옛날 광주지방에는 디딜방아가 많아서 「디딜방아소리」가 많이 불렸으며, 짧은 형태의 「베틀가」도 불렸다고 한다. 또한 광주지역의 「나물타령」은 일종의 어희요(語戲謠)로 여러 가지 나물의 이름을 엮어 불렸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월령체로 엮어 부르는 「범벅타령」과 「달거리타령」이 있었으며, 「떡타령」도 불렸다고 한다.

그 밖에도 여요(女謠)와 동요(童謠)가 많이 구전됐었다고 하지만,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들 향토민요의 대부분은 전승이 단절되고, 오늘날에는 광주시 권역에 속하는 몇몇 지역의 고로(老)들에 의하여 소수의 향토민요가 전승되고 있다.

## 2) 생활노동요

노동요는 일을 하면서 일의 힘듦과 지루함을 잊고,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참여하는 여러 사람의 동작을 통일하여 일의 능률을 높이는 기능을 지닌 노래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요는 그 기능이 매우 뚜렷한 노래인데, 오늘날 광주지역에 전승되는 노동요는 농업노동요, 즉 농

15) 경토리란 경기민요의 선법의 하나로 경드름, 경조, 경제라고도 한다. '술·라·도·레·미'의 5음계로 맑은 느낌을 준다.

16) 강원도·경상도·충청도 일부 지방에 전승되는 민요인 '메나리'의 한 종류이다. 농부들이 김을 밭 때 부르는 노동요로 풍각쟁이들도 불렀다. 16자가량의 두 악구로 되어 있고 뒷소리는 없다. 이러한 특징의 경상도·강원도지역 민요를 메나리토리라고 한다.

요農謠가 대부분이며, 그 중에서도 논농사와 관련한 노래가 많다.

옛날에는 논농사의 대부분 과정에 노래가 있었지만, 영농의 기계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논농사소리들이 잊혀지고 있다. 다만 예전에 소를 몰아 논을 갈면서 불렀던 「소모는소리(논가는 소리)」, 「모심는소리」, 「논매는소리」가 현재 전승되고 있다.

### (1) 논가는소리

「논가는소리」는 소를 몰아 논이나 밭을 갈면서 부르는 소리이므로 '소모는소리'라고도 한다. 따라서 사설(노랫말)의 대부분은 소를 부리는 소리이며, 이랑 끝에서 소를 돌릴 때는 소 부리는 말이 많아진다. 그러나 소가 곧게 나가는 부분에서는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사설을 엮어 부르기도 하는데, 이들 노랫말은 다



소를 몰아 논갈이하는 모습(1980년대 후반, 탄별동 박용재 제공)

른 민요의 사설에서 차용하기도 한다. 땅이 척박하거나 돌이 많은 밭을 갈 때는 쟁기에 소 두 마리를 메워 쟁기질을 하는데 이를 쌍겨리라 하고, 이때 부르는 소리를 「쌍겨리소리」라 하지만, 쌍겨리소리를 흔히 '겨리소리'라고도 한다. 광주에서는 주로 외겨리로 논을 갈았으며, 쌍겨리를 쓰는 것은 매우 드물었다고 한다. 「논삶는소리」는 쟁기 대신에 씨레를 메워 논바닥을 고르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작업 과정이 논가는 것과 같아 소리에 별다른 차이는 없다.

### (2) 모심는소리

「모심는소리」는 모판에서 찢 모를 심을 논으로 옮긴 다음, 여러 사람이 못줄을 대고 늘어서서 모를 심으며 부르는 노래이다. 광주에서는 주로 심는 모를 세면서 부르는 '열소리' 계통의 노래가 많이 불리는데, 경안동·송정동·광남동·중부면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광주에서 불리는



광주농고(현 광주중앙고) 학생들의 실습답 모심기(1968, 태전동 이원대 제공)

모심는 소리의 하나로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 같은 노래가 있는데, 지역에 따라 사설 양상에 차이가 있다. 주로 도척면·오포읍·초월읍·퇴촌면 등에서 불렀다.

### (3) 논매는소리

논농사 소리 중에서 가장 발달된 것이 「논매는소리」이다.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논은 세 번 맨다. 처음 호미로 논을 매는 것을 초벌 또는 애벌 논매기라 하고, 두 번째 매는 것을 두벌 또는 '이듬' 맨다고 하며, 세 번째 논매는 것은 '흙친다' 또는 '피사리 한다'고 한다. 이 중 소리가 가장 성한 것은 두벌 논매는 소리이다. 초벌 논매기가 호미로 흙을 파 엮는 고된 작업인데 비하여, 두벌 논매기는 손으로 흙을 부수면서 하는 작업이라 힘이 덜 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광주지역에서는 매우 다양한 「논매는소리」가 불렀다. 이들 소리는 자연스럽게 인접 지역의 농요와 교류하게 되는데, 광주권역 내에서도 곡조에 따라 주로 불리는 지역이 달랐다.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불리던 것으로는 「끓었네」와 「오하소리」, 「방아소리」, 「상사소리」 등이 있으며, 한두 지역에서만 불리던 것으로는 「돌레소리」, 「찍었네」, 「몬돌소리」, 「대허리」, 「우야소리」 등이 있다.

김혜정 채보

free rhythm

히 이 이히 야

아 하하아 아 히 오 이 이 이 이

에 헤 로

오호 호오 오 오 호오 어

라 우 겨 라 방 아 요

이들 노래는 대부분 메기고 받는 방식으로 부르는데, 한 사람의 선소리꾼이 북을 치면서 앞소리를 메기면, 여러 사람들이 뒷소리를 받아 준다. 소리의 제목은 이 뒷소리, 즉 후렴구에서 따다가 붙인다. 선소리꾼은 소리를 시작할 때 첫 마디에 뒷소리꾼들이 받아야 할 소리를 먼저 내어 준다.

### 3) 의식요

의식요(儀式謠)는 민간의 각종 의식에서 부르던 민요로, 세시의식요와 장례의식요로 대표된다. 그러나 지신밟기나 각종 고사(告祀) 등의 민간 세시풍속이 대부분 전해지지 않으므로, 그와 관련된 민요도 자연스레 전승이 단절되었다. 반면에 장례의식에서 부르던 민요는 아직도 남아 전하고 있으며, 이 중 무덤을 다지며 부르던 「달구소리」는 비교적 전승이 활발한 편이다. 이는 장례절차에서 운구(運柩)가 대부분 차량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매장 후 봉분을 조성하는 작업은 아직도 전통적인 방법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 (1) 상여소리

「상여소리」는 ‘행상소리’라고도 하는데, 선소리꾼이 요령을 흔들며 앞소리를 메기면, 여러 상두꾼들이 뒷소리를 받으며 부른다. 발인 절차에 이어 상여가 동구 밖을 나서기까지는 대부분 느리게 「긴 상여소리」를 부르지만, 상여가 큰 길로 나서면 「자진 상여소리」를 부르고, 가파른 비탈길을 오를 때는 짧은 소리를 부른다. 광주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긴소리로 ‘어거리 넘차’ 소리를 부르며, 자진소리로는 ‘어호’ 소리를 부르고, 짧은소리로는 ‘여차’ 소리를 부른다.



상여 나가는 모습(1960년대, 곤지암읍 하열미리 구자국 제공)

## (2) 달구소리

「달구소리」는 매장 후 봉분을 조성하면서 부른다. 선소리꾼은 북을 치면서 앞소리를 메기고, 뒷소리꾼들은 정해진 후렴을 받으며 노래하는데, 달궂대를 손에 들고 발로 땅을 밟아 다지며 부른다. 후렴은 '에 허리 달구'나 그 변형을 부르는데, 「긴 달구소리」와 「자진 달구소리」는 빠르기만 차이가 있을 뿐 사설 내용에서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농요에서 전이된 소리인 「상사소리」, 「오호소리」, 「우야소리」 등을 달구소리에 포함하여 부른다.



달고질(회다지) 하는 모습(1960년대, 곤지암읍 하열미리 구자국 제공)

## 4) 유희요

유희요는 본래 놀이와 관련하여 부르던 것으로, 「줄다리기노래」나 「웃노래」, 「투전불림」 등이 여기에 속하지만, 현재 광주지역에 전승되는 노래 중에서 이 같은 유희요를 찾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는 「강강술래」나 「쾌지나칭칭나네」와 같은 무용유희요나 아이들의 전래동요 등도 현재는 찾기 어렵다.

광주에서 불리는 대표적인 통속민요로는 경기민요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창부타령」과 「노랫가락」, 「뱃노래」와 인접한 강원도지역에서 전해진 「아리랑」 계통의 노래가 있다. 또 전문 소리꾼들의 연행 곡목에 속하는 「장기타령」, 「담바귀타령」, 「국문뒤풀이」 등도 전승된다. 특히 서도소리에 속하는 잡가 「초한가楚漢歌」가 「장타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황해도지방 민요인 「사설난봉가」도 전승되고 있다. 특히 곤지암읍 만선리에서 채록된 「범벅타령」은 매우 해학적인 사설을 서사적으로 엮어 부르는 점이 특이하다.